



3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3호

(루게 353)



◆◆◆◆◆◆◆◆◆◆ 차 례 ◆◆◆◆◆◆◆◆◆◆

온성땅	2
량수천자기슓의 여울물소리	3
지원의 높은 뜻을 받아안으시고	4
위대한 전환의 봄	5
만경대의 백양나무	6
푸른 소나무	7
해방의 화불을 높이 드시여	8
작가들의 기량을 더욱 높이자!	12
산촌의 아침	16
생활의 흐름	24
넓어지는 대지우에서	31
당이어 내 그대를 어머니라 부름은... ..	34
밤하늘엔 별무리 찬란하고... ..	35
영원한 사랑의 젖줄기	36
다락밭에도 기계화의 봄이	37
이 기쁨 이 영예여	37
조국강산이 설레인다	38
가사 《3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에 대하여	39
관점문제	42
광부의 하루	49
대양의 한끝 그 어디에 가도	52
우리 소조원 혁명의 전위여	53
불타는 철의 기지에서	54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를 빛내이는 사람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57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 쓰자	60
증오의 노래	63

온성땅 외 1편

왕재산의 하얀 봇나무숲을 봐도
어버이수령님의 미소가 어려있구나
두만강의 눈부신 금모래를 밟아도
그이의 뜻이 어린 발자욱 새겨있구나

후더운 눈시울에
뜨거운 이 가슴에
소리없이 젖어드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내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어데이런가
조국진군의 첫자욱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
압제의 얼음장을 녹이시며
해방의 새봄을 실어오신 그 기슭은,
오매에도 그리던 그이 품에 얼굴 묻고
감격에 흐느끼던 공작원들 어깨너머
산발도 들먹이던 왕재산마루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에
산을 타고 강을 건너 날아오던 마음들이
그이의 해발되어
어둠을 밀어내며 온 나라로 퍼져가던
영광의 품이여

어데이런가
낮이면
흐르는 강물마저 깊숙이 품을 벌려
유격대 나무배를 소중히 품어주던 그 지점은,
밤이면
항일전에 부르는 사령부 격문 안고
열혈의 청춘들이 붉은 피 끓이던
그날의 야학방은,

말해다오, 두만강물결이여
피흘리며 숨이 진한 어깨우에서

조국의 지성 고인 원호품만은
마지막 힘을 모아 사령부로 넘겨주던
잊지 못할 기슭은 어디바루냐

말해다오, 산천이여 오솔길이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축복하는
민족의 영광을 축기에 수놓아
총검의 숲을 헤쳐 사령부로 안고간
이름모를 녀인들은 누구들인가

아, 온성땅 온성땅
사령부의 명령을 앞장서 받아안고
혁명으로 부르던 기수들의 요람이여
원썬들의 총구앞에 철의 가슴 내대고
사령부를 보위하던 불굴의 땅이여

너는 유격구의 혁명가요 제일먼저 받아불러
조국땅에 들려준 노래의 선창자
너는 찬란히 밝아올 해방의 려명을
삼천리에 선참으로 불려온 력사의 고장이거니

그날의 그 뜻을
저 봉화탑의 해불로 하늘높이 추켜들고
너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있구나
혁명의 행군길은 끝나지 않았다고

시련의 그날에
비발치는 탄우속에
사령부의 보루인양 철의 가슴 내대던
그 시절 그 맘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보위하라고

너는 오늘도 부르고있구나
주체의 해발을 조국땅에 펼쳐가던
그 시절 투사들의 걸음으로
지구의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혁명의 한길로만 억세게 달려가라고...

량수천자기슭의 여울물소리

그 무슨 사연 깊어
무거운 침묵속에 흘러오던 강물도
가슴 풀어헤치고
목청을 돋구는가
량수천자기슭의 두만강 여울소리

그 무슨 인연 맺어
떨어지기 아쉬워 강심을 땀돌며
산과 들을 부르고
내 마음을 부르는가
량수천자기슭의 두만강 여울소리

기슭으로 밀려오는 정다운 수면우에
한자루 도끼 찾아 얼음속을 더듬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영상 어려와
잠시 걸음 멈추면
마음속 깊이깊이 여울쳐 흘러드는
두만강의 속삭임 나는 듣노라

아무리 후한 값을 치른다 해도
손때 묻은 농민의 정 어이 다 갚느냐고
그리도 아쉬워 자리를 못뜨시던 아버지 그 심정
옷자락에 방울방울 고드름으로 맺히던
예가 바로 그 자리라고,

세월의 흙모래에 깊이 묻힌 도끼와 함께
하늘땅도 잊어버린 추억을 다시 불러
옛시절 머리 흰 전사들을 보내시며

다시 한번 꼭 들러 사과해 달라시던
예가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라고
강물도 흐느끼며 이야기하네
산발도 들먹이며 목메여하네
인민의 모든 소원 버려내고 다듬어내는
강철의 공업국을 세워주신 오늘에도
그날의 도끼만은 못잊어하시는
아버이수령님

찬서리 헤치시고
찬이슬 맞으시며
그날의 고드름 녹여볼 사이 없이
한평생을 인민 위해 바쳐오시면서도
인민에게 남겨주신 한순간의 아쉬움만은
흐르는 세월로도 크나큰 재부로도
지울수도 메울수도 없어하시니

아, 하늘의 높이도 못가닿을 그 사랑
바다의 깊이도 못다미칠 그 은정
대를 이어 전하고 전해도
세월이 모자랄
인민의 다함없는 마음속 바다에서
끝없이 끝없이 솟음쳐오르네

량수천자기슭의 두만강 여울소리
량수천자기슭의 두만강 여울소리...

차승수

지원의 높은 뜻을 받아안으시고

굽이굽이

첨첨준령 산밭을 넘어 아득히

눈보라 태질하는 얼어붙은 천리길

팔도구에서 만경대는 얼마나 되느냐

기차로도 온 하루 대이기 힘들 천리길을

어찌 떠나셨단말인가

열두살 어린신 원수님께서...

아버님 손저어 바래주시던

팔도구는 어디냐

들메나무에 올라 무지개잡이하시며 꿈을 키우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만경대는 예서 또 몇백리이나

눈보라 굽이굽이 사나운 령길

하늘을 무너내릴듯한 천둥치는 눈보라

태고의 준령을 뿌리채 뽑아내칠듯

천고밀림의 울부짖음

눈에 묻힌 길가의 초가막에서도

한많은 겨레의 신음소리 새겨들으시고

토스레웃의 주름깊은 로인의 얼굴에서도

나라 잃은 겨레의 설움을 느껴안으시며

아, 우리의 원수님께서 눈길을 헤쳐가신다

나서자란 고향땅 빼앗기고

일제원쑤에게 짓밟히고 혈벗은 인민들

겨레의 가슴속 피맺힌 그 원한을

열두살 원수님께서 새겨안으시며 가신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뜻으로 넓혀주신 가슴에

조선을 안으시려 가신다

눈보라 천리, 배움의 천리

일제 원쑤 처부실 불을 안으시며 가신다

아, 그 불

천둥치는 눈보라속에서

짓밟힌 강토우에서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그 불

조선의 두손에 높이 쥐여졌다

노예의 사슬을 녹여

마치와 낫, 장검을 버리는

투쟁의 해불로!

정균흡

위대한 전환의 봄 외 1편

세차게 울부짖는 바람소리 바람소리
하늘땅에 메아리치여라
노예의 사슬에 얹매인 강토를 안고
세차게 울부짖는 바람소리 바람소리
바닥없이 깊어가는 준엄한 밤이어

조선아, 네가 갈길 과연 어디더냐
이 땅에 봄은 영영 가고말았는가
얼어든 가슴을 부들켜안고
숨져가는 조국을 목메여 부르며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는 짓밟힌 겨레
피눈물마저 얼어붙은 이 밤...

아, 이 밤에 잠드실줄 모르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등잔불아래 한자 두자 글을 적어가시며
성스러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위대한 강령을 무르익히시며
투쟁의 새봄을 가꾸시여라

의병들의 분노에 찬 칼도
땅속에 깊숙이 묻히고
독립군의 화승대에도 불이 꺼져가는 이 땅
살아서 설곳 없는 이 강토우에서
사람들의 피를 끓여주는
싸움의 새날을 밝혀가시는 선생님

흠어지던 민족의 가슴속에
피끓는 뜨거운 심장이 되어 높뛰
혁명조직을 안아오시며
한자 두자 적어가시는 글발
아, 조선국민회,

선생님께서 돌구시는 등불아래
1917년 3월 23일

력사의 그 새벽은 밝아오고있어라
압제의 검은 구름을 몰아내며
조선의 봄날로 삶의 꽃을 피우며

조선사람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찾으시려는 그 결심
선생님께서 적어가시는 글발속에 해빛처럼 찬란
하고
피와 눈물로 숨막히던 이 강산우에서
조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위대한 전환의 봄
새날이 밝아와라

아, 식민지강토의 캄캄한 하늘아래
해마다 가고온 그 모든 나날도
이해 이 아침에 해돋이를 맞았어라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원》의 큰 뜻을 심어주며

조선을 깨우치고 힘을 묶어세우는
조선국민회의 기치아래
사람들은 피와 눈물로 얼어든 강산에서
봄의 대지로 펼쳐나섰어라
동해가 끓고 산이 동하는
싸움의 대지로 펼쳐나섰어라

아, 조선국민회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의 가슴속에 안겨주신
민족재생의 피똥은 심장이여

조국해방의 거세찬 숨결 안고
그 심장이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한

1917년의 그 봄날부터
이 땅우엔 피가 뛰고
조선의 슬기가 나래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기치높이
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펼치신
그 영광의 언덕우에서
《지원》의 큰 뜻이 꽃피고 열매맺어
오늘의 화창한 락원이 솟아올랐거니

우리러 다함없는 그 이름
조선국민회 창건자이신
김형직선생님
사나운 바람 울부짖는 수난의 그날에
조선의 영원한 봄을 마련하신분

해와 별처럼 영원히 빛나라
조선국민회-그 빛나는 이름과 더불어
조선국민회-그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조선국민회-그 숭고한 지향과 더불어

만경대의 백양나무

싱그러운 바람에 잎새를 흐느적이며
백양나무 설레이누나, 만경대의 백양나무
손으로 쓸어보고 우리러보면
김형직선생님의 그리운 그 영상
가슴에 안겨와서 뜨거웁구나

백양나무의 푸른 가지가
저 하늘높이 자랄 때면
조국도 해방되고 독립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높으신 뜻
아지마다 잎새마다 어리고 스며서
해빛을 안은 가슴 행복에 젖는구나

일제가 짓밟은 조국땅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아프신 심정으로
숨겨가는 민족의 피멍이진 가슴에
소생의 숨결을 주시는 마음으로
한삼두삼 흙을 다져 심으신 나무여

선생님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으로
이 땅우에 억세게 뿌리를 내렸구나
숭고한 그 뜻을 해빛으로 받고
성실한 가지와 잎새를 키우며
압제의 하늘아래에서
조선의 새 년륜을 새기며 자랐구나

고향 떠나 혁명의 만리길을 헤치시며
선생님께서 싸우신 그 날이 있어
짓밟힌 강토우에 한치한치 뿌리를 내리며
아지를 치고 잎새를 푸르게 피워올렸구나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해방된 조국강산

그 하늘가에 찬란할 해빛을 향하여

아, 해방된 조국, 찬란한 저 하늘가에
백양나무는 저렇듯 설레이는데
어이하여 선생님께서는 다시 못오셨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으시고 락원을 펼치시여
은혜로운 해빛이 눈부신 이 강산에...

새 나라를 세우고 잘 살아보자시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못잊어
꽃피는 행복속에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씀 더더욱 가슴에 사무쳐서
쓸어보고 어루만지며 우리르는
온 나라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누나

백양나무, 백양나무, 만경대의 백양나무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의 폭압밑에 짓눌려 숨겨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신념으로 심어주시고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의 하늘가에
영원히 세워주신 사랑의 나무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선생님의 념원 꽃핀 이 강산
무성한 잎새우에 영광을 싣고
오늘에 누리는 이 행복의 참뜻을
만사람의 가슴속에 깨우쳐주고 새겨주며
조선을, 싸우는 세계를
태양의 빛발아래 영원히 세워주누나

김윤철

푸른 소나무

망국의 서러움과 울분이
이 땅의 산과 들에 맺히고
떠도는 눈물과 한숨이
피타게 파고들던 그 새벽

만경대 초가집의 방문을 여시고
감옥에서 받은 어혈을 가뭇 잊으신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남산을 바라보시여라

감옥의 두터운 담벽안에서도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정다운 산천
이 아침 못건디게 갈마드시는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뜨거운 사랑을 보내시며
선생님께서서는 고향의 산기슭을 바라보시여라

감옥의 철문을 나오시던 그 순간에도
다정한 손길들의 부추김을 끝내 만류하시며
푸른 하늘을 향해 머리 높이 드시고
만경대로 걸어오신 선생님

일제의 악형에 쇠약해지신
자신의 한몸보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강토와 겨레가 당하는 참변이
너무도 크고 크시여
잠시도 자신의 몸 따스한 아래목에 덤힐수 없으시
기에

이제 또다시 헤쳐가셔야 할
투쟁의 혈로를 생각하시며
철렁쿨에 칭칭 휘감겨서도
푸른 잎새마다 생기를 뿜으며
곳곳이 서있는 한그루 소나무앞에
불타는 시선을 멈추시여라

푸른 소나무

가지마다 무겁게 백설을 띄이고도
변함없이 푸른 잎새 흔들며 서있는 저 자세
기어이 찾아올 봄시절을 그려
눈보라의 차거움을 이겨내는 저 자세

사나운 광풍이 때없이 몰아치고
악착스러운 독벌레와 어지러운 잡초들이
한몸에 파고들고 휘감겨들어도
가지하나 휘여들지 않는 불굴한 저 기상은
굽힘없는 저 절개는...

선생님께서서는 분명히 책상앞에 앉으시여
마음속으로 푸른 소나무를 안으신다
한장의 종이우에 힘있게 써가시는 글발
조선의 기상을 담은 불같은 노래여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아, 심장의 노래, 투쟁의 맹세
꺾일줄 모르는 기상 답아
시 한편을 남기시고
싸움의 길에 오르신 김형직선생님
그날 그 새벽에 떠나신 걸음
이 땅에 해돋이를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산천, 그리운 겨레결으로
다시는 돌아오시지 못하시였어도

설레이여라 소나무
삼천리에 푸르른 조선의 소나무여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푸르게 열린 조국의 하늘가에
선생님의 불굴의 그 기상인양
푸른 소나무 영원히 이 땅에 설레이여라

한정준

해방의 해불을 높이 드시어

장설에 파묻힌 대지를 흔들며 봄우뢰가 터진다.
가지에 듬뿍 실린 상고대를 털어던지며 봉화산의
푸른 소나무들이 불바람을 불러 밝은 웃음을 창공
에 던진다.

3월! 봄을 불러 겨울의 마지막 추위를 밀어내고
소생의 넋을 대지에 심어주는 3월, 이 땅에 3월이
왔다.

동터오는 이 강산의 해돋이를 맞이하시려 엄혹한
세월의 모진 풍랑을 헤치시고 준엄한 력사의 새벽
길을 걸으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
직선생님.

봄맞은 강산에 주체의 위대한 태양을 안아올리시
려 《지원》의 원대한 뜻으로 겨울의 마지막 설한
풍도 애국의 더운 피로 덮혀가시던 조선의 아버지
김형직선생님.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오히려 밝게 웃으시던 선생
님의 그 불같은 의지가 깃들어서인가 저 봉화산의
푸르른 로송들은 봄을 맞아 더욱 푸르러 설레인다.

남산에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양춘가절 그리도 그리시던 선생님의 뜨거운 념원
이 꽃으로 피었다. 행복의 노래소리 높은 이 나라
강산에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이 쏟아져내린
다.

력사의 봄 3월,

우리는 3월을 맞을 때마다 봉화산마루에 높이 오
르시어 망국노의 죄사술에 얽매어 몸부림치던 수난
의 시기에 조선국민회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
시던 선생님의 위대한 영상을 가슴에 안는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
하시고 지도하신 조선국민회가 압제와 예측의 검은
장막속에서 동터오는 조선의 새벽을 불러오며 이
세상에 자기의 탄생을 엄숙히 선포한 때로부터 60
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월의 흐름속에 삭막해
지는것은 기억뿐이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흐를수록 더더욱 사무치게
안겨오는 모습, 봉화산의 산정에 오르시어 조국해
방의 해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자주독립의 대강을
펼쳐가시던 선생님의 숭엄한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
다.

60년전의 그날, 봉화리에서 조선국민회의 창건
을 선포하시던 선생님의 목소리는 2천만 조선동포
들을 잠에서 깨우는 해방의 종소리로 메아리쳤고
선생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구국의 해불은 그들의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밝히며 천리만리로 비쳐갔다.

조선국민회-그것은 암흑에서 광명으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였고 일제의 총칼에 허덕이며 무참히
쓰러지던 우리 민족에게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독
립할 투쟁의 불씨를 안겨준 첫 봉화였다.

돌이켜보면 20세기초엽의 조선은 피눈물로 얼룩
진 땅이었다.

조선의 머리우에는 총칼에 받들린 왜놈의 더러운
기발이 꽃혔고 조선의 심장은 침략자의 극악무도한
무단통치로 란도질당했다. 조선은 팔과 다리를 족
쇄에 묶이었고 허리는 압제의 쇠사슬에 칭칭 얹매
여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었다.

그처럼 맑고 그처럼 깨끗하던 조선의 하늘에는
나라 잃은 겨레의 원한이 사무쳐 먹장구름만이 무
겁게 흘러갔고 금수가 뛰놀고 오곡백과 무르익던
이 땅은 애국의 더운 피로 얼룩졌고 우국의 더운
눈물이 흘러넘쳤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외로운 쪽배에 몸을 싣고 풍
랑사나운 현해탄을 넘어갔고 폐목군의 구슬픈 노래
가락이 처량하게 울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황막한 땅 낯설고 물설은 만주광야의 거칠은 땅에
피나리보짐을 풀었다.

조선의 력사여, 너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일제
의 노예로 망국노가 되느냐, 아니면 사생결단코 싸
워서 네 모습을 되찾느냐, 어느 길이나, 기로에 오
른 조선이었다.

하늘에도 땅우에도 어둠은 끝없이 휘감겨 깊어만
가던 수난의 밤, 손에 화승대를 쥐고 일제와 싸우던
의병들은 밤이 지새도록 한숨과 눈물에 젖어 가물
거리는 초불과 함께 스러지고 이 땅 이 강산에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싸워서 조국을 찾겠다던 《애

국자》, 《우국지사》들은 잡초무성한 어느 산등성이에 룡혈포를 묻고 국외로 은신하여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구걸하던 깊은 밤, 독립운동도, 계몽운동도 쓰디쓴 실패로 잠잠해진 조선은 칙칙야밤속에 몸부림쳤다.

과연 조선은 이렇게 빛을 잃어야 한단말인가, 진정 이 땅우엔 영영 해빛이 스며들지 못한단말인가, 아름다운 새벽노을도, 맑은 하늘도, 가슴설레는 봄향기도 없단말인가.

수난당한 우리 민족은 가슴치며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였고 애국의 보검을 높이 쳐들고 원수를 한칼에 베어놓히는 명장하나 낳지 못한 무심한 강산을 쳐다보며 두주먹을 부르짖고 통곡하였다. 산발적인 동맹파업도, 소작쟁의도 일으켜 일제와 계급적원수들을 맞받아나섰으나 기수가 없어 무참히 짓밟혔다.

강토는 있어도 나라는 없고 인민은 있어도 힘이 없던 민족수난의 그 밤, 그 밤을 가시는 길에 민족의 모든 역량과 힘을 옹바로 이끌어들어 정확한 투쟁의 기지와 혁명적인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10년대도 다 저물어가던 바로 이때 시원한 풍기와 맑은 샘, 앞이 탁 트이는 려명의 등불이 타올랐다.

봉화산기슭의 나지막한 집에서 등불이 타올랐다. 한줄기 그 빛으로 어둠에 늘리운 온 조국강산을 밝히시려는가,

조선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 민족이 낳은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등불심지를 돈구시며 사색의 바다를 헤쳐가고계셨다.

한자를 쓰시다가는 붓끝을 멈추시여 나라 잃은 겨레들의 한숨소리 들으시고 또 한줄 쓰시다가는 거연히 머리 드시여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폭압과 약탈의 피물은 말발굽소리를 들으신다. 과연 무너져내리는 조선을 어떻게 구원할수 있단말인가.

외세의존, 그것은 망국노의 길이다. 렬강의 《원조》를 바라며 《독립청원서》를 써가지고 헤그에 갔던 리준이 아까운 배만 가르지 않았는가. 사대주의자들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조선독립운동은 갈수록 헤여날길 없는 진흙탕속에 빠져들어가고있지 않는가.

선생님께서서는 마침내 렬사의 이 모든 오물들에 종지부를 힘있게 찍으시고 미구에 밝아올 동녘하늘가를 바라보시며 거연히 일어서신다.

《조선사람은 어딜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

다. 렬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조선의 얼, 민족의 자주정신을 잃지 말자!

단합된 조선인민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

선생님께서 애국의 더운 피로 조선국민회의 붉은 기발에 새겨넣은 이 힘찬 글발들은 민족의 운명앞에 찬연한 빛발을 안겨준 조선의 선언이었으며 망국의 치욕에 몸부림치던 조선의 광명한 래일을 밝혀주는 구국의 세찬 화불이었다.

드디어 렬사의 날, 1917년 3월 23일이 왔다.

준엄한 시대의 광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봉화산마루에 거연히 서신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의 창건을 장엄하게 온세상에 선포하셨다.

아! 그날 눈서리에 파묻혔던 봉화산의 소나무도 소생의 기쁨을 안고 끝없이 설레였고 걱정의 흰갈기 휘뿌리며 맥전나루 물결도 흐느끼며 소리쳐 흘렀다. 검은 구름 흐르던 저 하늘도 창창히 열리고 얼어붙었던 대지도 무르녹아 소생의 큰 숨을 내쉬었다.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세우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현을 위해 민족자주정신을 철저히 구현한 조선국민회!

이때로부터 치욕과 굴욕으로 버림받은 조선의 렬사는 민족자주정신의 도도한 흐름을 이루었으며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해방의 화불은 세기를 밝히며 불타올랐다.

조선국민회는 장차 동양에 뻗칠 구미제국주의세력과 일본제국주의세력이 패권을 다투게 될것이므로 그 기회에 그들을 물리치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실현을 위해 국내의 모든 역량과 련계를 취하시는 한편 지역마다 구역장을 두고 매년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며, 발톱까지 무장한 놈들과 무력으로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광범한 군중속에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것이다.

이 얼마나 유일하게 정당한것인가.

참으로 조선국민회의 창건-그것은 우리 나라 망국의 렬사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뼈아픈 교훈을 깊이 통찰하신 선생님께서 민족자주의 기발을 높이

드시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인 발전의 길로 돌려세우신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조선국민회창건-그것은 암흑시대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새시대를 갈라놓은 역사의 분기점이었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 새로운 일대 전진이었다.

이때로부터 조난당한 배처럼 항방없이 헤매던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조선국민회의 지도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 새로운 역사의 길을 힘있게 내디디었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의 진두에 나서시자 강산은 설레고 만민은 들끓었다. 나라 없는 설움을 안고 류량의 길에 올랐던 어제날의 저 농군도, 망국의 비운에 가슴치던 어제날의 저 독립운동자들도 봉화산을 우러러 힘차게 일떠섰다. 2천만겨레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슬기로, 힘으로 자라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복수의 장점을 버리며 달려온 로동자, 농민, 애국적지식인들은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평안도, 황해도, 경기로,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으면서 선생님의 자주정신을 심장에 안고 민족해방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강철의 투사로 자라났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이겨야겠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절절한 이 말씀을 새기며 여기 봉화산기슭에 모이고 여기서 투쟁의 길을 떠났던가!

조선민족의 힘을 강철같은 하나의 의지로 묶어세우시는 선생님의 불같은 격문들과 지시문들을 뜨거운 가슴에 품고 떠나가는 사람들, 조직으로 보내는 문건들을 검은 머리채에 감추고 길 떠난 녀인들, 민족자주정신을 자양으로 섭취하고 민족의 얼을 되찾고 희망에 넘쳐 떠난 독립운동자들...

봉화땅은 낮도 밤도 쉬임없이 투쟁의 정열을 안고, 들끓었으며 선생님의 뜨거운 숨결과 업적을 키높이 안은 조선의 역사는 자기의 년륜속에 큼직이 새겨넣었다.

조선국민회의 해발이 비쳐가는 모든곳에서 조직은 련달아 일어나고 투쟁대오의 무성한 숲들은 만리에 설레었다.

넓으나넓은 조국땅의 한점, 봉화산마루에서 타오른 해방의 횃불은 백두산목으로부터 시작하여 남해바다가에 이르기까지, 압록강변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북광야를 지나 거칠은 대륙의 종심깊이 중부중국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세찬 봉화가 되어 활활 타올랐다.

강산에 타오르는 구국의 횃불, 해방의 횃불을 바라보며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의 열망을 안고 식민지노예살이에 굶은 허리를 펴고 일떠섰으며 압제의 쇠사슬을 녹여내는 그 불길 바라보며 원수들은 전율하였다.

포악무도하고 잔악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국민회를 탄압말살하고 그 존재자체를 없애보려고 어리석게 발악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총칼의 위협도, 그 어떤 폭압의 철쇄도 밤하늘을 태우며 타래쳐오르는 불길을 끝수 없었으며 감옥도 고문도 단두대도 민족자주정신과 조선독립의 열망은 굴복시킬수 없었다.

그 어떤 모진 광풍도 대지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곳곳이 서있는 소나무를 꺾을수 없듯이 민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선국민회를 파괴할수는 없었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조선국민회는 오히려 성장하였다.

시련의 한해를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시고 출옥하신 선생님께서는 최악해지신 몸 돌보시지 않으시고 새로 무르익히신 조선혁명에 관한 위대한 구상, 혁명의 불씨를 대지우에 뿌려가시었다. 의주군 청수동, 초산군 백호산, 평양 학당골, 증강, 관전, 립강, 장백, 무송, 류하...

선생님께서 걸으시는 자옥마다에서는 조선국민회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섰고 단합된 혁명군중은 도도한 대하를 이루었다. 이 역사적인 흐름속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새로운 로선이 탄생되었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이 무산혁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무장한 원수는 무장을 가지고 때려부셔야 한다는 선생님의 역사적인 관전회의의 힘찬 호소는 조국땅우에 만주광야에 힘차게 메아리쳐갔다.

마침내 이 땅에서는 참다운 혁명투쟁의 장엄한 서막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3.1봉기를 계기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시기는 종결되고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공산주의운동의 거센 격류속으로 이끌어가시었다. 이때로부터 이땅우에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 참다운 혁명투쟁의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선을 한품에 안으신 열렬한 혁명가의 사랑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혁명의 대를 물려주시고 그이를 조선의 위대한 태양으로 받아들여주시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께서는 아버님의 높이신 뜻을 가슴에 안으시고 역사적인 화전땅에서 주체의 첫 해불을 지피우리시였으며 1932년, 안도의 하늘에 주체의 기치 높이 드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아성을 폭파하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었다.

지지도도 깊어가던 민족수난의 그 밤, 봉화산기슭의 나지막한 집에서 한자한자 애국의 더운 피로써가시던 조선독립의 원대한 구상이 오늘 이 땅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찬란히 실현되었다.

봄향기에 무르녹는 3월의 아침, 봉화산기슭에 정중히 모신 선생님의 동상앞으로 수많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군인들이 걸어간다. 수룩만리 대양과 대륙을 건너 조선을 찾아온 외국의 손님들도 경건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다.

그들은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린다. 허리굽혀 큰절을 드린다.

왜놈도 지주도 없고 인민들이 주인된 나라,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을 찾아주시고 문명부강한 조국을 세워주시고 온 누리에 조선을 빛내여주시는 은혜로움에 목매여 그들은 더욱 숭엄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렇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것처럼 열렬히 바라시고 것처럼 열렬히 그려보시던 조국땅은 우리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주체의 조국으로 지구우에 높이 솟아오르지 않았는가!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인민들은 락원의 강산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조국땅 그 어디 가나 기계바다 펼쳐지고 오곡백과 무르익는다.

선생님의 념원 꽃피여 해빛밝은 이 나라에는 배움의 창문들이 활짝 열리고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인민들은 무병장수 노래한다.

그 언제인가 해돋이를 맞는 봉화산종턱에서 수수밭을 바라보시며 조선의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하시던 말씀 실현되어 오늘에는 그 어떤 원수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무적의 혁명대오가 자라났으며 이 땅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었다.

우리는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내 조국의 모습에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던 선생님의 영상을 가슴에 새겨안는다.

외국의 수많은 벗들은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존경과 흥미를 가지고 찬양하고있으며 거기서 자기들이 나아갈바 길을 뚜렷이 찾고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혁명정신과 빛나는 혁명업적은 오늘 세계 모든 혁명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

《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을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며 세계혁명력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그렇다. 새 력사의 려명을 향하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의 반일혁명투쟁력사에 남기신 선생님의 고귀한 업적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아로새겨져있다.

정녕 선생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속에서 영생의 길을 걸으신다.

푸른 소나무의 청청한 기상을 안고 언제나 패기와 끝없는 정열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여가는 주체형의 맑은 피 끓어넘치는 우리 모두의 심장속에 선생님께서서는 언제나 살아계신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펼쳐주신 력사의 새벽길은 이땅우에 공산주의 붉은 노을을 피워올리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온 빛발아래, 당중앙의 은혜로운 향도의 해발아래 삼천리강산은 선생님의 념원담아 통일될것이며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리라.

김용부

작가들의 기량을 더욱 높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자기의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상정신세계가 높아야 하고 예술세계를 파고드는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창작적기량이 안반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었다.

작가, 예술인들의 자질을 높여야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불멸의 금자탑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활짝 꽃피여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불멸의 기치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와 정력적인 투쟁으로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불멸의 금자탑을 더욱 빛나게 고수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가장 숭고하고 보람찬 혁명임무이다.

창작가들의 자질을 높여야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인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는 이 새로운 문학예술은 자주적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힘과 고상한 품모를 밝히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될것을 지향한다.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은 그자체의 이러한 본성으로부터 창작가들에게 정치사상적수준에서나 창작적기량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문학사에 일찌기 없었던 인류문학의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적인 혁명문학인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을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주인이며 그 담당자들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과 그 요구들을 정확하게 깊이 파악하고 그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기량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훨씬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 작가들의 정치사상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직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학습을 첫자리에 놓고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고 인민의 생활을 옹계 묘사할수 없으며 고상한 사상성을 가진 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두가 다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어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로작들과 모든 교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특히 문예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함께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친필하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피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이미 생활을 통하여

그의 심오한 정치사상적내용과 위대한 감화력, 불멸의 진리성이 확증된 혁명투쟁의 참된 교과서이며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예술의 빛나는 고전적본보기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깊이 연구, 학습하고 거기에 구현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깊이있게 체득하기 위하여 언제나 힘써야 한다.

작가들의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들끓는 현실에 침투하여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작가들은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우리의 격동적인 장엄한 현실속에 들어가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며 그들과 같이 벅찬 투쟁을 체험하면서 작가수업을 착실하게 하여야 주체시대의 개화만발하는 현실을 훌륭하게 그려낼수 있다.

창작가들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기본요구로 되는 동시에 창작가들의 예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간학의 기본요구는 산 사람들과 그들의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는데 있다. 이것은 기필코 창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활을 전면적으로 체험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창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체험해야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다.

현실을 취미본위로 과장하고 기형화하는것은 사실주의와 인연이 없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은 그 내용이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할뿐아니라 그 형식도 생활에 기초하고 생활에 가깝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창작가들은 언제든지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생활을 체험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해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적요구에 맞는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좋은 종자를 제때에 똑바로 잡을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생활을 풍부하게 체험해야 한다.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은 작가들에게 좋은 종자를 잡을수 있게 해줄뿐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가공할수 있게 하여준다.

작가들은 남들이 범상하게 넘길수 있고 스쳐지날수 있는 생활속에서도 생활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줄 아는 눈과 재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예리한 작가의 재능은 오직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생활을 체험하고 수양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꽃피여날수 있다.

혁명적작가는 마땅히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새것이 싹트고 자라나는 과정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그것을 옹호하고 키우는 작업을 부단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의의 있고 절실한 종자를 골라 잡아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은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를 탐구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현실은 작가에게 작품을 창작하는데 필요한 많은 생활소재와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준다.

창작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생활소재의 축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작가가 얻어온 생활소재는 어디까지나 작품창작의 자료에 불과한것이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생활소재의 축적속에서 자기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끄집어낼수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를 탐구하게 되는것이다.

우리의 일부 문학작품들이 무미건조하고 따분한것도 결국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로 될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활이 없는데 기인하는것이다. 이것은 곧 예술적형상의 바탕이 될수 있는 새로운 인간과 생활, 다시말하여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를 탐구하고 축적하는 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로 될수 있는 생활소재를 축적하는 사업을 부단히 진행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부단히 체험하는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 근본문제인 작품의 종자를 탐구할수 있게 하며 문학적인 이야기거리들을 제때에 찾아낼수 있게 할뿐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성격창조와 다양한 인간관계에 의한 얹음새발

전, 감정조직 등 모든 형상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 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에서는 창작가들은 당정책을 잘 알고 일반지식에 대한 넓은 식견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과학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문 전문가들이 무색해지리만큼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당에서 가르쳐준바와 같이 작가는 당정책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자기 전공분야인 문학예술에 대한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들의 특성, 조선문화어의 우월성과 고유한 특성을 잘 알아야 하며 문예작품의 고유한 문법적요구를 깊이 체득해야 한다.

묘사방식, 형상수단, 표현수법에서의 특성을 잘 살리는 문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따라서 모든 창작가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들의 특성과 기본요구에 대한 미학리론적파악을 가져야 하며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고유한 우리 말 어휘와 전통적인 표현수법을 더 많이 섭취하고 문장구조와 문체구사에서 민족적특성을 더욱 풍부하게 구현하며 혁명적문풍을 세우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작가는 건문이 넓고 박식해야 한다.

그래야 창작에서 은을 낸다. 그것은 문학예술이 무한히 다양하고 개성적인 인간과 그들의 복잡하고 풍부한 생활을 묘사대상으로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작가는 어디까지나 개성적인 인간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을 그리기 위하여 애쓰며 모대긴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안된다.

작품에는 항상 창작가가 아는것만큼 또한 준비된 것만큼 반영되기 마련이다. 작가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새롭고 창조적인 탐구가 있을 때 그가 쓴 작품은 그만큼 사상예술적가치가 높아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자기의 전공분야의 지식에 정통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건문과 다방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마디의 단어를 끌라도, 한줄의 글을 써도 정말 씨가 들고 뜻이 깊게 쓸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듣고 많이 읽어야 한다는것은 결국 작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작가는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줄곧 탐구와 사색, 배움과 창조적환상으로 충만되어있어야 하며 부지런히 써야 한다.

이러한 작가적수양과 창조적축적과정이 바로 작가로 되게 하는 기본요인인 예술적기량을 높이는 과정으로 된다.

탐과 피타는 노력, 지혜를 짜내지 않고는 결국 작가적자질을 높일수 없다.

작가들은 예술적형상의 사유를 발전시키고 세련시키는 작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예술적형상의 가치는 결코 백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다. 작가는 바로 백에서 하나를 고를줄 알아야 하며 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그릴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을 놓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나의 단어와 한줄의 문장을 가지고 웅근 하나의 세계를 비쳐보이며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한 인간의 성격과 운명을 보여줄수 있는 문필기교는 끊임없는 창작적사색과 피나는 탐구를 거쳐서만 얻어지는 형상적사유의 고귀한 산물이며 결실이다.

작가의 형상적사유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쉬임없는 작가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작가는 자기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에 대하여 형상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받아들여야 한다.

작가의 기쁨은 예술적형상의 사유로 충분히 파악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보는데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 새로운 인간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이야말로 작가가 가지고있는 그 모든 작가적자질의 총화로 되는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그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 시대의 높은 리상에 비추어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예술적형상의 사유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하며 탐구와 혁신의 길을 꾸준히 밟아나가야 한다.

작가의 기량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문필능력을 높이는것이다. 특히 소설가들은 묘사수준을 높이는것이며 시인들은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운률을 강화할수 있도록 표현능력을 높이는것이다.

작가들은 항상 생활에서 우러나오고 생활과 밀착된 묘사의 기교를 높은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인내성 있게 세련시켜나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아름답고 풍부한 고유말어휘를 많이 소유하는것, 이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로 된다.

어휘가 빈곤해가지고는 생활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묘사할수 없으며 따라서 작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는 혁명적문풍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체득하고 문화어의 풍부한 보물고를 될수록 더많이 소유하기 위한 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어휘수집사업과 전통적인 표현수법, 문장조직과 문체구사에서 개성을 풍만하게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상적으로 꾸준히하게 진행해야만 언어의 명수로 될수 있다.

작가들의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작가수첩을 잘 리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수첩은 창작적사색과 탐구를 쉬임없이 벌리고있는 작가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창작생활의 한 부분이며 수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창작가들은 작가수첩을 몸에서 떼놓지 말고 다녀야 하며 그 리용률을 고도로 높여야 한다.

작가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이는데서 기량발표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에서는 기량발표회에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빠짐없이 참가하고 그 정형을 철저히 총화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창작가들의 기량문제는 행정실무적으로나 날림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작가자신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조직의 강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작가들의 기량발표회는 소설문학과 시문학, 아동문학 등 형태상특성을 고려하여 작품합평회,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할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당에서 마련하여준 기량발표회에 정상적으로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기의 예술적기량을 부단히 검열받아야 할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높은 요구와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수준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기 위한다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충성심을 떠나서 작가, 예술인들의 기량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바치는 작가들의 충성의 열도가 높고 크면 클수록 그것은 그만큼 작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바치는 충실성에 기초한 높은 정치사상수준과 창작적기량을 가진 작가들만이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조해낼수 있다.

작가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은 어디까지나 혁명파업수행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진행되며 따라서 조직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나가자면 작가들의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해야만 자질향상사업도 잘되어나가는것이다.

작가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예술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작가들이 공산주의적 새인간학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당에서 내놓은 이 방침은 우리 작가들에 대한 높은 정치적신임이며 크나큰 사랑과 배려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에 실력을 안반침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에 높은 창작적기량을 따라세워 훌륭한 작가적자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작품창작으로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리봉진

산촌의 아침

로정법

풍년분배장은 흥겨웠다.

여섯발짜리 상모가 춤을 추는가 하면 새납소리, 팽파리소리에 농장원들이 춤을 덩실덩실 추며 지화자 좋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멎들어지게 어울려 퍼진다. 로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풍년날가리가 산처럼 높이 쌓인 관리위원회 마당이 좁다하게 빙글빙글 돌아간다. 아이들도 까치걸음을 하며 덩달아 기뻐 어쩔 줄 몰라한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그저 웃음꽃, 웃음꽃이다.

중키에 몸이 단단하게 생긴 농장의 기사장 상호는 관리위원회문열에서 농장원들의 그런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겨있었다.

(정말 4년 사이에 높이도 날아올랐거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농사를 착실히 지어놓고 저렇게 즐기니 얼마나 좋은가.)

그때 성필반장이 기사장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는 키가 꺾두룩하고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아니, 기사장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합니까? 춤이나 한판 추질 않고…》

《하하… 좋지요.》

상호는 성필을 보며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고는

《내가 소조원으로 이곳 농장에 파견되어와서 1대잡종 새 종자로 농사짓던 때 일이 떠올라 그렇니다. 반장동무는 그때 일이 생각납니까?》하고 물었다.

성필은 상호를 보며 껄껄 웃었다.

《생각나구말구요. 아무렴 그때 일을 잊겠습니까?》

두사람은 춤판을 바라보며 4년전 새 품종 강냉이 농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저마끔 생각에 잠겨들었다.

× ×

산이 연줄연줄 어깨를 결고 뻗어간 산동성이를 질러 한 청년이 달려내려오고있었다. 까만 모직외투에 가죽모자를 쓰고 등에는 무거워보이는 배낭을 진 청년이었다.

그의 앞 저아래, 마을인지 골짜기인지 분간 못할 십연속으로는 발구 한채가 떨어져내리고있었다. 그 옆에서는 보위색의 솜옷을 입고 개털모자를 쓴 사람이 발구의 힘에 끌려가듯 허우적거리며 따라가고있었다. 그뒤에는 개 한마리가 경경 짖으며 내달리었다.

청년은 발구가 얼마쯤 가까와지자 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웨쳤다.

《아바이, 같이 갑시다.》

그 소리에 발구가 지치며 멎고 50대의 중늙은이가 돌아다보았다.

순간 성에 불린 짙은 눈섭밑에 감때사나와보이는 두눈이 반가움으로 빛났다.

희경로인이었다.

《소조원동무로구만…》

몸의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를 덮칠듯 미끄러운 눈길을 달려내려오는 청년을 향해 웃으며 로인은 한발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는 날렵한 동작으로 허우적거리는 청년의 한손을 탁 잡아쥐었다. 순간 두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바퀴 핑그르 돌며 넘어질듯 비칠거렸다.

《하하… 으허허…》

두사람은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강습이 끝났는가?》

《어제 끝났습니다.》

《걸어 떠났나?》

《령길이 막혔습니다.》

《웁거니, 지난밤 눈에 칼봉력이 막혔겠군. 그러면 하루이틀 더 기다려 뻘스를 타야지. 게서 예가 어디라구…》

로인은 못마땅한듯 혀를 끝끝 찼다.

청년의 나이는 스물일여덟쯤 되어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에 깃든 침착함과 꺾 내성적이리란 인상을 주는 조용한 눈을 보면 그의 나이를 서른으로도 짚어볼수 있었다. 발구에 눈을 주던 청년은 환성을 올렸다. 거기에는 중소만한 메돼지가 실려있었다.

《야, 큰놈이군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술한 강냉이를 못쓰게 만들더니 오늘에야 아바이한테 걸려들었군요. 참 큰일을 했습니다.》

《아무렴. 내 손에서야 못빠져나가지.》

로인은 입이 벅글싸해져 호기를 부리며 대답을 했다.

그러나 청년은 로인의 말에 어딘가 모르게 맥이 빠져있는것을 감촉했다.

《오늘 모두 쉽니까?》

상호가 웃으며 물었다.

《쉬다니, 모두 일들을 하지.》

《일어요? 그럼 아바이는?…》

《부식토를 실러 가라는것을 가다가말고 여기로 왔었네. 이놈이 꼭 걸려들었을것 같아서말일세.》

로인은 상호의 얼굴을 슬쩍 훑쳐보며 중얼거렸다.
《그거 잘못했군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말이라도 하고 올라오셔야지. 지금쯤 반장
동무랑 얼마나 찾겠습니까.》

상호는 듣기 좋게 타일렀다.

《오늘은 무슨 일들을 합니까?》

《부식토를 나르고있네. 한켠에선 영양단지를 찍
구...》

로인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이어 두사람은 산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깎술,
참나무술이 휘휘 재빨리 지나쳤다. 상호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전국농업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더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
서 부글부글 끓고있지 않는가. 더구나 올봄부터는
새로운 다수확품종인 강냉이1대잡종을 백프로 받
아들여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할일이 오죽이
나 많은가. 그런데 이 령감은...

목과 앞다리 사이에 봉대를 잔뜩 치맨 개 한마리
가 발구위를 따라 달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
정 울었다.

《좀 세우게. 저놈이 멋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한대
받기뵈다네. 부상당한셈이지.》

로인은 개를 조심히 안아다 발구우에 앉혔다.

《배낭을 좀 밀어놓으십시오.》

《이게 뭐가?》

《강냉이종잡니다. 견본으로 얻어옵니다.》

《이게 그렇게 배게 심는다는 종잡니까?》

《웁습니다. 1대잡종 새 종잡니다. 올해 처음으로
심게 되는것인데 강냉이농사에서 큰 혁명으로 될겁
니다. 이번 강습도 그때문에 했습니다.》

산골의 짧은 해가 안개봉을 넘어 사라지자 군청
색의 산그림자가 눈덮인 골짜기로 찾아들기 시작하
였다. 일을 켜 사람들이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내
려가고있었다. 작업반장 성필이와 회경로인의 딸
설화가 소를 끌고 맞은켠 산비탈을 내려오고있었다.
키가 크고 길쭉한 얼굴에 광대뼈가 두드러져나온
성필은 쉼쉼하게 쉰 목소리로 《와, 와》하고 소를
세웠다. 그리고나서 이쪽으로 다가오더니 로인을
사납게 흘겨본 다음 상호의 손목을 덩석 잡아흔들
었다.

《령길에 막혀 못오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 긴 목을 기웃하고 발구우를 내려다보며

《이놈이 눈이 껴졌던 모양이군.》하고 로인을 향
해 곱지 않게 웃고나서

《되기는 마침 났수다. 소조원동무가 오는 날 잡
았으니... 비판은 뵈다 받기루 하고 어서 내려가시
우.》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옆에 와 서있는 설화에게 시원시원한
음성으로 지시를 주었다. 반원들이 돌아가기전에
고기를 나눠가도록 하라고...

아버지의 자유주의행동때문에 소조원에게 반갑
다는 인사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있던 설화는 반
장이 하는 말에 가슴앞으로 드리워져있던 흰 양털
목도리를 목뒤로 책 넘기며 내쏘았다.

《몰라요.》

하고는 상호의 배낭을 이고 내려가버렸다.

《고기구워구 먹은 살 내리게 되었수다. 오늘밤
들어가면 확실히다. 저리 비판준비나 단단히 하
구 가소.》

성필은 상호를 바라보며 꺾꺾거렸다.

《흥, 딸년한테 비판을 받아?》

하면서도 회경령감의 얼굴에는 걱정스런 빛이 려
연하였다. 상호는 웃을수가 없었다. 너무도 마음편
한 소리로 통인지 진담인지를 주고받는 두사람의
얼굴이 가슴에 묵직하게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자, 그럼 난 먼저 내려가네. 느지막해서 소조원
동무랑 넘어오라구.》

회경은 이러고나서 얼마쯤 내려가다가 무슨 생각
을 했는지 성필을 불렀다.

뭐라고 수군수군하는 로인에게

《원, 별걱정 다합니다. 20공수고 30공수고간에
좌우간 령감님한테 손해보지 않게 해줄테니 어서
가서 내포 손질이나 잘해놓수다.》하고 말하는 성
필의 목소리가 상호의 귀에 걸렸다.

기분이 좋아진 로인이 병글거리는데 성필이가 어
서 내려가자고 상호를 독촉하였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좀 들려볼데가 있습니다.》

회경로인과 성필이가 내려간 다음 상호는 무거운
생각에 잠겨 혼자 천천히 걸었다.

(회경로인의 메돼지잡이, 그것은 리기주의로부터
나온 극단한 자유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성
필반장은 어떻게 로인에게 20공수고 30공수고간에
쉽 쉽지 않게 해주겠다고 쉽게 말할수 있을까. 로인
의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타일러줄대신에...
그리고 설화는 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내려갔을까.
사람들이 있는곳이어서 그랬을까?...)

새 종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농업
과학기술지식선전실》로 모여들었다.

상호는 그들에게 새 종자에 대한 설명을 했다.

새 종자는 가물과 습기, 온도와 기후조건이 심하
게 변해도 잘 견디며 키가 작아 비바람의 피해를
덜 받는데 대하여, 그리고 키가 작은것은 강냉이농

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더우기 새 종자가 은을 내자면 강냉이 영양단지를 부스러지지 않게 정성껏 잘 만들어 모를 싣고 튼튼한것으로 내고 제정된 포기수를 어김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설화네포레 청년들속에서는 벌써부터 구미가 통하는지 욱욕 버르는 잡도리였다. 아주머니들은 새 종자를 놓고 웃음꽃들을 피우고있었다.

문턱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회경로인이 건기침을 뚝뚝 하며 일어섰다.

《그렇게 배게 심으면 잎이 겹싸여서 거 뭐라던가 광합성작용이 제대로 되겠나?》

《령감이 문자까지 쓰누만요.》

상녀가 이죽거렸다.

《왜 난 그런 말 못하나. 그래두 내가 로친네보다 기술학습에야 더 열성분자지.》

회경로인의 질문은 일리가 있었다. 또 모두가 물어보고싶던 말이기도 하였다.

《아바이가 옳게 질문하셨습니다.》

상호는 회경로인에게 머리를 끄덕여보이고나서 1대잡종강냉이의 싹형태는 대개 늘어진형이 아니라 반곧추선형이여서 잎이 겹싸이지 않는다고 대답해주었다. 로인은 아무래도 모를 일이라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성필이쪽을 바라보았다.

《해봅시다. 당에서 하라는건데 해야 하지 않겠소.령감님은 아무때 봐야 이리쿵저리쿵 말씀이 많다니 까요.》

어쩐지 너무 큰소리치는것 같은 성필의 말이 상호의 귀에 걸렸다. 상호는 얼핏 성필이에게 눈길을 주었다.

《흥, 반장이라구 큰소리 잘 친다.》

회경로인은 문을 확 열고 나가버렸다. 그로 하여 방안에는 잠시나마 어설픈 공기가 떠돌았다. 그것은 앞으로의 투쟁을 시사해주는 어두운 그림자였다.

안개봉을 넘어온 이동영사대의 선전차가 굽이진 령길을 구울듯 감돌아내리고있었다. 새 영화를 기다리는 소박한 산골사람들의 마음에 키질하듯 잣게 울리는 경적소리를 타고 산촌의 저녁이 고요히 깃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무슨 영화를 할라노.》

상녀가 산아래로 사라지는 차를 보며 궁금해하였다. 트랙포트가 올라갈 길을 아직 내지 못한 송이골의 이틀같이 발뚱기에 손으로 모퉁이기를 끝낸 그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작업을 총화해줄 분조장을 기다리고있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노.》

상녀는 꼴짜기아래를 목이 빠져라 내려다보며 푸념하였다. 전쟁시기 남편을 잃고 오늘 이때까지 딸

하나를 데리고 시아버지를 섬겨오는 상녀였다. 한 주일에 한두번씩은 꼭꼭 오는 영화였지만 그때마다 상녀는 매번 운신하기 힘들어하는 고향의 로인을 달구지에 앉혀가지고 나오곤하였다. 오늘도 일찍 내려가야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나올텐데 이렇게 늦는다고 상녀는 혀를 끝끝 차고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회경로인은 썸뽕줄게 앉아서 혼자해보는 주먹구구에 흥이 난 모양이였다.

《오늘은 서든 보람이 있구만. 다섯이 꼭같이 나눈다해도 두자루 푼수는 되는구만.》

남은 속이 달아 앉아있는데 공수타산만 하고있는 그가 밭풀사나올던지 상녀가 툭 내쏘았다.

《꼭같이 나누지 않으면 령감 뒀이 더 차례질것 같소?》

《치마두른 백성하구야 같을가. 사내대장부가... 아무래도 남자로력이야 남자로력이지.》

옆에서 잠자코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대장부란 소리가 우스웠던지 까르르 웃었다.

《흥, 쉬운 일만 골라하면서 큰소리는... 안될거외다. 두자루는커녕 깎지 않으면 다행인줄 아시우.》

그 소리에 속이 켜기는지 회경로인은 슬그머니 발을 돌려보았다. 이때에야 작업반장 성필이가 분조장을 앞세우고 뛰어올라왔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뼘기를 다 죽였수다레.》

성필은 청하지도 않는 담배를 꺼내 회경로인에게 권하고나서 좋은 영화가 왔다는데 제격 평가해주고 내려가자고 분조장을 독촉하였다. 분조장이 자를 꺼내들고 밭으로 들어갔다. 포기사이 거리를 몇군데 재보고난 분조장이

《아니, 가운데는 왜 이렇소?》 하고나서 반장을 불렀다. 성필은 분조장이 찾는대로 밭으로 들어가 자를 받아들고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를 돌려주고 나왔다. 반장의 뒤를 따라나온 분조장이 회경로인에게

《가녁에만 제대로 심고 가운데는 드물게 심어도 된답디까?》

하며 쓰겁게 입을 다쳤다. 분조장은 담배를 꺼내 들고 탁 소리가 나게 라이타불을 켜기며 돌아섰다. 그 소리에 기가 눌리운듯 눈치를 보던 아낙네들이 목을 움츠렸다.

《손으로 하다니니 그렇게 됐을거요. 어떻게 하나 이 폐기를 끝내라고 내몰다싶이한 내가 잘못이요. 어찌겠소. 분조장동무, 내가 책임집시다.》

성필이가 타협조로 나왔다.

《자, 늦었는데 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려들가우.》

반장의 말에 회경로인이 로력일수첩을 꺼내 들고 주춤거렸다. 날은 골짜기로부터 급작스레 어두워왔다. 상호가 전지불을 비치며 올라오고있었다.

《좋은 영화가 왔다는데 안내려갑니까?》

상호의 말에 상녀가 맞가지 않은 투로 대답하였다.

《평가를 받아야 내려가지요.》

상호는 그들의 얼굴에서 온화하지 못한 느낌을 받으며 강냉이포기를 밟을세라 조심히 밭으로 들어갔다. 모퉁기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포기수도 그렇거니와 강냉이모가운데는 별스레 어려보이는것도 있었다. 모가 모자라면 모판에 가서 날라다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실하고 튼튼히 자란놈으로만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귀등으로 들은 모양이었다. 모를 낼 때부터 차이가 있게 되면 밭에 충하가 지는것을 어찌지 못할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밭에 솟강냉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 새종자를 받아들인 보람이 없어지게 될것이었다.

상호는 손이 가는데로 약해보이는 강냉이 한포기를 조심히 파헤쳤다. 꺼내들고보니 단지가 절반쯤 부스러져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호는 쥐고있던 강냉이포기를 옆에 와 서있는 성필에게 내밀며 말하였다.

《그래서 지금껏 싫은 소리를 하던중입니다.》

성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상호는 기분이 더욱 좋지 않았다.

《모를 다시 내야겠습니까.》

성필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며 서있었다.

이때 밭머리에서 처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설화네들이 같이 내려가자고 들린 모양이었다.

《어서들 내려가시지요.》

《너희들이나 가거라.》

어느 녀인인가 뻔뻔 말했다.

《아이참,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설화가 다가오며 물었다.

《네 아버지때문에 그러잖니. 하긴 내 불찰이지. 밭가운데는 영양단지가 깨진것도 모가 어린것도 상관없이 드문드문 세웠다.》

상녀가 마지막 말을 길게 뿜으며 한숨 쉬듯 말했다. 영문을 알아차린 설화가 억이 막히는지 말을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호미를 찾아들고 밭으로 뛰어들어갔다. 상호는 그렇게 하는 설화가 고마웠다. 분한 생각같아서는 제먼저 호미를 들고들어가 몽땅 와락와락 파헤치고 다시 심고싶었던 상호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하여 가뜩이나 어쩔줄 몰라하는 사람들과 너무 모진 행동같아 꼭 참아오던 상호였다.

《웁다, 밤이 열둘이래도 해놓을건 해놓아야지.》

설화의 행동을 눈여겨보던 상녀가 치마자락을 허리춤에 찌르며 일어섰다.

어쩔줄 모르고 서있던 녀인들이 물을 길러 가는 지 물통을 떨어딩거리며 골짜기를 찾아 내려가고있었다. 회경령감은 으스스한 어둠속에서 눈에 띄우지 않는게 제일이라는듯 쫘팍않고 서있었다.

《아버지, 두엄 가져오세요.》

그 소리에 흠칫 놀란 로인이 삼태기를 들었다. 성필은 담배를 찾아들고 신경질적으로 성냥을 켜고있었다. 상호는 어둡지 않게 우등불이라도 피워주려고 마른나무를 찾아 내려갔다. 그런 상호앞을 막아서며 성필이가 울상이 되어 웅했다.

《그래 이 밤에 어찌자는겁니까.》

《조금전에두 말했지만 다시 심어야지요.》

상호는 조용히 말을 받았다.

《그런 로력이면 새로 부대기를 일귀 몇포기 더 심는게 낫지 않을까요.》

《한두포기가 문제 아닙니다. 새 품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관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필은 한참동안 말없이 서있다가 터덜터덜 걸어 내려갔다. 상호는 그런 성필을 보기가 괴로웠다. 이렇게 하는것이 옳은가. 정말 그에게 본때를 보이느라고 이러는것이나 아닌가.

노루풀, 고사리풀에서 구경 내려오는 아이들이 전지불들을 반짝거리며 마을 앞마당으로 모여들고있었다. 그것을 보느라니 오늘따라 저물어지는 머느리를 기다리며 운신 못하는 로인이 바깥동정에 귀를 밝히고있을것이라는 생각이 상호의 가슴을 쳤다. 얼마쯤 내려가던 성필이가 다시 올라왔다.

《상녀로친만이라도 먼저 내려보내는게 좋지 않을까?》

성필은 이 말을 힘겹게 하고나서 돌아섰다. 그 말은 상호의 가슴을 쳤다.

《어서 말썽하십시오. 모두들 내려가자구...》

상호의 말에 성필은 쓸쓸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이런 때는 내 말이 통하질 않지요. 모두 소조원 동무의 기색만 살피고있겠으니깐요.》

성필은 이려고나서 내려가버렸다. 그 말은 몹시 아팠다. 내가 그런 인간으로 되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저 사람들을 자기 지휘관의 말보다 소조원의 눈치만 살피며 일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는데. 일군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로 하여금 3대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불려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그처럼 간곡하게 교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벌써 잊었는데. 그이께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가슴아픈

자책에 상호는 눈을 꼭 감았다. 둘의 행동을 안타깝게 지켜보고있던 설화가 울먹울먹한 소리로 사람들을 재촉하고있었다.

《어서 내려들가자구요. 어서요.》

설화의 손에 끌려 사람들이 발에서 나오고있었다. 상너는 맨나중에 설화에게 떠밀리워나오며 《먼저 하자고 한건 누군데.》 하고 푸념비슷이 말하는데 그 소리도 떨리고있었다.

(고맙소, 설화동무!)

상호는 속으로 이렇게 외우며 도구를 주섬주섬 건어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을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조용해진 발머리에 상호는 홀로 앉아있었다. 회경로인보다 성필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어찌보면 모가 없이 두리뭉실한 그의 태도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성필은 아직도 새 종자에 대한 신심이 없이 동요하고있었다. 반장의 이런 립장을 회경로인이라고 모를리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고보면 그런 반장에게 등을 대고 회경로인은 또 자기대로 꺼리낌없이 리기적타산만 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도와주었던가. 신심이 부족하면 신심을 주어야 할것이 아니였던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상호는 몸부림을 치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얼마나 심려하실가. 농촌에 파견된 한 3대혁명소조원이 일을 쓰게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면...

마을에서는 영화가 시작되었는지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있었으나 상호는 마을로 발길을 뻗수 없었다.

그는 발으로 들어가 한포기 두포기 심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마에서 다음에는 등에서 땀이 흘렀다. 그러나 상호는 힘든줄을 몰랐다. 그가 한창 심어나가고있을 때 《게 누구예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설화였다. 그뒤에는 몇명의 처녀들이 서있었다.

《나요.》

설화네들은 상호임을 알아차리자 달려왔다.

《아이, 혼자서...》

설화도 이렇게 묻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상호도 그들이 올라온 까닭을 묻지 않았다. 구래여 묻지 않아도 설화네들의 마음을 알수 있었다.

그들은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그렇게 한시간쯤 지났을가. 잠시 허리를 펴려고 일어서던 설화가 놀라 부르짖었다.

《소조원동무, 저기...》

상호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바라보니 발머리에 한사람이 우뚝 서있었다.

《누구요?》

상호의 물음에 그 사람은 가까이로 왔다. 성필반장이였다. 그는 영화를 절반남짓 보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올라온것이였다.

《반장동무는 왜 올라왔습니까?》

상호는 이렇게 말을 하였으나 마음은 여간만 누긋하지 않았다. 그가 고마왔고 미더웠다. 이 밤 여기로 올라온 성필의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닐것이기때문이었다. 과연 그는 숨을 길게 내뿜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소조원동무,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을 쓰게 못해서 소조원동무까지 이렇게 고생하는군요.》

여간만 미안해하지 않는 성필을 보며 상호는 밝게 웃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꼭 그럴거예요.》

반장대신 잠자코 있던 설화가 한마디 했다.

상호와 성필이, 처녀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산촌의 밤을 흔들며 울려 퍼졌다.

세벌김을 매는차로 덧비료를 낸 밭에 밤을 타서 서너차례 소나기가 지나가자 비료독이 오른 강녕이들이 우줄거리며 자라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작황은 지난해에 비길바가 아니였다.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모을기기를 시작하였고 또 그만큼 앞당겨 끝났었다. 애순 보람이 있어 5월중순경에 들이닥친 강서리도 용케 이겨내었다. 송이풀 발뺨기가 그런대로 좀 신통치 않아보였지만 이제라도 영양관리를 잘한다면 문제없을것이였다.

《이거 멋있는데.》

강녕이밭을 보는 사람마다 혀를 꼴꼴 찼다. 강녕이밭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면서 새벽잠을 잊고 남몰래 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풀 한 포기라도 뽑아주는 사람, 그저 흐뭇해서 발둘레를 빙빙 도는 사람, 상호는 새벽마다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밤을 꼬박 밝히고도 힘든줄을 몰랐다.

성필이와 회경로인도 매일처럼 밭으로 나왔다. 이들만은 흐뭇한 심정으로 나오는것이 아니였다.

상호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느껴보기때문이었다. 오늘아침도 이런 성필이와 만났다. 강녕이밭을 우석우석 헤치고 나오느라 성필의 바지는 후줄근히 젖어있었고 신은 흠뻑 젖었다. 거울진 손에는 닳치는대로 뽑아진 김이 있었다.

《일찍 나왔습니다. 반장동무.》

상호의 인사에 성필은 얼굴을 활짝 펴지 못하고 웃었다.

《밤새 김이 또 성했습니다.》

그의 말은 맥이 없었고 어깨는 처져있었다. 상호는 성필의 그 모양이 결코 이제 네벌김을 시작해야 할 발에성한 김때문이 아니란것을 알고있었다. 강냉이는 커갈수록 사람 들어설 자리 없이 뻣뻣하게 자라올랐다. 솟강냉이나 많이 생기지 않겠는지, 바로 그것으로 하여 성필이도 회경령감도 새벽잠을 있고 나오는것이였다.

《김은 매면 되겠지요. 김보다 반장동무의 얼굴색부터 고쳐야 하겠습니까.》

상호는 풀죽은 성필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타이르듯 말했다. 이전날의 성필의 얼굴은 이렇지 않았다. 상호는 지금도 골짜기에 안개 자욱히 서리고 나무잎에 돋는 이슬소리마저 자작자작 들리던 고요하고 깨끗한 어느 봄날의 이른새벽에 산밑에서 만났던 성필의 얼굴을 잊지 않고있었다. 벌써 산을 한고개 돌아내려오는지 밤사이에 땀이 손을 내민 보기에도 함함한 두릅나물을 한광주리 따들고서 시원히 웃고있던 성필의 모습이였다.

《반원들이 보는데 지휘관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야 되겠습니까?》

심중을 꿰뚫어보고 하는 상호의 말에 성필은 더는 어쩔수 없는듯 허허 웃었다.

《처음 하는 일일수록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휘관의 립장이 확고해야지요.》

상호는 부드럽게 타이르고나서 그와 헤어져 걷기 시작하였다. 저 앞에서 염소를 끌고가는 회경로인이 보였다. 뒤에서 따라가던 염소가 길앞에 돌아난 풀을 뜯어보겠다고 발을 버리며 대가리를 숙였다. 그러자 로인은 사납게 끈을 탁 잡아챘다. 염소는 매매거리며 덜레덜레 끌려가고있었다. 그것을 보고있노라니 지금 저 로인의 머리속에 번져지고있는 생각도 알려오는것이여서 상호는 웃었다.

얼마쯤 걸어가던 회경로인이 돌아섰다.

상호는 회경로인을 향해 가며 인사를 하였다.

《일찍 나왔네그러.》

인사를 받고난 로인은 한시바삐 자리를 피하고싶은지 상호가 쥐고있는 책을 보며

《어서 공불 하게. 난 염소를 매자고 나왔네.》 하며 상호의 옆을 지나쳐 가려 하였다.

상호는 웃으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왜 그런지 오늘아침엔 기어이 로인에게 말을 시키고싶었다.

《마음이 안놓이시는 모양이군요.》

《글쎄...》

《염소를 풀판에 가져다매십시오.》

《이렇게 끌고다니며 맥이지.》

《허허, 아바이두...》

상호는 그에게 길을 내주고나서 염소를 쳐몰아 끌고가는 로인의 뒤모양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발을 한바퀴 돌아 하숙하고있는 집으로 향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였다. 염소를 끌고나가던 회경로인이 강냉이밭속을 헤치며 나오는 성필을 만났다. 그의 손에는 강냉이가 한포기 들려있었다. 회경로인을 발견하고 성필은 다가오며 손에 든것을 내밀었다.

《아바이, 이게 솟강냉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세.》

회경로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옳군, 이렇게 많던가?》

그의 말소리는 떨렸다.

《드문합니다. 송이골밭때기가 더합니다.》

《그래?》

로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운데가 더하겠지? 바람이 들지 못할테니까...》

《아니,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군.》

그리고는 맥없이 돌아섰다. 그가 그냥 들고가는 강냉이포기를 보자 성필은 황급히 따라가며 소리쳤다.

《그걸 이리주.》

《왜?》

《들고다니겠소? 사람들이 보는데...》

《흥, 그게 겁나는가?》

회경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쥐고 가버렸다. 달려가 빼앗지도 못할 노릇이라 성필은 그런 로인을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하긴 아무래도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상 겁낼것이 무엇인가.

이날아침 상호 역시 발으로 돌아다니며 그런 포기를 가려내고있었다. 그런 포기의 밀을 파헤쳐보면 영낙없이 그 포기밀에는 여느것보다 밀거름도 적고 뿌리가 약했다. 필경 단지를 낼 때 부스러진것을 그냥 냈거나 그 단지가 말그대로 영양단지가 아니라 흙단지일것이였다. 경험은 대개 이런 포기가 영양부족에서 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포기를 골라가며 덧거름을 꼭 주고 개꼬리 뽑아주기와 꽃가루 묻히기를 잘한다면 능히 추켜세울수 있었다. 김을 매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포기를 솟강냉이로 잘못보고 뽑아던질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미치자 상호는 자신을 후회하였다. 왜 미리미리 이런 사업을 성필이와 짜고들지 못했던가 하는 자책감에서였다. 일꾼들이 제때에 일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할 자신의 사업에서 또다시 빈구석을 느끼자 상호는 마음이 무거

왔다. 그러니 지금 성필이 자신이 이런 강냉이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있을지도 모르는것이였다. 아직도 이런 포기가 배게 심어서 생기는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기어이 살려내야 하였다. 개꼬리가 나올 때도 멀지 않았는데 빨리 설화네들을 발동하여 사로청원들을 불러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을로 내려왔다.

상호가 마을에 들어서며 보니 한패의 사람들이 농기구창고앞에서 웅성거리는데 그앞에서 회경로인이 강냉이포기 쥔 손을 쳐들고 무엇이라고 말하고있었다. 회경로인이 속한 2분조원들이였다.

상호는 그들에게로 걸어가자
《무슨 일입니까? 아바이가 연설을 다 하구.》하고 물었다.

그러자 상너가 한발 나서며 툄툴거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언제는 더 심으래 오늘은 또...》

《예?》
상호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회경로인이 상호옆으로 오며 성난 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이걸 보게. 숫강냉이네.》
《숫강냉이라구요?》
상호는 강냉이를 받아들고 보며 물었다.
《이걸 누가 뽑았습니까? 숫강냉이라고, 아바입니까?》

상호의 찌르는듯한 말에 회경로인은 좀 숙어드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뽑기는 반장이 했네만...》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반장을 허수이 보지 말게. 산골농사에서 빼가 굳은 사람일세. 오죽하면 그 사람이 이런걸 뽑아들고 다니겠나.》

상호는 모든 사연을 알수가 있었다. 자기가 한발 늦었다는 느낌보다 여직껏 자신이 반장과의 사업에서 빈구석이 많았다는것을 아프지만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로 하여금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것처럼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또다시 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작업반을 이끌고나가는 성필이보다 먼저 띄운다고, 눈에 거슬린다고 회경로인에게 더 머리를 써오던 자신이었다. 그런데 일은 결국 터지고야말았다. 성필은 벌써 일을 저질러놓은것이였다.

상호는 분조원들에게 이것은 영양이 부족해서 온 것이며 숫강냉이처럼 보인것이니 절대로 밭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르고 반장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3분조로 가는걸 봤네.》

상너가 대답했다.

《그래요?》

상호는 더 말을 앓고 3분조로 넘어가는 지름길로 달려갔다. 속에서 불이 일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단말인가.

상호의 머리에는 송이골의 이틀같이 밤빼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영화를 보다말고 올라와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하던 말이 그럼 진심이 아니었단말인가. 밤새껏 강냉이를 고쳐 심으며 반장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했던 자신이 후회되였다. 한편 경험주의란 정말 지독한것이란 생각이 새삼스레 들면서 주먹이 쥐여졌다.

상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얼마쯤 달려갔을 때 저앞에서 걸어가는 반장이 보였다.

《반장동무!》

상호는 성필을 격한 소리로 불렀다. 성필은 걸음을 우뚝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상호가 다가오자 놀란듯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상호는 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입을 열었다.

《반장동무! 내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야 성필은 기미를 알아챈 모양이였다.

《말씀하십시오.》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태도였다.

《작업지시를 그렇게 변동시키면 어찌자는겁니까?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숫강냉이를 그냥 세워두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롭니다.》

《글쎄요. 그랬으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성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신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여보이는 법입니다. 오늘은 비록 저런 몇몇 포기가 그렇게 되여보였다면 래일은 또 다른 포기가 숫강냉이로 보일것입니다.》

상호의 말은 낮았으나 날카로웠다.

《한포기라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속이 탄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체농법을 관철해가는 농업전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반장동무가 이러다나니 그밑에서 회경로인이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회경로인이 분조원들앞에서 숫강냉이라고 연설을 하고있단말입니다.》

그 말에는 성필이도 흠칫 놀라는 기색이였다.

《오늘은 분조원들앞에서 연설을 하지만 래일은 농장밭에 손을 댈것입니다. 반장동무,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반장동무 한사람에게 한한 일이라고 불

수 있습니까. 반장동무가 그러면 온 반이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상호는 성필을 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반장동무가 그렇게 행동하는것이 진정 가슴아프단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앞장서 덜어드려야 할 지휘관이 제자리를 못지키고있는것이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성필은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러면 작업지시를 다시 주지요. 숫강냉이를 뽑지 말라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성필이에게 상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성필이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고싶어서였다.

상호는 성필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온 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요즈음 농장에서 새벽이슬을 제일 먼저 터는 사람은 상호였다.

그에게 있어 해뜨기전 이른새벽, 신선한 공기를 한껏 마시며 간밤에 자란 강냉이들을 보는 맛이란 더없이 흐뭇하고 기쁜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강냉이는 우썃우썃 소리를 내며 자라오르더니 요즈음에 와선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송이꼴의 이틀갈이밭에는 가운데만 내놓고는 이삭이 다 나왔다.

상호는 오늘새벽도 송이꼴로 향하였다. 포근한 젖빛안개가 산촌에 흐르고있었다.

(오늘쫘은 발가운데도 이삭이 나올지 몰라.)

그는 노래라도 부르고싶도록 마음이 부풀어올랐다. 숫강냉이를 두고 성필반장과 이야기가 있는뒤 선화네들이랑 덧비료를 착실히 주던 일이 얼핏얼핏 스쳐지나갔다.

상호는 발머리에 이르자 우뚝 섰다. 발가운데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었다.

(나보다 먼저 누구들일가?)

상호는 귀를 기울이며 걸어갔다.

《반장, 자네 자리를 내놔야겠네. 이렇게 이삭이 나오는걸 숫강냉이라고...》

《참, 령감님두. 령감님은 왜 숫강냉이가 분명하다고 했습니까?》

이어 두사람의 밝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더니 성필반장의 목메인 소리가 들렸다.

《정말 소조원동무의 말이 옳았습니다. 나는 소조원동무가 숫강냉이가 아니라고 할 때도 끝이 믿지 않았더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너무하지 않는가 하면서도 말입니다. 경험을 보면 꼭 숫강냉같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나왔거든요. 결국 새 종자에 대

한 신심이 없고보니 눈이 흐려져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그럴세,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소조원이 아니었다면 사람구실을 하지 못했을걸.》

순간 상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야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들을 볼 때 눈물이 나도록 기뻐다. 그러나 한편 경험주의란 이렇게도 검질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었다. 전번 성필반장에게 이야기하고나서 이제는 그의 머리에서 경험주의가 빠져나갔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직껏 사리를 들고있은것이였다.

(아, 농촌에서 사상혁명이란 이렇게도 힘든것인가. 씨를 묻어 강냉이가 결실된것을 보고서야 낫은 사상이 밀리워난단말인가.)

그랬으나 상호는 어쨌든 반가웠다. 힘이 들었던 만큼 기쁨도 컸다.

상호는 숫구쳐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그들을 소리쳐불렀다.

《반장동무! 아바이!》

그리며 막 달려갔다.

성필반장이며 회경로인이 마주 달려왔다.

강냉이대들이 그들의 기쁜 마음을 말해주듯 와슬렁거리며 설레었다.

《소조원동무!》

《여보게 소조원!》

성필이와 회경로인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상호의 손을 꼭 잡았다. 부여잡은 손들로는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힘있게 고동치였다.

그때 안개가 천천히 가시여지며 산촌의 새아침이 밝아왔다.

×

×

《아니, 이 사람들!》

회경로인이 기사장 상호와 성필반장에게로 걸어왔다.

《이 기쁜 날에 어찌 그러고들 서있나?》

《아바이, 이제껏 메돼지잡은 해 생각을 했수다. 다음해에는 부식퇴비 실러 가다가 또 메돼지잡으려 안가겠소?》

성필이가 이러며 꺾꺾 웃었다.

《예끼 사람두, 자네의 그늘밑에서 리기주의가 깊이 박혀있었어두 한번 빠진것이 이 머리로 다신 못들어와.》

《아니, 난 또 왜 거드우? 주체농법대로 착실히 농사짓는 반장을!》

상호는 이런 그들을 보며 마음껏 웃었다. 성필이와 회경로인도 꺾꺾거렸다. 그에 어울려 뺨파리소리, 새납소리가 칼봉너머로 멀리멀리 울려퍼지고있었다.

생활의 흐름

리형순

문원도관리위원장은 자전거를 끌고 언덕우에 오르자 숨을 가쁘게 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는 더위도 마지막 고비를 넘는 때여서 그런지 푸른 하늘마저 무덥게 느껴졌다. 멀리 언덕아래로 산기슭을 안고도는 실개울의 수면이 햇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거렸다.

길옆에 우거진 까치밥나무덩굴에서는 새들이 더위도 아랑곳 않고 분주히 우짖었으나 풀판에 매놓은 염소는 숨을 헐떡거리며 나무그늘 밑에서 나을뎌를 못했다.

문원도는 이따금씩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땀을 들이느라고 작업복의 앞자락을 다 열어헤쳤으나 여전히 숨을 가쁘게 쉬었다.

그는 관리위원회에서 떠난지 불과 30분도 되나 마나하였지만 자전거까지 끌고 언덕길에 오르다보니 벌써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땀을 때보다 쓰고있는적이 더 많은 모자채양을 조금 우로 제끼고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내뺨 땀을 훔쳤다. 말이 났으니말이지 그가 모자때문에 지금까지 망신당한적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늙음의 뚜렷한 징표인 흰머리카락을 감추느라고 모자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차츰 그것이 습관이 되어 어떤 때는 주석단에 앉아서도 그냥 쓰고있는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곁에 앉았던 리당비서가 옆구리를 가만히 건드리면서

《아바이, 또 실수를 하셨수다.》라고 말해서야 그는 당황하여 모자를 벗곤하였다.

그는 군적으로도 나이가 제일 많은 관리위원장이었다.

우에서는 그에게 이제는 고문노릇이나 하라고 권한적도 여러번이었지만 원도는 그런 말을 들은척도 안했다.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늙었다는 소리를 하면 몹시 기분이 언짢아했고 상대가 누군지 가리지 않고 벌컥 성을 내곤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직도 한 5~6년은 더 패기있게 일할수 있다고 치부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아

침에 자기가 친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2작업반의 처녀반장인 성실이한테서 처음으로 가슴아픈 말을 듣게 되었던것이다.

웃는 얼굴로 강박제골다락발건설계획서를 들고 들어왔던 성실은 관리위원장이 호되게 꾸짖자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을 옆으로 돌리고 서있더니

《관리위원장동진... 늙었어요.》하고는 종시 흐느껴 울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갑자기 아픈 때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뻥해진 그는 성실이가 닫고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녀가 문을 열고나가는바람에 책상우에 놓고간 그 계획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원도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벽에 걸린 거울에 시선을 돌렸다. 전쟁때 상처를 입은 이마의 허물도 이제는 주름살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거울에 나타난 자기의 얼굴을 무심히 쳐다보던 원도는 무슨 못볼것을 본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있는 책상앞에서는 나이먹은 계획지도원이 안경을 코등에 간신히 걸고 고개를 숙인채 주산알을 텅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원도는 그를 보자 까닭없이 자신에게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밖으로 나오려다가 말고 바닥에 떨어진 그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직도 웬만큼 큰 글씨는 안경을 끼지 않고도 볼수 있도록 시력이 좋았다. 원도는 좁전에 성을 낼 때와는 달리 계획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성실은 그의 앞에 이 계획서를 들고 들어올때만 하여도 두눈에서는 기쁨의 불꽃이 반짝거렸다. 아직도 동심세계의 어느 한 꼬트머리가 남아있는것만 같은 성실은 사로청원들이 주동이 되어 세운 그 계획(원도가 보기에는 너무도 철없는 짓이었다.)을 관리위원장이 지지해주리라곤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원도는 그 계획서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다. 원래 2작업반에서는 군의 계획에 맞물린대로 1정보의 다락발을 건설하게 되어있는데 계획서에는 3정보를 하겠다고 했고 게다가 양수장의 물길공사를

하여 다락발에 관수를 하며 삭도까지 놓겠다는 것이었다.

아마 성실은 자기의 환상에 매혹되어 자기 작업반의 역량이 1급기업소쯤이나 되는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의 설명을 다 듣고난 원도는 너무도 화가나 친딸에게처럼 한바탕 욕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제껏 착실하고 주도세밀했던 성실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는지 원도는 그것이 노여웠다. 그는 힘없이 계획서를 책상우에 내려놓았다. 성실이는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노엽게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성실은 그의 눈앞에서 소년단벙타이를 사로청회장으로 바꾸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어엿한 농장원으로 분조장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자라났다.

원도는 성실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곤하였다. 만일 성실이같은 착실한 일군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게 된다면... 원도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일생을 바쳐 운이 나게 닦아온 그 사업의 고리에 끼워질 다른 하나의 고리가 이미 마련된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지곤하였다.

(아무래도 이 애가 잘못 나가고있는게 분명해...)

조금전에 성실이와 있었던 일들을 다시 더듬어보던 원도는 그리도 푸른 하늘로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는 흰구름을 모자채양밑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성실이의 그 마음속에 언제 저 둥둥 뜬 구름이 들어왔기 시작하였단말인가.

《농사군이란 땅에 발을 든든히 붙여야 하는건데.》

이렇게 중얼거리던 원도는 화가 난김에 자전거를 끌고 관리위원회마당을 나섰던 것이다. 아무래도 강박재물에 가보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 철없는것들이 지금 무슨 흥판을 벌려놓고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땀을 다 들이고 난 원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던 처녀반장의 얼굴이 떠날줄을 몰랐다.

《원 성미두...》

그는 노여운듯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마지막 말은 따뜻한 음조로 얼버무렸다.

그는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은채 언덕을 따라 강냉이밭속으로 사라진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는 여기서 그냥 자전거를 탄채 바로 저 아래 강냉이밭까지 단숨에 내달리곤했다. 귀뿌리에 서 바람이 쐩쐩 나는 맛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쾌감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이제는 언덕을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는데 습관이 되었다.

그는 자전거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이 자기에게 복무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바퀴의 살도 더러 휘여지고 색칠한것이 벗겨진데도 있었다.

자전거를 내려다보던 그는 조금전에 성실이한테서 받은 모욕이 되살아나자 화가 나서 안장우에 가볍게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젊었을 때처럼 자기가 탄 자전거를 언덕아래로 내리몰았다.

귀에서는 바람이 쐩쐩 일고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꼭 틀어쥐었다. 자전거는 사정없이 아래로 내달렸다. 방금이라도 어디에 구겨박힐것만 같았다. 그가 아차하는 순간 돌부리에 걸렸는지 자전거가 휘친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순간 누구의 억센 손이 곁에서 자전거를 멈춰세웠다.

원도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아니 어찌자고 그러십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몸집이 큰 1작업반 반장이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원도는 자기의 주책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킨것이 하도 당황하여 멋적게 기침을 했다. 입이 건 반장이 래일이면 온 농장을 돌아다니며 무슨 소문을 퍼뜨려놓을지 누가 알랴. 그는 고개를 돌려 강냉이밭을 살펴보는척하다가 어색하게 물었다.

《어디 갔다오는길인가?》

그러나 반장은 아이들처럼 언덕꼭대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아내릴 모험을 한 관리위원장의 머리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기라도 하듯 찬찬히 보기만 했다.

《이사람, 나한테 뭐 묻기라도 했나? 왜 그렇게 찬찬히 보나?》

원도가 화를 내서야 반장은 어색한듯 뒤통수를 긁었다.

《에… 어디 다친데나 없나 해서요. 저기서 오면
서 보니까 막 조마조마해서 달려왔습니다. 자전거를
이리 주십시오.》

반장은 그의 손에서 자전거를 억지로 빼앗았다.
원도는 그를 외면한채 종시 어색한 기분을 가셔버
리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어느덧 그들의 발
길은 강냉이밭끝에 잇닿은 이삭이 알배기 시작한
논판에 이르렀다.

어디선가 논물소리가 들려왔다. 원도는 그 자리
에 멈춰섰다. 분명히 어디서 물이 새는 소리였다.

앞서가던 반장의 시선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이
번에는 반장이 어색해하였다. 이 논들은 그의 포전
이기때문이었다.

원도는 아무말없이 자전거의 짐판우에 매어놓았
던 삽을 꺼내들었다.

《그만두십시오. 제가…》

반장이 당황하여 그의 손에서 삽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만두게… 이삭나이준비를 하는 때 논판을 말
릴 작정인가.》

원도는 거칠게 한마디 하고는 바지가랭이를 꼼꼼
히 걷어올리고 논판에 들어섰다. 경험이 많은 그의
눈은 물이 새는곳을 인차 찾아냈다. 그가 터진곳을
막으려고 할 때 반장이 허둥지둥 쫓아들어와 그의
손에서 삽을 빼앗았다.

《논물관리원이 어디 갔나?》

《어디서 논두렁풀을 깎는것 같습니다.》

반장은 원도의 눈치를 보면서 재빨리 논판의 흙
을 떠내어 터진곳을 막았다.

그들은 쿵포기들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며 두렁길
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자네도 이제는 나이가 지긋했으니 젊은이들 풍
에 놀지 말고 제정신을 차리란말이야. 농사란 찬찬
히 해야 하는거네. 백가지를 다 하다가 하나만 놓쳐
두 안되는것이 바로 농사란말이야, 알겠나?》

《예,…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 풍에 논다는건…》

반장은 뜻하지 않은 그의 책망에 억울한듯 고개
를 돌렸다.

《그저 그렇다는 말일세.》

원도는 자기가 근거없이 그를 책망했다는 생각이
들자 어색한듯이 입을 다물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저 강박재골에… 논물관리를 잘하라우.》

《예, 녀려마십시오. 그런데 요즘 작업반의 사로
청원들이 일만 끝나면 강박재골로 달려가군하는데
우리 작업반에서도 좀 지원을 할가 합니다.》

그의 말에 원도는 벌컥 성을 냈다.

《뭘 강박재골에?…》

그는 쓴입을 다시다가 반장과 헤어져 자전거에
올라탔다. 성실이네들이 무슨 철없는 일을 벌려놓
은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가면서도 습관처럼 주위를 살
펴보았다. 그는 논판에 돌피나 풀대가 보이면 들어
가 그것을 뽑았고 분토를 부렸던 자리를 보고는 얼
마 안되는 검은 흙을 두손으로 반반히 쓸어모아 강
냉이포기에 묻어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
기가 이 농장의 주인이라는것, 자기가 없이 젊은이
들만으로는 일이 거칠게 될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는 빙그레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아직 젊은것들한테 사업을 인계하기는 이르지,
암 이르구말구…》

그는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기네 농장
별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가 한창 가을걷이경쟁때 뒤에서 단을
묶어주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를 즐겼다. 젊은 사람
들은 열정과 경쟁심에 불타올라 저마다 앞서나가려
고 정신없이 벼를 베어나간다. 그러다보니 흘린 곡
식도 적지 않다. 만일 헤엄치기만 하는 젊은이들의
뒤에서 자기처럼 단을 묶어주고 흘린 낱알도 주으
면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원도는 이제 성실이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잘 타
일려주리라고 걱정했다.

그의 자전거는 강박재골로 갈라지는 지름길어구
에 들어섰다.

오래간만에 와보는 길이었다. 그가 자전거를 타
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저멀리로 난 큰길을 따라다
녔으며 여기로는 1년에 한 두번씩 간혹 가다가 들
리군하였다. 어떤 때는 정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길어
구에 자전거를 세우고 잡초에 덮인 오솔길을 따라
강박재골로 가군하였다.

그전에는 자주 오군하던 길이었다. 그만큼 그
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든 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길에 들어설 때마다 자기가 일생동안 들 길을 걷고있다는 긍지감을 느끼곤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한오리의 쉼닝쿨같은 오솔길이며 길옆에 기우뚱하고 서있는 밀날가리며가 그에게는 울적함을 더 보태줄뿐이어서 떠나오기전에 사무실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 다시금 되살아나는것이였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성실이한테서 처음으로 뜻하지 않았던 모욕을 느꼈던 탓인지, 아니면 그 모욕때문에 풀대들이 무성하고 한적한 이 오솔길에서 처음으로 지나가버린 자기의 일생을 더듬어보게 된 조용한 기회를 얻은 탓인지...

문원도는 갈라지는 길목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작업복주머니에서 담배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길길이 자란 새초가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무릎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의 눈앞에는 문득 자기가 여기로 처음 찾아오던 때의 감회깊은 추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에 있는 일이었다.

강박재फल농민들의 생활은 협동조합을 무슨 다음에도 눈에 뜨이게 퍼나지 못했다. 새 생활이 흥성거리기에는 너무도 땅이 메말랐고 그 토대가 빈약하였던것이다.

논벌을 끼고있는 룡호협동조합과 강박재फल협동조합이 통합되게 되였다.

그때 룡호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이던 문원도는 합치게 될 강박재फल의 살림을 돌아보려고 그곳으로 갔었다.

때는 강녕이가 한참 키돋움을 하던 초여름의 한 낮이었다. 그는 강박재फल구에서 물을 길어다가 강녕이밭에 주고있는 조합원들속에서 세포위원장인 영예군인 박동무를 만났다. 그의 곁에는 필경 딸이라고 생각되는 예닐곱살되는 소녀가 조그마한 물바가지를 든채 충기있는 눈을 뻗고 자기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가 들고있는 기울어진 바가지의 한쪽으로는 물이 흘러내려 치마자락을 적시고 있었다. 서로 눈길이 마주치자 소녀는 긴 속눈썹을 재빨리 내려감고 마른 땅에 물방울을 흘리며 발이랑을 타고 타박타박 걸어갔다.

문원도는 골짜기에 흐르는 한줄기의 청신한 샘들이 가랑잎을 들추고 얼굴을 내민것 같은 정기가 돌던 소녀의 그 눈빛이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공교롭게 된 일로 하여 그는 협동조합을 통합한 이듬해에 갓 학생복을 입은 그 소녀, 성실이한테 가슴에 맺힌 말을 하게 되였다.

그때 원도는 강박재फल에 옮겨다놓은 양우리를 돌아보고있었다.

길옆의 강녕이대에는 수염이 꺼매진 이삭들이 매달려있었다.

원도는 오솔길을 내려오다가 풀덤불우에 마구 널려있는 책보들을 보고 무춤하였다. 아니나다를가 발한가운데서 조무래기들이 강녕이대를 꺾다가 그를 보고서는 두손을 등뒤로 가져갔다.

원도는 험악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 조무래기들속에는 뜻밖에도 성실이도 끼여있었다.

《오라, 너도 있었구나, 네가 강녕이대를 꺾다니?》

원도는 그전날 그 애가 강녕이밭에 물을 날라다 주던것을 잊지 않았던들 목소리가 그렇게 거칠어지지 않았을것이다.

《이건 이삭이 없는 강녕이대야요.》

성실은 숙였던 머리를 쳐들며 눈물이 글썽해서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도는 소녀의 조그마한 손에 쥐여져있는 강녕이대를 살펴보았다. 정말 수강녕이대였다. 다른 애들의 손에 들려있는것들도 역시 수강녕이대들이였다.

봄, 여름내 힘들게 가꾸어 수강녕이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는 가슴이 아팠다. 차라리 애들이 자루가 달린 강녕이대를 꺾었던들 그의 마음이 그처럼 아프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런 강녕이대에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땀이 스며있단다.》

다소 겁을 먹고 쳐다보는 소녀를 책망하는 그의 음성은 저도 모르게 떨렸다.

《관리위원장아저씨...》

성실이의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원도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녀의 발잔등으로는 가느다란 강녕이대가 미끄러져내리고 그의 눈에서는 맑은 이슬이 방울져 굴러떨어졌다.

《이제부터는 강냉이대를 안찍겠어요.》

성실은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애처로운 생각이 든 원도는 소녀의 윤기있는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다음해부터는 나도 이삭이 달리지 않은 강냉이대는 만들지 않으나. 너희들은 꺾을 강냉이대가 없다고 섭섭해하지는 않겠지?》

그의 물음에 소녀는 고개를 살래살래 젖는데 물기가 가지지 않은 그의 맑은 두눈에는 저녁 장미빛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그때부터 원도는 성실이를 대할 때마다 자기의 약속을 상기하곤 하였으며 자기의 마음속에 채찍질을 하였다.

이런 나날속에 소녀의 생활은 계곡의 물과 같이 빨리도 흘러갔다.

샘에서 솟아오른 맑은 물은 처음에 가랑잎을 들추고 세상밖으로 신기한듯 그러나 수집어하며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고 다음에는 너럭바위우로 자취를 드러내놓으며 성급히 흘러내렸다.

흐름을 시작한 계곡의 한가닥 물길이 마침내 수차를 돌려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 그 힘을 느껴보듯 그가 성숙한 처녀, 성실이를 깜짝 놀라 바라보게 된것은 작년 초봄에 니탄채취장에서였다.

봄별은 하루가 다르게 질어가고있었지만 농장의 작업반들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에 쓸 부식토를 계획량대로 장만하지 못하고있었다. 이웃 군에서 니탄을 캐오자던 애초의 계획이 튼바람에 더 그렇게 되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분분했지만 해결대책안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원도가 방추골에서 니탄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것은 관리위원회협의회를 끝마치고나서였다. 니탄층은 땅속 깊이 깔려있고 그 질도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래도 니탄이 나온다는 소리에 귀맛이 버쩍 당겨진 그는 그 즉시로 몇몇 관리일군들을 앞세우고 방추골로 나갔다.

이그러진 달은 아직도 찬바람이 싫은지 따스할상실은 두툼한 구름속을 빠져나오면서 꾸덕꾸덕해진 두렁길을 간신히 비쳤다.

그들이 진펄길을 더듬고있을 때 논판 한가운데서 인기척이 났다. 웬 녀인이 혼자 피피한 정적이 깃든

외따른곳에서 논판을 헤집고있었다. 원도가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는 뜻밖에도 작업반의 사로청위원장인 성실이었다.

《관리위원장동지, 니탄층이 나와요.》

성실은 머리수건 가장자리로 빼여져나온 흩어진 머리칼을 수습하며 땀에 젖은 얼굴을 쳐드는데 움켜쥔 그의 한쪽 손에서는 흙이 푸실푸실 떨어져내렸다.

원도는 이때 처음으로 성실이한테서 《관리위원장아저씨》가 아니라 《동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어느사이에 그는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넓은 포전으로 뻗어간 들길을 걷고있는것이였다.

새봄에 성실이는 농장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업반장으로 되었다.

원도는 자기의 눈앞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성실이를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곤하였다. 그런데 강박재물의 다락발공사문제를 두고 그의 이런 기대가 줄지에 흔들리는것만 같았다.

그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이란 마치고 사냥군과 같은것이어서 결코 조급하게 총을 쏘아서는 안되며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겨냥과 정황에 따르는 능숙한 사격술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보니 성실이한테는 이 점이 부족한것 같았다.

두서없이 떠오르는 감회깊은 추억으로 하여 머리가 무거워진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물기가 어려 한결 부드러운 풀판에 발목을 문히며 그는 비탈밭을 뚫아올랐다. 짙레나무 덤불이 엉켜있는 최독을 넘어서자 성실이가 어렸을 때 강냉이대를 꺾던 발머리가 나타났다.

등성이우로 휘우듬히 누워있는 강냉이밭에 눈길을 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그는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것을 느꼈다. 그는 급히 강냉이대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강냉이숲사이로 언뜻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걸음 더 나가보니 개피리를 붙들고있는것은 분명 성실이의 옆모습이였다. 뭐라고 혼자 웅알웅알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다가는 웬일인지 눈굽에 손을 가져가기도 했다.

원도는 아직 인기척을 내지 않은채 그가 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성실은 강냉이잎을 매만지다가는 대를 쓰다듬기도 하고 실신한 사람처럼 고통을 타고 나가다가 어떤 강냉이대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저 혼자 흐느꼈다.

뜻하지 않았던 광경을 보게 된 원도의 마음은 이상해졌다. 저 처녀는 결국 자기앞에서 문을 광 닫고 나간 다음에도 작업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포전에서 강냉이대를 안고 아직껏 눈물을 흘리고있는 모양이었다.

비탈밭의 변두리이랑들에 수강냉이가 한두대씩 나왔다고 그것이 무슨 큰일이기에 저 처녀는 저리도 큰 슬픔에 잠겨있는가.

문원도는 그의 앞에 나타나기도 난처하고 슬그머니 없어지기도 곤란하여 그 자리에 엉겨주춤한채 반장의 거동만 지켜보았다.

성실이는 여전히 강냉이대들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더듬어나가고있었다. 원도는 그가 자기한테 거의 가까이 오자 어색하게 기침을 했다. 처녀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돌리더니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였다. 원도는 공연히 헛기침을 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 아침에 문을 광 닫고 나가더니 여기 와서 쿨쩍거리고있었구만.》

원도는 우정 노여운 표정을 띠고 말했다. 성실은 안타까운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성실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부르짖었다.

성실이가 요즘 처음으로 그를 아저씨라고 부른 그 말이 원도의 가슴속을 이상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지금껏 잠자고있던 자식에 대한 감정이 멀리 떨어져있던 딸의 부름에 눈을 뜬것과도 같았다.

《한이랑에 한두대씩은 강냉이자루가 달리지 않을것 같아요.》

원도는 안타까와 방금이라도 눈물을 또 흘릴것 같은 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하고 웃고 말았다.

《곡식이 이렇게 잘되어보기는 이 골안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너도 알겠지만 그전에는 이 비탈밭들에 수강냉이가 절반이상 되곤하였지.》

그의 말에 성실이는 지나간 날을 회상해보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표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원도는 슬그머니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언제인가도 바로 저런 눈이 자기를 지켜본적이 있었다. 그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이슬에 젖은 소녀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던 그때,... 원도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던가... 그런데 여전히 성실이는 안타까운 호소가 달린 눈으로 지켜보고있지 않는가. 자기를 아저씨라고 부를 대신에 동지라고 부르게 된 저 처녀의 시선에 자기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원도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들었다. 까닭모를 서글픔이 그의 마음을 불시에 휩쌌다. 머리가 휘여지도록 농사일로 늙어온 그가 아직도 이 처녀의 맑은 마음앞에서 대답을 찾지 못하고있지 않는가,...그는 자기의 일생을 총화하게 된 이 순간에 와서까지 나 어린 처녀앞에 물음을 남겨놓게 되었다는것을 생각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서글퍼졌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족했던 자기의 일생에 허전한 감을 주는 빈공간이 있음을 가슴아프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저씨,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셨을 때 수강냉이들이 생기지 않게 곡식을 잘 자래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었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수강냉이들을 모조리 없애지 못했어요. 전 그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잠을 들수가 없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탈밭에서보다 다락밭에서 수확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었어요.》

위원장동지, 농장의 비탈밭들을 몽땅 다 다락밭으로 만들자요. 네? 그래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비탈밭들을 가지고 주물러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원도는 그의 절절한 호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그래도 로력이랑 자재는 타산해보았나? 이제부터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되겠는데...》

이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낡은 생활의 타성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변디덤이었다.

《예, 타산해보았어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안돼요. 꼭 해야 해요. 위원장동지...》

처녀의 눈에는 간절한 소원의 빛이 어려어려있었다. 원도는 문득 자기의 발밑이 허물어지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모자란다는것을 느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그래도 농장의 주인이고 자기가 없이는 농장의 살림이 제 궤도에

서 탈선할수도 있다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갑자기 성실이앞에서 두려워지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자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할것만 같은 그 어떤 거창한것이 자기앞으로 걸잡을수 없이 육박해 오는것 같은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늙은가부다.》

원도는 무겁게 한숨을 쉬면서 나직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말에 성실은 안타까운듯 부르짖었다.

《아니예요. 아저씨 아직 늙지 않았어요. 모자만 쓰시면 아직도 젊은이들 같은데요 뭐...》

원도는 그의 말에 허거프게 웃었다.

《아저씨, 우리 작업반에서는 어제부터 공사에 착수했어요. 위원장동지가 꼭 지지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말이에요. 저하고 가보시자요. 가보시면 아마 힘이 날거예요.》

성실은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어리광을 피우듯 말했다.

원도는 그의 손에 이끌리듯 마지못해 끌려갔다.

그들이 비탈길을 에돌고있을 때 산밑 오른쪽에서 트랙포르소리가 들려왔다. 언덕위로 운전칸의 빨간 지붕이 불쑥 솟아오르고 유리창이 저녁해빛을 받아 번쩍했다. 사래가 끝난 저쪽 발머리에는 돌무지들이 우뚝우뚝 서있었다. 그 돌무지들우에는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뽕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이라고 쓴 커다란 구호판과 《속도전》이라고 쓴 구호판이 꽂혀있었다.

강기슭에서 올라온 트랙포르들이 막돌을 한창 부리우고있었다.

원도는 묵묵히 뒤집을 진채 이 골안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성실이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막돌을 가득 실은 또 한대의 트랙포르가 차체를 기우뚱거리며 비탈길을 툭아오르고있었다. 그들은 배기가스가 풍긴 오솔길을 따라 막돌채취장으로 내려갔다.

발파를 해놓은것처럼 돌무지를 헤쳐놓은 작업장은 커다란 공사장을 방불하게 했다. 청년들이 웃옷들을 벗어던지고 신이 나서 돌들을 트랙포르에 싣고있었다.

원도가 성실이를 앞세우고 작업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더욱 기뻐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강냉이가을을 하기전까지 막돌들을 다 준비할수 있을것 같아요. 래일부터라도 농장에서 들고일어나자요 네? 아저씨.》

성실이는 지금도 역시 농장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고있었다. 원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작업복을 벗어놓고 곁에서 일하고있는 한 청년의 손에서 메를 빼앗았다.

《이리 내게... 메질이야 그래도 내가 더 낫겠지...》

그의 말에 청년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히죽이 웃었다.

《자, 정을 대라구...》

원도는 문득 육체로동에서 오는 기쁨과 함께 불시에 자기가 젊어진듯한 느낌이 들었다.

외진 산비탈밭에서 수강냉이를 안고 흘리던 성실이의 그 맑은 눈물이 그의 굳어진 감정속으로 스며여든 탓이나 아닌지... 어제는 가랑잎을 들추고 세상밖을 조심히 수집어하며 내다보던 한가닥의 맑은 물길이 이제는 수차가 아니라 산도 떠옮기는 큰 힘으로 번져졌다는것을 그는 여기에 와서야 톡톡히 알게 되었다.

그는 일군이란 심장의 고동이 멈춰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으로 고동쳐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맹세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는 겉으로 늙어가는데만 신경을 썼지 마음이 어느새 늙어가고있는것은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전에 물러서서 농장원들의 뒤거뚱을 해주는것을 착실한 주인의 임무로 생각하고 만족해있지 않았는가?...

그는 설참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손에 잡히는것이 있어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 종이장은 아침에 성실이가 두고간 강박채굴다락발전설계책서였다.

원도는 그것을 무릎우에 찬찬히 펴놓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이 계획서를 확대하여 온 농장적인 다락발전설계책을 작성하며 그것을 농장원들의 총회에 제기할 생각이 한창 무르익어갔다.

다시 작업은 시작되었다. 원도는 놓았던 메자루를 든든히 거머잡았다.

넓어지는 대지우에서

안선옥

그날, 우리들이 로창협동농장을 방문한 그 겨울 날저녁은 마치도 봄날처럼 따스하고 푸근하였다.

멀리 방풍림이 들어선 바다가녁으로 햇숨처럼 부드럽고 진한 해무가 고요히 솟아올랐다. 방금 떠오른 둥근 달이 바람에 흰눈이 불려 흩이 꺼렇게 드러난 별판을 푸른 빛으로 선명하게 물들였다.

산기슭에 있는 밭에서 자그마한 우등불이 타올랐다. 우리는 그 우등불을 앞에 놓고 이 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인 김양식과 마주 앉았다. 우리는 그를 찾아 온 농장을 헤매다가 밤중에야 이곳에서 그를 만났던것이다.

거의 스러져가는 우등불앞에 혼자 앉아 수첩을 펴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있던 그는 우리가 취재를 하려고 왔다는것을 알자

《뭐 한게 있어야지요.》하면서 소박하게 웃었다. 우리는 우등불앞에 자리를 잡고앉아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자, 이거 정말 난처합니다.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뭐 한것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웃으면서 예고 없이 찾아다니는것이 우리 직업의 한 특성이라고 했다. 나이에 비해 썩 숙성해보이는 그는 미소를 거두더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이따금씩 탁탁 튀어오르는 우등불을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들었다. 며칠밤을 새운 탓인지 피로한 기색이 짙은 그의 얼굴에서는 명상적인 두눈만이 밝은 빛을 띠고있었다.

《숨옷들을 걸치십시오. 이 바다바람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여기서들 말하는데로 옷속으로 막 기여드는 바람이랍니다. 습관되지 않으면 감기들기가 쉽지요.》

그의 이 평범한 말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대한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그의 말대로 벗어놓았던 숨저고리를 어깨 위에 걸쳤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소조원은 나무가지로 타다남은 나무쫂트머리들을 천천히 불속에 밀어넣고나서도 침묵을 지켰다.

주위에는 깊은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달빛에 비친 바다가 마치도 가없는 연판을 깔아놓은듯 꿈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바라보였다. 고요하고 무엇인가 정겨운것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이윽고 소조원은 우등불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물었다.

《작가동지들은 감정에 대해서도 취재를 합니까?》

너무도 뜻밖의 질문이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가 당황해하는것을 본 그는 빙긋이 웃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 질문이 혹시 어리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가동지들이 쓴 소설책을 읽을 때마다 주인공들의 심리나 감정이 잘 묘사된 대목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황홀해지곤하지요.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아마 그런 대목들은 작가들이 취제한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것을 쓰지 않았겠는가 하고말입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 소조원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렸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의 두눈에서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피로한 기색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린것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연개조 5대방침이 제시된 날, 저는 온 밤 잠들지 못하고 이 별판을 거닐며 날을 새웠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황홀하다고 할가, 송고해진다고 할가, 하여튼 그때 제 감정은... 아마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고서는 그런 감정을 절대로 느낄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는 문득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저도모르게 그의 깊은 사색에 이끌려들어갔다. 소조원의 얼굴에는 안타까와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감정을 말로써 설명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작가동지들이 아마 이것을 저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감정을 설명한다는것부터가 벌써 따분한 산문이 아닙니까?》

그의 말에 우리는 빙긋이 웃었다. 독자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따분한 산문, 그것도 역시 우리의 죄가 아닌가.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보는 대풍이 든 농장별의 가을걷이를 하는 저의 머리속에서는 한가지 무거운 근심이 떠날줄 몰랐습니다.

농장원들도 기뻐 춤을 추고 관리위원회일군들도 만세를 부르는 그 흥겨운 가을걷이전투장에서조차

저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뎀 그는 그때 자기가 자나깨나 고심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털어놓았다.

1976년도에 이 협동농장의 농사는 참으로 희한하게 잘되었다. 70畝 생일이 넘은 로인들도 가을걷이전투때 논벌에 나와보고는 자기 생전에 이런 대풍을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농장은 올라갈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 이르렀다. 정초부터 세밀하게 타산된 영농계획에 빈구석이 생길세라 혁명의 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장에 서서 하나하나 이악하게 집해나갔다.

과학적인 시비체제도 정확히 세웠고 령습지도 개량하였으며 농장에서 동원할수 있는 예비는 다 동원했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양식소조원은 다른 소조원들과 함께 농장벌에서 거의 살다싶이하였다. 한여름의 피약벌밑에서 그의 얼굴은 거뭇거뭇해지고 두손도 거칠어졌다. 농장에서 무슨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거나 힘든 일이 생길때마다 항상 그들이 앞장에 섰다. 그는 1년동안 이렇게 분투해오는 과정에 자기 농장의 능력을 정확히 타산할수 있었다.

있는 예비는 모조리 동원되었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것은 다 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고의 높이란말인가, 이 점에서 더 높이 비약할수는 없는가.

김양식소조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 절대로 이것이 한계점으로 될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약, 새로운 기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이러한 질문이 집요하게 그의 머리속을 파고들었다.

작년처럼 영양단지를 질적으로 빚고 제때에 옮기며 모내기를 제철에 하고 시비방법을 엄격히 지키며 논물온도를 정확히 보장하는것만으로 만족할것인가.

물론 그것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될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새해전투가 시작되면 모든 농장원들이 혁명의 전위인 자기를 쳐다볼것이다.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농장이 또다시 새로운 높은 고지로 올라설것인가,

이러한 무거운 근심이 한시도 그의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늘 근심에 잠겨있는 그를 보고 관리위원회와 리당일군들은 그가 어디 아파서 그러는줄로

만 알고 만날 때마다 문안을 했고 한번은 의사를 데리고 찾아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양식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수가 없었다. 그는 일단 무슨 문제든지 해답을 찾기까지는 자기의 속심을 잘 털어놓지 않는 성미였다.

그는 며칠동안 관리위원회사무실에 들어박혀 농장의 로력형편과 가동정형, 농기구의 상태며 필지별 비료의 시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예비를 찾아보았으나 신통한 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이처럼 고민속에서 날을 보내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격동적인 소식이 온 농장벌에 울려 퍼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금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신것이였다.

그 보도의 구절구절을 머리속에 새겨가며 듣고있는 그의 눈은 갑자기 활짝 열려지는것만 같았다.

흥분과 격동을 누를길 없어 별관으로 달려나온 그는 온 밤 잠들지 못하고 발길이 닿는대로 별관을 헤매었다. 그가 것처럼 고심하던 문제, 그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해답을 찾으며 밤을 새우던 그의 무거운 머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활짝 띄워주신것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한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려면 영농방법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

발판개를 마저 완성하며 다락밭을 건설하고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을 하며 치산치수사업과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명철한 과업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의 농업이,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이 찬란하고 휘황한 미래에로 가장 곧바르게 줄달음칠수 있는 길을 또다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얼마나 찬란한 미래와 잇닿아있는것인가.

양식소조원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날 밤, 제가 느낀 감정을 무엇이라고 했으면 좋을지... 그것을 말로써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웬일인지 그저 끝없이 걷고만 싶었고 누구든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없는 공상에 잠기고만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와 잇닿은 꿈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저는 바로 그 꿈을 현실에서 보게 되었으니 작가동지들도 아마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은 저처럼 농촌에 파견되어 일하고있는 소조원들도 한결같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날부터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아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에서는 불바람이 일었다.

양식소조원은 항상 그들의 선두에 서있었다. 도시에서 로동자들이 달려오고 공장에서 기계들이 밀려왔다. 산을 깎아내리고 돌을 실어올렸다.

온 조국땅을 뒤흔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전투의 포성이 이 농장벌에서도 울려 퍼졌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만족을 몰랐다.

《우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하신 교시를 우리 농장의 실정과 결부시켜 연구하는 과정에 해야 할 일들을 수많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전원회의가 있는 다음부터 오늘까지 우리 농장의 생활은 참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농장에 있는 비탈밭들을 다락밭으로 만드는데 착수했고 저 아래에 있는 강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그것도 거의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다기슭에 있는 밭들에서 돌각담과 최폭을 없애고 더 많은 땅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오늘밤에는 그 량을 계산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었던 수첩을 펴보이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에 우리는 깊이 감동되었다. 온몸에 정열이 끓어넘치고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안정을 모르는 저 불타는 젊은 심장들, 우리 혁명대오의 맨 앞장에 바로 이런 혁명의 전위들이 서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조국은 더 찬란한 미래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인상적인 밤에 우리들이 느낀 감정을 여기다가 일일이 적자면 한이 없을것 같았다.

달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다. 엷은 구름장들의 그림자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눈우를 재빠르게 지나갔다. 바다는 여전히 달빛에 신비롭게 빛나고있었다.

우리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자기 생각들을 쫓고있었다. 소조원의 얼굴에는 심각한 사색의 빛이 어려있었다. 이 순간 그가 또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우리들은 문득 그가 처음에 우리들더러 감정도 취재하느냐고 묻던 말을 다시 생각하고는 미소를 띠었다.

우리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산뒤에서 트랙포트들의 요란한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조원의 얼굴에도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마주오는 트랙포트들의 대렬을 향해 갈아빈진 흙밭에 발을 걸채면서 급히 걸어갔다.

맨 선두에 선 트랙포트가 그의 곁에 와서 멈춰섰다. 적재함에서는 화불을 든 농장원들이 뛰어내렸다. 수십대의 트랙포트가 줄을 지어 서있기때문에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트랙포트의 운전칸에서 이미 인사를 하여 낮을 익힌 관리위원장이 뛰어내렸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조원이 급히 다가가며 물었다. 그의 물음에 관리위원장은 털모자의 귀덮개를 올리며 히죽이 웃었다.

《사실은 소조원동무 생각대로 래일부터 여기 이 공사에 총동원되게 되어있는데 아까 소조원동무가 여기 나온 다음에 다시 토론이 있었수다. 요즘 하루가 불같은데 어떻게 래일까지 참겠는가고말입니다. 그래서 농장원들에게 호소를 했더니 이렇게 떨쳐나서는 바람에...》

관리위원장이 난처한 기색을 지으며 히죽이 웃자 소조원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곁으로 다가온 우리들에게 트랙포트들과 그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는 농장원들을 가리키며 궁지에 넘쳐 말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농장원들의 기세가 바로 이런습니다. 이런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끈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작가동지들은 아마 이해할겁니다.》

우리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다. 그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바로 그것까지도...

밭에서는 새로운 전투가 벌어졌다. 사람들이 뛰고 트랙포트들이 달렸다.

우리도 숨옷들을 벗어던지고 그들속에 끼여들었다.

밭들이 달빛을 태우는 화불속에 잠겨있었다.

당이어 내 그대를 어머니라 부름은...

럼우봉

내 입당하던 날은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던 때,
전선도 후방도 결전의 대렬을 짜던
1950년 10월이었다

불기둥이 솟고 흙먼지 쏟아지는 참호속에서
가까와오는 적 포성을 들으며,
심장의 고동 들으며
한자한자 입당청원서를 쓸 때
당이어, 내 비로소 알았구나,
다심한 어머니가 아들의 미래를 키우듯
가장 간고한 그 시각을 위하여
그대 그렇듯 나를 키워왔음을.

그대가 나에게 준 첫 임무는
전선도 먼 적후에서
조국을 지키라고
이 땅위의 모든것을 지켜내라고...

적진은 가깝고 당중앙은 멀었다,
그러나 멀수록 마음속에 가까운 어머니처럼
그대는 가장 가까이 나의 심장속에 있었나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는 아들이 되어
적진을 향해 령을 내렸다.

내 등을 떠미는 어머니의 손길 느끼며 당을 느끼며
원쭉치며 넘나든 산발들은 얼마던가...

적진으로 육박하다 흉탄에 쓰러졌을 때도
그대는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나를 기어이 다시 일으켜세웠거니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신 승리의 열병장에서
땀을줄 모르는 감격의 눈물로 두볼 적시며
그이 앞을 받들어총으로 걸어나아갈 때
당이어, 내 다시금 깨달았구나,
조국의 가장 간고하던 그 나날에
그대 어머니의 진정으로 나를 안아 이끌어온것은
아버이수령님을 목숨으로 받들어가는
그대의 장한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커갈수록 가슴가득 어머니의 정 사무쳐오듯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당에 대한 생각
당은 나에게
외진 적후에서도 넓은 조국을 주고
적탄도 쓰러뜨릴수 없는 생명을 주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토록 모실 큰 심장을 준
아, 자애롭고 거룩한 어머니!

당이어, 나는 이때문에, 이때문에
그대를 어머니라 뜨겁게 부른다.

당이어,

나처럼 수수백만 아들을 키워낸 그대 어머니당이
여...

밤하늘엔 별무리 찬란하고...

림종근

흘러간 당생활의 영광의 자욱인가
야영지 밤하늘엔 별무리 찬란한데
저기 당회의 열리는 불빛은 천막으로
귀밀머리 희숙한 한 장령이 걸어간다
조국을 받들어 산밭을 넘으며 땀에 젖은 군복자락
서늘한 바람결에 조용히 펄럭이고
 옮겨딘는 발밑에선 가랑잎 부서지는 소리...

장령아바이, 로동당원이여
짚신감발에 베짚뽕이를 걸치고
보병총구조를 익히던 평양학원의 어느날이던가
학원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를 우러르는 두볼에 흐르는 눈물
어린애처럼 주먹으로 흠치며 흐느끼던 일-
감격의 그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 긴 세월
참으로 멀고도 준엄한 길 걸어왔구나

구름처럼 밀려드는 포연을
돌격의 함성으로 밀어던지며
걸음걸음 해방구역을 넓혀가던 남진의 길,
달려드는 승냥이무리 푸서기처럼 짓밟아버리고
조국의 하늘가에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던
영웅의 1211 고지와 351 고지...

아! 잊지 못할 영광의 지점들에서 울리던
불같은 충성의 맹세로
열어온 피의 돌격로들을 더듬는가
원수를 복수할 당결정을 가결하던 손으로
무자비하게 미제를 치던 백병전장을 생각하는가,
장령의 눈언저리에 물결치는 사색의 바다

땀에 젖은 아버지의 앙상한 등에 업혀

뜨내기로 흘러간 유년시절의 고통만이라
여기서 머슴살이, 저기서 노예살이
모진 풍파에 숨져가던 그를 한품에 안아
영생의 정치적생명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당의 고마움 뼈속깊이 느낀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온 충성의 삼십년이여,

어느 한번도 당의 믿음 어긴적 없이
기동처럼 우리 당을 받들어온 장령아바이!
진정 그의 참된 당생활을 증명하는가
그가 피흘려 사수한 영웅의 고지들이
걸어가는 그의 앞에 우줄우줄 다가오누나
저기 영웅전사들의 땀과 피가 스민 마을들에
무수한 행복의 창문들이 반겨웃누나

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받들어
걸어온 빛나는 세월,
조국땅우에 솟아오른 창조와 행복의 기념비들은
그가 바쳐온 충성과 영광의 나날을 안고
찬란히 빛을 뿌리는가,
진정 당을 위해 바치는 삶은 영원하구나

이제는 귀밀에 흰서리 내렸건만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며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당생활의 발걸음을 떼여가는 당원의 마음
이여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혁명의 길 더 먼
아아 그의 앞길을 축복하는듯
밤하늘엔 별무리 찬란해라!

영원한 사랑의 젖줄기

윤석범

조국땅 한끝에서 한끝까지
굽이굽이 천리런가, 만리이런가!
다락밭 줄기줄기 만갈래에
출렁이며 감돌아오르는
장엄한 발판수의 흐름이여!

이 나라 논벌을 다 적시고도 남는
풍만한 수리화의 물굽이
그물처럼 얹히여 돌아간다
인민의 행복 안고 해빛을 안고
끝없이 파도쳐가는 관개의 대하!

10 월전원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연개조 5 대방침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
하늘과 맞닿은 저 발머리끝에도
단풍의 생명수 철철 보내주시어라!

산이라, 들이라,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걸으신 자옥자옥 물길을 열어주시고
인민의 소원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이제는 나머지 기슭에 언덕위에 산등성이마다에
안겨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젖줄기!

이 나라 수천년 땅의 역사에
그 언제 이런 고마움이 있었던가!
제아무리 천지조화로
하늘에서 타는 불벌을 내리쏟아도
조선의 논밭에 영영 가물을 모르는
물풍년, 쌀풍년 마련해주신 어버이 그 손길이여!

그 사랑속에
변혁의 산기슭마다 새노래 높아가고
공업화의 천리벌
산간의 대관개망

포전마다 물고 활짝 열어놓은
무연한 교랑들이 오곡의 바다 안고 설레인다.

그 은덕속에
억년 흉작을 모르는 나라
때없이 얼어드는 땅도
더운 김 뿜어 녹아내리고
랭상모판 영양단지
찬서리 바람속에 푸른 잎을 돋치여
한랭을 모조리 이겨내는 사회주의 우리 농촌

대동강도 그 기쁨속에 흐름을 거슬러올려라
채령강도 그 행복속에 젖줄기를 뿜어올려라
조국땅 어데나 흥치며 뻗어가는
수만갈래 물줄기를
다락밭 이랑이랑 흐뭇이 짚어보는 이 마음이여!

뜨거워라, 은혜로워라
흘러도는 물길을 휘감고
산허리도 만풍의 옷자락 펼치며 설레이는가!
밭길 천리, 물길 천리, 사랑의 굽이굽이!

아, 남은 한뼘기밭을 찾아 마지막 물길이 흐르고
못다적신 한알의 싹을 찾아 사랑의 젖줄기 닿고
1,000 만톤의 가을을 부르며
따사로운 봄빛을 안고 숨쉬는 조선의 산과 들이여!

여기서
충충 다락밭 저 이랑끝까지
영원한 단풍의 황금벌을 펼쳐들고
여기서
산간마다 굽이치는 사랑의 대하
주체농법 승리의 노래 온 세상에 높이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산도 들도 공산주의 모습을 닮아간다.

다락발에도 기계화의 봄이

리근지

온몸에 휘감기는 싱그러운 흙냄새
그리워 차마 못건디게 그리워
내 트랙토르를 몰아 여기에 올랐는가
산에도 산상
층층 다락발에

검붉은 가슴 풀어헤친 긴 밭사래우에
트랙토르 운전대를 잡은채
구름속에 울려가는 기계소리
기계소리 새겨가는 내 마음
뜨거운 이슬에 젖어든다

불볕아래 가대기를 끄올며
피눈물 뿌리던 부모들 옛일이사
아득한 꿈속처럼 땅속에 묻혔건만
내 이 땅에 나서자랐기에
이 좋은 날 좋은 세월을 맞아
전변하는 이 산촌과 함께
내 마음 이토록 기쁨에 젖는것인가

청고운 처녀들 노래 싣고
다락발 층층에 무쇠자욱 찍어가는 기계소리
이 땅의 웃음소리여
이 땅에 오는 봄의 첫 웃음소리여

저 앞내벌을 트랙토르에게 내주던 그날
내 소몰아 구름속의 비탈밭에 오를 때
천만년 가도 이런곳엔 기계가 못오리라고
이라길길 살진 소잔등에 채찍을 얹으며
무거운 보탑을 밀며 단숨을 뿔었더니

해별이 뛰노는 파아란 강냉이잎사귀
가볍게 흔들며 오가는
강냉이모 윽기는 기계우에
이 고장 농민들 행복에 겨워 웃고
노래처럼 젖어드는 기계소리
둥근 하늘가에 비껴가누나

아,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3대혁명의 빛발이 넘치여
변하고 또 변하는 이 산촌
다락발 이랑우에도
기계화의 봄이 푸르려

손에 흙물이 배고 풀물이 절던 나에겐
기름냄새 풍기는 트랙토르 운전대를 쥐여주고
철이 다 가도록 묵은 땅이
풀에 묻히던 이 더기엔
철을 당겨 오곡이 푸르른 기름진 벌...

평생에 한껏 마시고싶던 이 땅의 흙냄새
온몸에 구수히 휘감겨
내 마음 이리도 휘정인스나
고마움에 젖어 꿈만 같은 고마움에 젖어...

아, 모든것이 새로워진 다락발우에서
나는 트랙토르를 몰아 밭을 간다
힘든 일의 마지막 흔적조차
시원토록 갈아엎으며
이랑이랑 로동의 새 노래를 엮어가며-

이 기쁨 이 영예여

박성선

흰눈 덮인 아득한 벌판
불도젤 몰아가노라, 연연히 줄지어
와르릉와르릉 울려가는 발동기소리
어버이수령님 뜨거운 사랑이 펼쳐진다고
기뻐서 온 들판을 울리며 흔드는듯...

번쩍이는 삽날 깊숙이 박아

높은데는 깎아내고 낮은데는 메워
흙을 밀어나가니
천년만년 거울마다 눈속에 있던 땅도
와- 환성을 터치는듯
딩굴며 밀려가는 흙덩이 흙덩이

내 마음도 진정 기뻐 어쩔바 모르겠구나

눈보라 세차게 이는 이날 이때
 어버이 뜨거운 사랑이 넘쳐온다고
 웃음의 입김인양 서리서리 풍기는 흙김에
 이 가슴도 감격에 부풀어 후더울구나

땅이여 땅이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푸시여
 기름진 옥토벌을 주실제
 크나큰 사랑에 목이 메어
 아버지가 감사의 뜨거운 눈물 흘린곳이여

흰눈이 하얗게 쌓인 이 겨울
 봄빛보다 더 따뜻하게 기쁨을 꽃피우며
 위대한 사랑이 또 펼쳐지누나
 우물구불한 보둑 그 오랜 주름살을 펴며
 한껏 웃고 떠들며 젊어지는 땅이여

불도젤 삽날앞에 태어나는 새 농장벌

훈훈한 봄향기도 풍길듯 싶으랴
 이제 하늘에 맞닿은 들판 저 끝까지
 기계로 씨앗을 포기포기 심고
 사랑의 농약을 실비처럼 차분히 뿌리리라

힘든 로동은 영원한 옛말로 되고
 농사일은 그대로 흥겨운 노래춤이 되리라
 가을이면 황금빛을 날리는 오곡이
 만풍년의 즐거운 춤을 추어
 이 벌은 언제나 흥치며 설레이리라

벌은 예대로 내려오는 그 벌이여도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오늘은 기계로 화학으로 농사를 짓는
 곱으로 넓어진 만풍년의 새벌로 되거니
 아, 인민의 기쁨을 후손만대 꽃피워가는
 토지정리 앞장에 선 이 영예 이 기쁨이여

조국강산이 설레인다

류국진

산이 좋아
 새들이 노래하는 숲
 물이 좋아
 고기떼 옥실대는 강
 산도 물도 아름다운 강산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이 땅은 어디 가나 환희로와
 산에 가면
 달디단 과일향기 가슴에 젖어들고
 들에 가면
 구수한 낱알향기 취할듯 풍기는
 풍요한 내 나라

한그루의 나무도
 흐르는 강물도
 위대한 수령님 안겨주신 사랑이기에
 가꾸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
 그리도 뜨거운것이 아니나

봄빛질은 산기슭
 밤새에도 흙썩 자라오른
 어린 나무모를 어루만지며
 관리공처녀의 눈동자엔 기쁨이 빛나고

숲이 설레이는 소리에도
 흐뭇한 미소를 날리는 산림보호원아바이
 무성하는 저 숲처럼

온몸엔 젊음이 약동하는듯
 진종일 걸어도 다가서는 풍만한 산들에
 더 넓혀갈 기름나무기지를 생각하며
 산길을 걸어간다

사품치는 강줄기를 따라 백리
 산맥처럼 뻗어가는 제방우에
 청년돌격대의 기발이 불길처럼 날리여라
 우람찬 기계의 대군단이
 강바닥을 파올리며 나아가고
 강산은 전변에 찬 나날을 안고 설레인다

어디로 가나
 깊은 계곡 산비탈도 푸른 숲속에 포근하고
 어디로 가나
 푸른 하늘 꽃밭속에 묻힌
 공장지구와 다층주책거리들
 인민의 행복이 주렁지는 강산이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꿔주신다
 비바람에 잃을세라
 가물에 말라터질세라
 꽃버들로, 푸른 소나무로
 억척같은 백리 긴 제방으로
 인민의 보금자리 지켜주시며
 한치의 땅도
 인민이 사는 조국임을 깨우쳐주시며...

가사 《3 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에 대하여

장영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해의 전투적강령을 충성의 심장에 받아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들 가운데는 노래 《3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도 들어있다.

이 노래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는 혁명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친근감을 함축된 시적인 어와 경쾌한 선율로 잘 보여준 서정가요이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음악적감흥을 통하여 깊이 느끼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당이 3대혁명소조를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한 다음부터 더욱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큰 역할을 놓고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내고 그들을 주체의 세계관을 가진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근로자들을 높은 문화기술을 소유한 문명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전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노래 《3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의 가사는 3대혁명수행에서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이러한 역할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준 서정가사이다. 그러면서도 이 가사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내용을 단순히 소개만 한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관계를 파고들면서 3대혁명소조원들이야말로 3대혁명이 벌어지고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혁명동지라는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충성의 한길로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미더운 동지를 가진다는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상하종속관계가 아니라 동지적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간의 관계라야 그들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합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믿고 도우면서 그 모든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3대혁명소조원들이야말로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경제문화생활에서 가장 친근하고도 미더운 혁명동지로 되고있다. 그들은 공장과 농촌의 여러 부문에 나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한덩어리로 되어 생활하면서 그들을 혁명적동지애로 따듯이 돌봐주며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투쟁으로 친절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따라서 노래 《3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의 가사가 3대혁명소조원을 단순히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일군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의 미더운 혁명동지로 된다고 강조한것은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적특징을 심오히 분석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 가사가 제기한 사상주체적과제의 참신성이 있다.

가사의 제1절을 들어보자.

언제나 마음속을 터놓고싶은
그대는 참다운 혁명동지
자나깨나 수령님의 사상 받들어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네
아 3대혁명 우리 소조원
수령님 보내주신 혁명의 전위

여기서는 사상혁명수행에서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있으나 그 어느 한 시구도 추상적인 구호나 일반적인 개념을 직선적으로 열거한것이란 없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의 보람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할 일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밤을 새우며 고민하는 선동원도 있을것이며 때로는 자기의 준비정도로서는 남의 비판이 잘 접수되지 않아 피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그런 피로운 심정을 그 누구에겐가 털어놓고싶어하며 그에게서 따뜻한 방조를 받고싶어한다.

그런데 3대혁명소조원들이야말로 그들의 이런 심정을 그대로 터놓고 속 시원히 이야기할수 있는 미더운 동지들이며 따뜻한 방조를 받을수 있는 친근한 혁명동지들이다.

그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그 어떤 행정적직책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관관계를 맺고있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지적관계에 놓여있으며 항상 생산현장과 협동농장벌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무으시고 보내주신 혁명전위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교양하는데서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진심으로 받들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3대혁명소조원을 가장 친근한 우리 소조원으로, 언제나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있는 문제를 내놓고 토론하며 방조를 받을수 있는 귀중한 혁명동지로 부르고있는것이다.

가사는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이러한 심정을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는가를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차넘치게 하는 길잡이로 되고있을뿐아니라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3대혁명소조의 중요한 구성인원으로 되고있는 과학자들과 청년지식인들은 뒤떨어진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을 분간할수 있을뿐 아니라 낡은 기술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것을 취하려는 혁명성이 매우 강하다.

그들은 노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그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낡은 기술을 새것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힘과 용기를 주며 필요한곳에서는 자기들이 술선 어렵고 힘든일의 앞장에 서고있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나가있는곳에서는 언제나 노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게 된다.

가사 《3대혁명소조원 우리 소조원》의 제2절은 기술혁명수행에서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이러한 역할을 보여주고있다.

잠시라도 헤어지면 만나고싶고
만나면 새힘 주는 미더운 동지
자력갱생 혁명정신 가슴에 안고
기술혁명 지름길로 이끌어주네
아 3대혁명 우리 소조원

수령님 보내주신 혁명의 전위

보는바와 같이 제2절에서 그려진 《잠시라도 헤어지면 만나고싶》을뿐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새힘을 받게 되는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친근감은 제1절의 《언제나 마음속을 터놓고싶은》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잇닿아있다. 그들이 없이는 생활의 그 어느 한 구석이 빈것같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속에 품고있던 문제들을 서슴없이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조국통일의 대사변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참담고 미더운 혁명동지들로 되는것인가.

3대혁명소조원들과 함께라면 우리 근로자들은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수 있으며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어도 그것을 용감하게 극복해나갈수 있다.

가사의 제2절은 바로 기술혁명수행에서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동지적역할을 이렇듯 강조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처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사업과 그들을 기술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립과 함께 선진과학과 문화기술지식을 보급하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놓고있다.

학습과 노래로 꽃피는 생활
수령님의 뜻으로 안기여주네
공원과 궁전으로 락원 세우며
문화혁명 밝은 길을 펼쳐나가네
아 3대혁명 우리 소조원
수령님 보내주신 혁명의 전위

가사의 제3절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확립하고 락천적인 문화생활을 조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기술지식수준

을 급격히 높이도록 할뿐아니라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 구내와 주변을 공원과 같이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는 내용을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이처럼 노래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3대혁명소조원이 얼마나 다정하고 귀중한 동지들인가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인간 감정을 통하여 잘 그려내고 있다.

동시에 가사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추진시켜나가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고 《기술혁명 지름길로 이끌어주》며 《문화혁명 밝은 길을 펼쳐주》는 참다운 혁명동지라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3대혁명소조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사의 시행들을 더듬을수록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친근감을 더욱 두텁게 가지게 되며 그들과 함께라면 3대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다지게 된다.

오늘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고나가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전개하고있다.

우리는 3대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전위, 3대혁명소조원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할것을 다짐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다양하게 노래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의 영예를 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가사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관점문제

리명

출근시간까지는 아직 두어시간 남아있었다. 그러나 설계원 림연화는 여느날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렀다. 그는 작업복이며 밥곽이며를 가방에 챙겨넣고 해가 퍼지기전에 집을 나섰다. 그에게는 오늘이 류다른 날로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저도모르게 걸음이 빨라졌고 마음은 벌써 탱크조립현장에 가있었다.

그는 어제저녁에 있던 기술참모회의에서 지금 본격적인 단계에 이른 1만립방탱크조립시공지도성원으로 새로 보충되었던것이다.

이 새 파제는 그를 몹시 흥분시켰다. 그것은 이제껏 쓸모없이 버려오던 공업 《폐수》를 재가공하도록 저장하게 될 거창한 탱크건설에서 한몫을 하게 되었기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바로 이 공사를 남편이 주관하고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더욱 흥분케 했다.

밤새 봄서리가 뽕양게 내려앉은 조립장어구에 접어들자 희뿌연 운무속에 거뭇거뭇한 형체만이 보이던 탱크의 둥근 지붕관이 금시 피어난 해빛을 눈부신 광채로 반사하고있었다.

탱크의 벽앞에는 이른아침부터 로동자들이 술렁대고있었다. 아마도 새로운 특보가 나붙은 모양이었다.

림연화는 호기심에 끌려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발돋움을 해가며 벽을 바라보았다.

《통이 큰 숨씨》라고 쓴 큼직한 글발의 윗부분이 사람들의 머리위로 바라보였다.

림연화는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언뜻 《주창세반장...》이라는 글발이 스쳤다.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남편의 이름이었던것이다. 속보의 내용은 주창세작업반에서 하루계획을 500프로 돌파했다는것과 그것이 성차지 않아 1000프로목표를 향해 돌진한다는것이였다. 림연화의 눈가에는 소리없이 웃음이 비졌다. 언제나 직장적으로 앞서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우뚝이 그려지면서 긍지감이 솟아올랐다. 이 속보 한장을 보고도 그는 현장의 거창한 숨결을 느낄수 있었고 남편의 숨씨를 가늠할수 있었다.

바로 그때 맨앞에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허, 우리 반장이 어때, 괜찮지!》

그러자 사람들속에서 속보를 읽던 날씬하게 생긴 처녀가 혼자소리처럼 무어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자기네 반장이 어떠냐고 묻던 청년이 처녀한테로 돌아섰다.

《금실인 뭐 철관때문에 뺄풀이하는거야!》

청년이 소리치자 처녀는 발끈해졌다.

《동문 어쩔 반장아저씨를 꼭 닮아가요.》

처녀는 무엇이 그리도 분한지 앵돌아진대로 저만큼 걸어갔다.

청년은 더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의 뒤만 바라보았다.

연화는 놀랐다. 남편을 두고 한 그들의 대화는 가슴을 서늘케 했다. 높이 평가한 속보, 속보를 비웃는 처녀의 목소리, 아무 대꾸도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청년...

(그 처녀가 왜 남편을 비난할까? ...자재때문에...?)

림연화는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어려운 모퉁이마다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치는 그가 아닌가?

처음부터 어렵게 제기되었던 만립방탱크공사만 놓고봐도 그러했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 《폐수》를 재생하여 쓸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뒤늦게 공업 《폐수》를 재생한다면 여기로부터 막대한 전력, 연료, 로력이 절약될뿐아니라 작업공정이 훨씬 앞당겨진다는 기술적 타산이 서게 되어 드디어 공사가 시작된것이다. 이 공사는 방대하였다. 그런데 이 탱크건설을 두고 누구도 선뜻 말아나서기를 주저하였었다. 그러한 때 불쑥 남편이 말아나섰던것이다.

그러한 남편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른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처녀가 잘못 알고 그러겠지.》

처녀의 비난을 가볍게 가라앉힌 림연화는 남편을 돕게 된 기쁨속으로 되돌아가며 걸음을 옮겼다.

교예극장을 방불케 하는 원형탱크조립장은 한참 들끓고있었다. 철관 부딪치는 요란한 소리, 휘여든 만곡부분에 쇠메를 먹이는 공굴은 소리, 붕붕 용접 봉타는 소리, 성급한 호각소리... 완만한 경사를 이룬 탱크 안벽에서는 철관대기가 한창이였다. 그아래 마름장에서는 마름공들이 능란한 숨씨로 고기비늘처럼 희번뜩거리는 철관을 짝짝 째여 용접공들에게 넘겨주고있었다.

림연화는 온몸을 휘감는 역센 기운을 느끼며 로동자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었다.

《기다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우리 반장동무가 혼나우다. 작업조직을 할래, 자재도 보장할래... 손이 여간 딸리지 않지우다. 이젠 한시름 놓게됐수다.》

로동자들은 허물없이 림연화와 이야기했다.

《자 그럼 우리 지봉판조립장부터 봐주우다.》

나이 든 한 제판공이 입심종게 말하자 다른 로동자가 막아나섰다.

《아따 령감두 안벽철판대기는 뒤두고... 반장이 알면 코를 때우겠수다.》

《하하하...》

이때 한쪽이 훤히 트인 조립장으로 자재운반차가 들이닥치며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다. 운반차코승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와르르 철판을 쏟아놓았다. 차우에서 허우대가 큰 장년이 성큼 뛰어내렸다.

남편이었다. 시원스레 팔을 걷어붙인 그는 부리워놓은 넓은 철판 한장을 잔등에 지었다.

그의 등에 업힌 철판이 약간씩 움썹거리더니 랑끌머리가 부채질하기 시작하였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자 철판은 걸음발에 장단이라도 맞추는듯 푼터덕푼터덕 춤을 춘다. 발을 딛기가 말쑥여진 그는 이번에는 랑팔을 뻗쳐 철판끝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겼다. 그대로 경사턱까지 닿은 그는 엉덩이로 등짐을 푹 밀어제끼었다. 철판은 땅우에 와당탕 태질을 하였다. 그는 놀리워진 모자채양을 올리밀며 숨을 들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더운 김이 피어올랐다.

《두칠이 오늘중으로 그쪽은 마쳐야 해!》

남편이 안벽장에 대고 소리를 치자 벽에 붙어 지저대던 용접공이 뒤집어쓴 바가지를 올리제끼었다. 뜻밖에도 그는 금실이와 다투던 청년이었다.

《탄약이 없어요 탄약!》 두칠이의 대답소리가 안벽에 부딪쳐 메아리쳤다.

《탄약? 하하하... 또 한차 실어왔어. 자 받으라구!》

주창세가 방금 지어온 철판을 경사턱에 들었다놓자 철판은 스프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두칠은 발판우에서 환성을 지르며 꺽충거렸다. 그 모양에 주창세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꺽걸거렸다.

림연화도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운반차옆에서 남편의 움직임을 말없이 바라보는 처녀가 있었다. 빨간수건을 머리에 쓴 당돌하게 생긴 그 처녀는 아까 속보판앞에서 보았던 금실이었다. 남편의 거동을 못마땅하게 살피던 금실은

철판무지에서 얼마큼 빼어져나간 철판들을 끄으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림연화는 얼른 뛰어가 철판의 다른쪽 귀를 거들어주었다.

《누구세요?》

처녀는 눈이 울롱해서 림연화를 이윽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여기 시공을 맡았어요.》

《그래요. 전 자재운반공이랍니다. 말하자면 탄약공급수예요. 호호...》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림연화는 처녀와 몇마디 건네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달랐다. 처녀는 싱싱한 푸른 잎새처럼 청신한 기운을 뿜었다.

《왜 당장 옮길 철판을 가지고 힘내길 해요?》

《네?!》

금실은 이상한 물음이라는듯 눈이 둥그레졌다. 그리고는 호- 하며 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마구 다루어서야 되겠어요...》

이때였다.

《금실이, 여직 뭘하고있어!》

남편의 큰 소리였다.

《어마나, 네- 가요!》

금실은 황급히 자재운반차에 뛰어올랐다. 그는 림연화에게 생긋 웃어보이며 배기가스를 달고 사라지었다.

《하하하, 참 깜찍한 처녀라오...》

주창세는 빙긋이 웃으며 사라지는 금실을 바라보다가 안해한테로 다가섰다.

《그래 뭐 좀 생각되는게 있소?》

《힘이 솟는군요.》

《그럴테지. 여보 안벽조립에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중간총화전으로 마쳐려는 결심이요.》

《중간총화라니요?》

《이제 공사중간총화를 하겠단우만. 허, 나보구 경험토론준비를 하라니 이것참 야단났소. 한쪽벽면이라도 끝내야겠는데... 암만 타산해도 5미리철판에 목을 매울것 같애.》

《철판이 없나요?》

《자재보장이 우리를 따라서지 못하는구려. 하긴 창고에 6미리철판이 있지. 도면을 그쪽으로 돌리면 멋있는데... 당신 좀 힘써보오.》

《제가요?》

《전반적인 구조물의 힘이 달라지니까 도면을 수정해야지. 왜 자신없소?》

《아, 아니예요.》

《허허 그럼 부탁하오.》

림연화는 무등 기쁘기만 하였다. 조업을 앞당기기 위해 분망히 뛰는 남편의 첫 부락을 림연화는 기쁘게 받아안았다. 그는 곧 도면지우에 온 녀를 물으며 수정작업에 달라붙었다. 현장사무실의 창가에는 남편의 큰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녀인의 그림자가 밤이 깊도록 어른거리었다.

계산하고 굿고...지우고 굿고... 림연화는 미구에 장입될 《폐수》의 압력이 가장 심하게 미치는 탱크의 아래면에 6밀리철판을 넣으려고 애썼다.

똑똑똑...

이때 느닷없이 울리는 문기척소리에 림연화는 도면지우에 놓여있던 ㄱ자를 세웠다. 금실이 방글거리며 조용히 들어섰다.

《아이 금실이였군요.》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싶었던 그였다. 연화는 조용한 시간에 금실이와 만나게 된것이 기뻐다. 그는 금실에게 자리를 권했다. 금실은 들어선채로 서서 방긋 웃었다.

《저 꼭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금실은 사뭇 미안쩍어서 머뭇거렸다.

《어서 말해요.》

《언니? 마름질하다 규격이 맞지 않아 내는 철판으로 안벽을 댈수는 없을까요?》

《그건 왜요?》

《마름장에서 나오는 규격이 작은 철판들이 여간 많지 않답니다.》

《호호 금실인 철판근심을 하는 모양이지? 걱정말아요. 창고에 있는데...》

《아이참 창고에는 6밀리짜리밖에 없어요.》

《6미린 철판이 아니예요?》

《호호 참 언니두 통말을 곧잘 하시네 6미리를 쓰면 1밀리철판은 손해보는데...》

처녀는 짐짓 나무라는듯 눈을 꼭게 흘기었다.

《1밀리?!》

《언니 꼭 쓰도록 도와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금실은 연화가 더 말할 사이도 없이 들어설 때처럼 명랑한 기분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발자국소리가 자박자박 멀어져갔다. 림연화는 어리벉벉해졌다. 1미리를 두고 큰일인것처럼 찾아와서 간절히 말하고 문밖으로 나서는 금실의 부탁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지... 숙보판앞에서 비난하던 금실이 그는 이 공사를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아닐까

(그에게 공사속도로 납득시킬걸 그랬어.)

림연화는 때늦게야 떠오르는 생각을 뇌이며 다시 일손을 들려했으나 ㄱ자가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다. 어쩐지 처녀가 남기고 간 웃음은 한뼘으로만 모아졌던 그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일손을 놓고 조립장에 들어서던 연화는 분개하여 웨치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불빛이 흰히 비치는 안벽조립장에서 남편이 누구인가를 다긋고있었다. 불빛을 등지고 남편앞에 서 있는 사람은 두칠인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인가 손에 들고 서있는 처녀는 금실이였다. 그들은 필경 무엇을 잘못하여 반장을 노엽힌 모양이었다.

남편의 고함소리가 계속 귀따갑게 울려왔다.

《하루에 900프로라면 몰라도 고작 90프로라니... 온 기업소가 우리를 주시하고있단말이야. 엉뚱이에 불을 달고 뛰어도 시원찮은데... 누가 자재걱정을 하랬어?》

《야, 그럼 규격타발을 하면서 이걸 생필직장으로 보내야 옳겠어요.》

《뭐라구?!》

금실이 주어진 철판을 내려다보며 말하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대답질이나는것이다. 그러자 옆에 섰던 두칠이가 처녀의 옷자락을 슬슬 나누었다.

《자 이 동무 봐라. 그래 이 철판을 내버리는거요? 생필직장에 보내면 어떤 귀중한 제품들이 나오는지 동무들이 모른단말이요? 나도 당정책의 집행자요.》

《네?!》

《그러다가는 <폐수>압도 문제지만 공사속도가 문제란말이요.》

남편의 어성은 너무 높은것 같았다.

《.....》

금실은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말고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큼 지나자 작업장에는 금실이만이 남았다. 처녀는 어깨를 가볍게 들먹이였다. 이윽도록 설음을 쏟던 그는 흠어진 쇠판들을 다시 주섬주섬 모아 나갔다.

림연화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한가득 피어올랐다. 며칠전에 받은 처녀의 부탁을 잊지는 않았지만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내온 그였다. 어쩐지 자기의 잘못으로 금실이와 두칠이가 욕을 본것 같아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처녀가 하는 일은 언뜻 림연화에게 하나의 실머리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작은 철판을 한꺼번에 여러장을 땅에서 조립하면 속도는 별반 지장이 없음직했다.

《아이 언니군요.》

인기척에 허리를 편 금실은 아무 일도 없은듯 방긋 웃었다.

《수고하누만요.》 림연화는 따뜻한 말로 처녀를 어루만져주고싶었다. 《요즘 바쁜 모양이군요.》

금실은 금방 벌어졌던 일을 연화가 본것 같아 부끄럼을 타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전번에 부탁한것이 안되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림연화는 금실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고 한쪽으로 갔다. 언제건 이야기하고싶었던 참인지라 연화는 금실이와 나란히 앉았다.

그들의 머리우에는 별무리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매만지며 지나갔다.

《금실이 그것때문에 울었어요?》

《다 보셨군요. …언니, 이 철판들을 어떻게 생필직장으로 보내겠어요. 규격이 안맞는다고 큰 철판만 찾으면…》

처녀는 안타깝다는듯 철판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저 구호를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호소하듯 절절하게 울리는 금실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대로 림연화의 가슴을 찌르르 울려놓았다. 《금실이, 나는 금실이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알았어요… 저 이 철판을 땅에서 여러장씩 모아붙이면 어떨까요?》

순간 처녀의 눈에서는 강렬한 빛이 반짝하였다.

《아이, 정말!!》

금실은 손뼉을 찰싹 치며 환성을 올렸다.

《참 언니, 난 왜 그걸 생각못했을까요.》

《아니 이걸 내 생각이 아니예요. 금실이가 그렇게 하도록 일깨워줬거든요.》

《호호, 언니두 내가 어린앤줄 아나봐. 그런데 용접면이 수압에 견디여낼까요?》

《어디 래일 한번 해봐요.》

《그래요!… 아니, 안될거예요.》

밝던 처녀의 얼굴이 인차 어두워졌다.

《…?!》

《우리 반장아저씨가 승인하지 않을거예요. 반장아저씨 그런것쯤은 안중에 없어요. 그저 큰것만 찾지요 뭐.》

《아니 그렇지는 않을거예요.》

림연화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처녀는 무엇인가 오해하고있는것만 같았다.

《언니 처음 왔으니 모를거예요. 물론 우리 반장아저씨 시원시원하고 통이 커서 좋아요. 하지만 반

장아저씨가 쥐고다니는 통은 늘 구멍이 뚫린것이 아니겠어요.》

《………》

림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리 더 들을수가 없었다. 처녀의 말을 깊이 새겨볼수록 남편은 요란한 소음을 울리는 빈 통만 굴리는것 같았다.

이튿날아침에 림연화는 현장에서 침식하며 보내는 남편앞에 갈아 입을 옷가지들을 내놓으며 조용히 말을 비쳤다.

《저… 규격이 맞지 않는 철판들을 모아붙이면 어떨까요?》

《뭐?!》

주창세는 금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말고 무릅손을 멈추고 안해를 쳐다보았다. 이마에 세운 굵은 주름은 《당신도 그 소리요?》라고 묻는것만 같았다.

《그래 도면수정은 어찌고 금실이와 짝을 무을셈이요?》

《수정도면은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두칠동무도 그렇고 모두들 좋아하는데요.》

《뭐 두칠이도 좋아한다구?!》

간밤에 주창세는 금실이의 휘동질에 작은 철판을 모아붙이다 계획도 못하고 오작만 낸 두칠이를 개별적으로 불러다놓고 되게 달구였었다.

두칠은 머리를 수긋하고 한마디 말도 못했다.

주창세는 그가 심각히 뉘우치는것으로 믿고는 저으기 누그러진 마음으로 잔등까지 두들겨서 침실에 들여보냈었다. 그러한 두칠이가 또 돌아다니 모를 일이었다.

《그럼 다닥다닥 기운 벽이 압을 막아낼것 같소?》

《그래서 한번 수압시험을 해보자고 해요.》

《도대체 기술을 안다는 사람의 소리가… 공사를 보장하려면 어느 하가에…》

주창세는 어이가 없었다. 당장 조업을 못하여 입게 될 손실은 보지 않고 저희들만 나라살림살이를 걱정하는것처럼 들이대는 젊은패들은 그렇다치고 그속에 어느새 휘말려들어간 안해가 더 못마땅하였다.

《그럼 어디 시원히 해보구려.》

주창세는 고집스레 서있는 안해를 흘금 쳐다보다가 어깨에 바람을 일구며 자리를 뺐다.

림연화는 한자리에 못박힌대로 현장쪽으로 떨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진정한지 아니면 분풀이인지 도무지 짐작할수 없었다.

그날 해질무렵이었다.

안벽조립장에서는 작은 철판들로 무어낸 용접한 자리에 대한 수압시험을 벌리었다. 림연화의 신호에 따라 금실이 물압발브를 조종하면 두칠이는 호스의 끝머리를 철판 가까이에 들이대었다.

췌- 고무호스에서 내뿜는 드세찬 물살이 안벽에 부서지며 뽀얀 물안개를 말아올렸다. 소방사수처럼 턱을 가슴에 틀어박고 버티던 두칠이가 강한 물압에 못이겨 비칠거리었다. 그러자 초조한 눈빛을 보내던 금실이 달려가 함께 잡으려고 덤벼쳤다. 그통에 호스의 끝머리가 우로 들리면서 그들의 머리에 물사태를 썩혔다.

《저리 비켜!》

두칠이가 꾸꾸 얼굴을 흠치며 눈을 부라렸으나 금실은 그런것쯤은 개이치 않아하였다.

췌-탕탕...

팔목시계에 눈길을 모으던 림연화는 속이 한줌만 해졌다. 맞은편에는 남편이 똑한 자세로 이쪽을 지켜보고있었다.

림연화는 까닭모를 야릇한 불안속에서 최대압신히를 보냈다.

금실이 뛰어와 쟁싸게 발브를 열었다. 우지직-우지직- 무어진 철판이 몸부림치었다. 초를 쫓는 초침바늘이 한돌기를 가까이할 시각이었다. 용접한 그 사이로 물기가 습배였다.

《터진다!》

다급한 웨침이 공기를 찢었다. 이어 용접한 자리가 떨어져나갔다.

《앵이, 참》

두칠이는 투덜거리며 물호스를 아무렇게나 내치었다. 그바람에 허공에서 포물선을 굿던 물살은 시험관으로 털썩거리며 달려오던 주창세의 앞가슴을 들입다 갈겼다. 주창세는 때아닌 물벼락에 몸을 허우적이었다. 누구보다 당황해진것은 두칠이었다. 그는 물창을 질벽거리며 뛰어가 황황히 발브를 틀어막았다.

누런 흙탕이 게발리어 불모양 없이 된 주창세는 화가 정수리까지 뻗었으나 구멍이 평 뚫린 시험관을 흘기고는 근기있게 참았다. 자기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던것이였다. 어느덧 주창세의 두툼한 입귀가 실록거렸다.

《어떻소, 이제도 나를 나무라겠소?》

주창세는 휘주근해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한마디 던졌다. 모두가 머리를 숙였다. 민망스레 서있던 금실이라도 두칠이도... 그리고 림연화도.

주창세의 조소는 그들의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찢었었다. 모두들 말없이 흠어졌다. 림연화만이 못박힌듯 움직일줄 모르고 서있었다. 녀이 나간 사람처럼 물창에 찍힌 발자국들을 쳐다보고있다. 바빠

뛰어다닌 발자국들이다. 어떤 발자국은 길게 미끄러져나간것도 있다. 거기에는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금실이와 두칠이의 모습이 비쳐보이는듯 싶었다. 선명히 새겨진 그 모습우에 남편의 큼직한 발자국이 덧찍히며 안벽쪽으로 멀어져갔다. 림연화는 남편의 뒤를 바라보았다. 성큼성큼 헤엄치듯 걸어가는 남편의 걸음새, 그것은 모든것을 위압하고있었다.

남편은 결코 수압시험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대할수 있는가. 한그람의 철판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자는 로동자들의 간진 마음에는 아랑곳도 안한다. 비록 수압시험이 실패됐지만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자신은 당정책의 철저한 집행자라고 자부한다. 바로 그는 이런 식으로 실무적이었고 이런 식으로 《통이 큰》 사람이였다. 이것이 림연화의 가슴을 더욱 쓰리게 했다. 림연화는 남편을 새롭게 보았다. 제 남편이라고 그의 일에 대해 얹어놓고 긍정하던 자신이 뉘우쳐졌다.

(내가 왜 말 한마디 따끔히 못했담...)

림연화는 어쨌으면 좋을지 안타깝기만 하였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림연화의 젖은 옷자락을 흔들어놓고 지나갔다. 그의 옷에서는 아직도 물이 줄줄 흘러 발밑을 적시고있었다. 땅우에 길게 늘어져있는 호스를 저쪽에서 누가 사리는 모양인지 림연화의 발목을 감으며 끌리어갔다.

림연화는 아픈 마음을 애써 누르며 안벽쪽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아무래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주창세도 울컥했던 마음을 삭이는지 담배를 뺨뺨 뺨뺨 빨며 서있었다. 그의 숨결도 높아서인지 흰연기가 물씬물씬 내뿜겼다가는 끊어지곤했다. 그러한 남편을 마주하고보니 가슴이 활랑거리여 말을 할수 없었다. 림연화는 공연히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왜 따라왔소. 기술을 안다는 사람이 현장에 나오자바람으로... 자기를 처신할줄 알아야 하오.》

주창세는 안해를 보자 어느덧 측은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마음의 진정을 가질수 없는 모양이였다. 림연화는 남편의 말에는 나무람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6밀리짜리 철판을 쓰자고 도면수정에 달라붙었던 나도 잘못했어요.》

《뭇라구?!》

주창세는 안해에게 머리를 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사에 맞는 규격강재를 쓰며 한그람의 철판이라도 극력 절약하고 아껴써야 한다고 교시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자고 것처럼 애쓰는데 작업반을 책임진 당신이 왜 그걸 생각못 하나요.》

주창세는 무엇이라고 대꾸할듯이 안해를 쳐다보았으나 결국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연화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보듯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물론 우리는 조업을 늦추어서는 안돼요. 그렇지 만 작업반원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향을 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들을 비웃을수 있어요. 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하는것이 안타까와요. 당신이 그럴줄은 정말 몰랐어요.》

림연화의 눈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혔다. 다름아닌 남편에게, 그것도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고보니 자기도모르게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탁 메워움을 느꼈다.

남편은 피워물었던 담배를 획 내던지더니 무어라고 말할듯이 안해를 쏘아보다가 작업장밖으로 나가버렸다. 주위는 아무도 없었다. 연화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려 했으나 자기를 억제할수 없었다...

처음에는 남편을 돕게 된 기쁨으로 차있던 그것지만 지금은 피로움이 가슴속을 마구 허비였다.

《언니, 절 용서하세요.》

들먹이는 림연화의 잔등에 부드러운 손길이 닿았다.

언제 나타났는지 금실이 가 울먹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전 그만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를 괴롭혔군요. 저때문에...》

금실은 늦게나마 모든것을 눈치챈것이었다.

《아니, 아니예요. 금실때문이 아니예요. 금실인 정말 훌륭해요. 나도 금실이처럼 살고싶었어요.》

림연화는 치미는 걱정을 삼키며 처녀의 조그마한 손을 꼭 잡았다.

《언니!》

금실이의 오동통한 두볼에서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림연화는 그의 손을 가슴에 껴안으며 오래도록 놓을줄을 몰랐다.

처녀의 뜨거운 마음을 고스란히 심장깊이 간직하고싶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주창세는 작업반실에 들어섰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수압시험의 실패와 뜻밖에 맞서나서던 안해가 가슴에 그냥 맞쳐왔다. 그는 불쾌한대로 작업일지를 펼치였다.

하루실적을 기입하러니 기가 딱 막히였다. 오늘도 계획을 빠듯이 했었다. 그전에는 작업일지에 큼

직큼직한 수자들을 보기 좋게 적어나갔었는데 이즈음엔 그렇지 못했다.

그는 더 들여다보기가 역겨워 홀 덮어버렸다. 그저 가슴이 답답할뿐이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클 클하였다. 그가 성냥을 드욱 그어 담배를 붙여무는데 전화종이 울렸다.

지배인의 전화였다. 지배인은 공사형편을 간간히 캐물었다. 주창세는 잠시 머뭇거리다 넘려말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지배인의 음성은 사뭇 활기를 띠었다.

《요즘 다른 일이 제기되어 짬을 내지 못하니 아무튼 반장동무를 믿겠소. 허허... 그리고...》

지배인이 잠시 동안을 두자 주창세는 긴장해졌다.

《토론준비는 다 됐겠지?》

《아직...》

《허 어렵게 생각할게 있소. 당정책관찰에서 동무가 지금 하고있는대로 말하면 될게 아니겠소.》

주창세는 무엇에 찢리기라도 하듯 가슴이 띵끔했다. 굵든 공사를 놓고 평가를 받으니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 그래서 중간총화전으로 안벽조립만이라도 기어이 끝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아무튼 무엇이나 해놓고 칭찬받는데 좋았다.

헌데 철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시급히 6밀리철판을 쓸 대책을 세워야 했다.

주창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낮에 안해와 다투긴 했어도 자기의 립장을 몰라줄리는 없을것이었다. 일하느라 그런 때도 있을테니까 안해는 벌써 리해하고 수정도면에 손을 대고있을것 같았다. 만약 손을 안댄다 해도 독촉해서 오늘밤을 넘기지 말아야 할것이었다. 그는 밤을 빼어서라도 안해가 도면을 완성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연히 규격맞지 않는 작은 철판들을 가지고 어물대다가 일을 맡아먹을수야 없지 않는가.

그가 현장사무실로 달려갔을 때는 방안에 불이 꺼져있었다. 분김에 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업소로 들어갔는지 안해가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문에는 자물쇠가 잠겨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사무실앞에서 서성거렸다.

인적없는 조용한 마당에 혼자 서있느라니 어쩐지 낮에 안해가 울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해서 잔지고 주인다운 태도가 없다는 안해의 말이 옳았다. 이제 돌이켜보니 후회가 막심했다. 그는 자기의 사업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마음에 거슬리면 덮어놓고 큰소리를 치거나 욕하고 내밀어 작업반원들의 사기를 잃게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에 빚어진 사태가 아닌가.

류달리 생각을 종잡을수 없는 밤이었다.

밤하늘에 널려있는 조각구름들이 저 멀리 떼구름을 찾아 드바빠 흘러가고있었다. 주창세는 안벽조립장으로 향했다.

공장의 번두리를 끼고 도는 개울에는 눈석이물이 켜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의 발밑에서는 살얼음진 땅거죽이 와썹거리며 부서지었다.

얼마큼 지나서야 조립장에 닿은 그는 안해를 찾아 사위를 둘러보았다. 머리우에서는 용접불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내렸다.

눈부신 불광으로 대낮처럼 밝은 저쪽 안벽조립장에는 금실이와 두칠이가 오금을 꺾고앉아 바닥에 펼쳐진 종이마리를 굽어보고있었다. 주창세는 걸음을 멈추었다. 보아하니 시험에서 실패한 그 원인을 찾고있는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됐어, 됐단말이야!》 불현듯 두칠이가 철썩 무릎을 치며 엉덩이를 들썩이였다.

(되다니?!...)

주창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강구었다. 두칠이의 말소리에 뒤미처 금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땅에서 철관을 엿물려 용접하여 규격제를 만든단말이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 어떤 힘에도 끄떡없단말이야.》

주창세는 발목이 집힌대로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럴듯한 묘안이다. 계산이 필요한 그러한것도 아니지 않는가...

《언니! 됐어요. 성공이에요!》

금실이가 철관을 안고오는 연화에게 달려가며 웨쳤다. 연화는 철관을 내려놓고 금실의 손을 법석 잡아쥐고 흔들었다. 금실은 너무 기뻐서 토끼뺨을 뽀뽀하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정말 수고했어요!》

《아이참 언니두 우리가 뭐...》

《아니예요.》

연화는 옆에서 눈을 슴벅이고 서있는 두칠이를 정겨웁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난 동무들처럼 당의 목소리를 심장에 안고 흥분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못했어요.》

안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언니, 너무 그러지마세요. ... 참 반장아저씨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몰라...》 연화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예요. 기뻐할거예요.》

《.....》

그들을 지켜보고 섰던 순간 주창세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생각같아서는 달려가 그들을 와락 끌어

안고 함께 눈물이라도 흘리고싶었지만 그럴수도 없다. 그들을 마주할 면목도 없다. 어쩌면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못하는가. 가슴이 답답하였다. 머리속에서는 자기를 부정하여 《몰라...》하고 대답하는 안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간단한 대답이었으나 그것이 자기와 대중이 얼마나 떨어져있는가 하는것을 너무도 똑똑히 말해주는것이였다.

(아! 내가 무엇을 했단말인가?...)

주창세는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그 자리에 그냥 서있을수조차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뻔뻔한 사람처럼 허청거리며 걸었다. 걸으면서도 머리속에서는 무거운 자책과 반성이 계속되고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안길듯이 불어왔다. 그는 옷의 앞단추를 풀어헤치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얼굴을 들었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구호가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구호의 그 글자 한자한자가 깊은 뜻을 가지고 가슴에 파고들었다. 주창세는 불빛을 받아 빛나는 구호의 글발들을 정신없이 쳐다보았다.

자기도 늘 보면서 지나다니던 글발이였다. 자기가 먼저 이 당의 목소리를 받아안았다고 자부하던 구호였다. 그래서 성급하게 뛰어다니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보지 못했단말인가) 그는 당의 구호를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면서 생각하였다.

(파연 내가 저들처럼 당의 목소리를 안고 흥분했던가, 그것을 관철하자고 진정으로 몸부림쳤던가...)

당의 목소리, 그것은 흥분없이, 감격없이, 반아들일수 없는 영예로운것이고 실천에서 보람찬것이다.

몸으로 심장으로 안으라!!

주창세는 그들먹이 피어오르는 뜨거운것을 넘기었다.

갑자기 안벽장에서 봉- 용접소리가 울려왔다. 두칠이가 용접바가지로 뒤집어쓰고 철관을 못고있었다. 그옆에서 금실이와 안해가 거들어주고있었다. 번쩍이는 용접광이 주창세의 눈앞을 환히 밝혔다.

주창세는 자기도모르게 터벅터벅 걸고있었다. 그는 멀리 불빛이 보이는 당위원회로 걸어가고있었다. 당비서에게 그리고 지배인에게 사람들에게 모든것을 솔직히 말할것이다.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용접불광은 그가 걷는 길을 밝혀주었다. 주창세는 어떤지 걸음발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광부의 하루

김병두

새벽 출근길에서

설령이는 가로수
물안개 피어오르는 북대천
아직도 마천령엔 새별이 웃고
아직도 짙짙의 창가엔 불빛이 어려있건만
영수는 출근길을 걷는다

늘 보는 선광장
늘 보는 콘베아의 흐름
갱구엔 파란 불꽃을 날리는 전차들
금궂의 하늘엔 금방 외당은 렬차의 기적소리
온 나라의 못 시선들이 줄달음쳐오는 땅에
창조의 하루는 시작되는가

금방 역에 내린듯
부러운 눈길로 광석산을 바라보며
-4, 5 갯은 어디요?
-선광장은 어디로 가요?
검덕을 배우러 찾아온 사람들
귀 스치는 한두마디 그 말에서도
검덕이 서야 할 위치를 다시금 자각하며
영수의 걸음걸음 생각도 깊다

이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
왔고
이 길에서
검덕의 모습이 온 나라에 비껴가고
어제날보다 달라진 걸음새와 생각을 따라서며
온 나라 마음들이 함께 가는 길이거니

영수는 혼자서 걷는것 같지 않아라
한마음 충성으로 수놓아가는 검덕의 걸음걸음에서
더 커진 기쁨을 안고 쇠물 뽑는 용해공들과 함께
만부하의 불꽃을 날려가는 기계공들과 함께
조국의 억만채부를 받들어올리며
온 나라와 함께 막장길 걷는것이 아닌가

아,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봉화
온 나라의 하늘에 높이 추켜든
그 영광을 안고
위훈없이 돌아올수 없는 이 길
밤을 샌 가로수 설령이는 새벽길로
영수는 가슴 펴고 간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높아질 은빛 산악을 바라보며
온 나라 출근길의 앞장에서 간다

하루에 열흘길을

막장에서도 더 내려간
천길 지하막장 올리굴로
쇠바줄 팽팽히 끌어올리던 착암대차
바위벽에 걸려 더는 올릴길 없어
소대원들 손에 땀을 쥐던 순간,

안전모밑의 눈빛 이글이글 타오르더니
말없이 동무들의 어깨를 헤집고
간데라 불빛도 가닿지 못하는 깊은곳으로
바줄감고 바람처럼 뛰어내린 영수
머리우에 떨어지는 석수를 삼키며

쨍 쨍... 바위벽을 깬다

끌어올려야 할 쇠바줄 잡은채
공훈광부아바이도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옛 전우의 아들
영수의 그 모습이 가슴뜨거워
어둠속에서도 눈시울 후터워지는가

큰 갯도로 에돌아가는 열흘길을
이 올리굴로 하루에 줄여
오늘로 착암대차를 막장에 올리자고

휴계실의 침묵을 깨뜨리며
 불같이 토론하고 첫걸음 떼더니
 심장의 고동인양 정대소리 울리며
 영수는 쟁 쟁... 바위벽을 깬다

기술문명의 조종간을 잡고
 광맥을 타고가는 나래돋친 걸음이
 에도는 길에서 시간을 보내며
 위대한 수령님께 바쳐가는 충성이 멀어질가봐
 쉽게 차례지지 않는 이런 순간
 어찌 첫걸음을 양보할수 있었으랴

아, 백번 다시 태어나 걸어도

다 걸을수 없는 충성의 길을
 한생을 바쳐 더 멀리 걸어야 하겠기에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며
 평탄치 않는 천리막장 길우에
 영수는 곧추 발자국 남기여라

쟁 쟁... 암벽을 까는 소리
 영수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기술문명의 척후병으로
 진군길에 앞세울 착암대차를 불안고
 영수는 한치한치 우로 오른다
 그 충성의 마음에 받들려 착암대차가 오른다
 하루에 열흘길을...

편지에 대한 생각

설참
 간데라불에 담배 한대 피워물고
 영수는 생각한다
 지난밤 늦도록 잠못들게 하던
 어머니의 편지구절을 생각한다

...너는 나의 셋째이지만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첫자리에 섰기에
 영수야, 너는 내 마음속의 첫째이다...
 귀에 대고 속삭이는듯
 정다운 어머니의 목소리

영수의 눈앞엔 안겨온다
 붉은넥타이 처음 매던 날
 작은 손에 이끌려 집으로 오며
 웃음이 가실줄 모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입대의 날 새 군복의 목달개를 달아주시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지금도 온몸에 스며 툭툭 피출에 뿜다

만이는 영웅 용해공
 둘째는 설계기사
 제대되어온 막내를 곁에 두고싶어도
 위대한 수령님 불러주신 길로
 웃으며 떠나보내던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사랑 안고
 마천령을 넘어온지도 5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장길우에
 위훈의 자욱 힘있게 짝어가면
 어머니의 손길 어깨를 어루만져주는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높이 세워주신곳
 막내가 자랑스레 일하는곳
 한번 와본적은 없어도
 고성기에서 울리는 검덕의 소식에서
 암벽을 밀어가는 아들의 목소리 듣고
 신문에 실린 검덕의 사진에서
 아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

영수는 온몸에 느끼여라
 검덕을 떠밀어주는
 온 나라의 뜨거운 지원의 손길에서
 아들만이 알수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울리는 첫자리에서
 어머니 마음속의 첫째가 되어
 이 한몸 충성의 불길로 타오르리라
 지동치는 정대처럼 피를 끓이며
 영수는 착암대차앞에 선다

마음

노래로 읊을가
글로 적을가
소대가 떨친 오늘의 위훈을 축하해
경제선동대원들이 막장에서 안겨주는
꽃다발앞에, 박수앞에
얼굴 붉히고 선 영수의 마음을...

승리자의 미소처럼
넓은 가슴엔 송이송이 꽃들이 웃건만
말보다 무거운, 행동으로 큰일 하고도
오늘에 한 일이 적은것만 같아
머리 못드는 영수의 마음을

공업대회 높은 연단에서 영웅되어
곧추 막장으로 달려온 소대장의 손을 잡고
못내 놓지 못하던 영수
위대한 수령님을 광산에 모시리라
맹세의 더운 이슬 눈에 맺히더니

소대장과 한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듯
가장 큰 일뒀을 스스로 정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새벽이슬 차며
광석산을 높여온 나날은 얼마이던가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실곳 얼마나 많으시랴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문득 그이께서 또다시 오실것만 같아
오시여 광산길을 걸으시며
해놓은 일을 물으실것만 같아
교대를 넘겨주기 아쉬워
조종간을 품에 안고 놓지 못하던 영수

즐거움에 넘쳐 간데라를 흔들며
퇴근길을 걷다도 문득 멈춰서던 걸음
고르롭지 못한 기대의 숨결소리 들으면
위대한 수령님 오시는 길이 멀어지는것만 같아
소대가 다르고 막장이 달라도
동음소리 노래처럼 울려주고야
걸음 떼던 영수의 마음이어

노래로 읊을가
글로 적을가
오늘도 말없이 큰일을 하고도
위대한 수령님 광산에 다시 모시려면
아직도 충성의 걸음이 더딘것만 같아
안겨주는 꽃다발앞에, 박수앞에
얼굴 붉히는 티없이 깨끗한 영수의 마음이
아, 천리로 뻗어가는 막장길이 되여라
위대한 수령님 모실 그날에 서있어라

《충성의 붉은 수첩》을 펼치고

북대천의 물소리 창문을 흔드는 밤
영수는 책상과 마주앉아
《충성의 붉은 수첩》을 펼친다
어린것에게 새 그림책을 보여주는
안해의 유난히 밝은 웃음에서도
또 하루 선광공들이 바친 충성을 읽으며...

언뜻 눈에 스치는 이 하루도
열흘길을 하루에 줄여
착암대차를 막장에 올리고도
마음 성차지 않아
선뜻 막장을 떠나지 못하던 일
벽보판에 나붙은 대문짝같은 이름...
영수는 하루의 걸음걸음을 더듬으며
《충성의 붉은 수첩》에 쓴다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웃길을 바로잡으며
가장 숭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루일을 총화짓는 영수

달리던 펜대를 잠시 멈추고
생각도 많다

봄우뢰처럼 발파소리 울리며
바쳐온 충성의 하루하루가 있어
한가정의 즐거운 상봉도 웃음도 있고
아름다운 꿈을 안고 이 땅에 태여날
후대들과의 상봉도 떳떳하러니

로동의 나날에 밝아올
보다 좋은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충성의 붉은 수첩》에 적어가는
하루하루의 이 기록은
충성을 안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한생

아, 아들대에 넘겨줄 위훈으로
영웅의 금별도 좋다
하나 《충성의 붉은 수첩》갈피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펼쳐나선
평범한 나날에

부끄러움 없는 량심으로 바쳐온
충성의 마음을 담아
생활의 교과서로 넘겨줌도 얼마나 좋은가

줄줄이 뻗은 산발사이
은하의 물결도 창문으로 흘러드는 이 밤
영수는 적어간다
주체형의 혁명전사된 궁지로 가슴 부풀어
대를 이어 바쳐갈 충성의 마음을

시대앞에 금문자로 아로새겨간다

《충성의 붉은 수첩》에 적어가는
이 하루와 함께
영수는 가리라
한생을 위훈의 나날로 채우며
검덕이 가고 조선이 가는
3대혁명 승리의 그날에도
빛나는 미래의 그 종점으로!

태양의 한끝 그 어디에 가도

김정호

바다여, 너도 기쁨에 겨워 설레이느냐
갈매기, 너도 끝없는 걱정을 노래하느냐

떠오르는 해돋이속에 미소 담으신
어버이수령님
바람찬 새벽 잔교우에서
우리들에게 뜨거운 손길 보내주신다
출항의 배길에 축복의 정을 담아.

자애로운 그 손길
수령님 가까이 더 가까이 있고만싶은
우리를 다시 한품에 안아주시여라
인자하신 그 미소
조국땅 떠나 만리어장 그 어디 있어도
태양의 빛발로 우러르던 그 미소
우리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태양의 그 빛발!

배전에 부서지는 흰 물결처럼
부풀어오른 가슴 격정에 뿔다,
함박눈 창가에 내려쌓이고
해변도시 가로등도 꺼진 지난밤
안겨주신 그 사랑 뜨거웁구나

평범한 어로공들을 협의회에 불러주시고
우리네 고기비늘 묻은 손을 잡아주신 수령님
한생 바다에 살아도 다는 몰랐던
천길물속 고기산의 비밀을
천리해안으로 열어주실 때

바다처럼 넓어지던 가슴이여

물고기산이 높아갈수록
인민의 기쁨 늘어난다고...
큰 배, 작은 배
먼 바다 가까운 바다에 띄워
어디서나 사철 고기산을 쌓으라고
믿음의 손길 우리의 등에 얹어주실 때
바다를 통채로 안아내고싶던 마음이여

해마다 늘어나는 사랑의 길
천리던가 만리던가
아, 위대하신 수령님의 인자하신 그 미소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바다사람들을
언제나 해뜨는 조국의 기슭에 세워주시거니

이 아침, 잔교우에 서시여
손들어 바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 어디 가도 태양 가까이 우리는 있구나
그 미소
따사로운 저기 저 바다
조국의 해빛이 되여...

우리 가는 항로우에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그 미소
해돋이 노을처럼 퍼져가구나
검푸른 물결 뒤설레이는
만리어장도 낮설지 않아라

밀려드는 안개와 얼음산도
눈덮인 조국의 산밭처럼 펼쳐지여라

평생을 달리고싶은 바다길이다
하늘땅 바다위에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미소속에
수평선 멀리 떠오르는 해돋이도
우리를 향해 더 밝은 해살을 모아오고
일어서는 멀기도 무지개로 비끼고

갈매기들 고향소식 안고
우리의 배전에 찾아오리라

아, 대양의 한끝 그 어디로 가도
어버이수령님의 미소
일어서는 해돋이 노을처럼 빛나는
사랑의 바다로구나
먼 만리어장도 조국땅처럼 딛고 사는
우리의 행복한 바다로구나

우리 소조원 혁명의 전위여

강현세

이끌어 천리
떠밀어 만리
그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라
우리 소조원 혁명의 전위여!

생각깊은 그 시선
가을날의 호수같이 맑은 그 눈동자
한번 불타오르면
정열의 화산은 터져...

탐구의 낮과 밤
장막을 벗겨주던 그대의 깨우침...
반들어주며, 부추겨주며
함께 걸어온 자욱자욱이여!

녹아내리던 용선로를 살리려
우리 불속으로 뛰어들 때
그대 담벽같이 막아나서며
오히려 제가 먼저 뛰어들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던가

주물모래에 티검볼 하나 섞일세라
고르고 살피던 그대의 마음을 두고
나는 생각한다, 기능에는 급수가 있어도

충성의 높이엔 끝이 없음을...

그대 배워준 투쟁의 노래
가슴에 차넘치여
새 생활의 언덕우에서
혁신의 기발로 휘날려라

하기에 그대 잠시 곁을 떠나도
기다려지는 마음
만나면 허물없이 잡아주는 손길에서
성장의 큰힘을 받아안노라

안겨주는 책에도
갈피마다 그대의 마음은 스며
어버이수령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지나가는 길에 해주는 말에서도
우리 디디고 올라설 계단을 보거나

아, 그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해발을 안고
로동계급의 가슴에
충성의 씨앗을 심어주는 혁명의 전위,
그대는 언제나 세폭의 붉은기를 들고
웃으며 웃으며 우리 앞에 가는구나
3대혁명소조원, 미더운 동지여!

불타는 철의 기지에서

리상건

철의 노래

불구름 피는 제철소 구내길을 걸으며
내 사는 집의 벽체들에 스민
철근의 힘에 대하여 생각한다
강물위에 솟아있는 교각
땅속깊이 수로를 열어가는 잠관
만년언제의 뿌리를 내린
철의 무게에 대하여 생각한다

조국땅을 가로세로 뻗어간 철길
높은 산 넓은 들을 지나
나라에 동력을 주는 철탑들과
한초의 섬을 모르고
조국의 문명을 낳고
창조의 기쁨을 실어나르는
강철의 빛발을 두고 생각한다

행복이 나래치는 모든곳에
철의 이름은 이렇듯 장엄히 비껴가나니
오늘도 강쇠는 얼마나 잘 익혀지는가

한계를 모르는 뜨거운 열을 안고

끝없이 불타고있으려는듯
백광의 윤기를 간직한 강철, 강철

우리의 힘과 땀
보람찬 로동의 결정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과 맹세의 노래

속도전의 폭풍 이는 대건설의 전선
땅과 바다와 하늘 그 어디에도
강철은 만년대계의 초석이며 금빛나래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고
래일의 꿈을 찬란히 꽃피우는
강철, 강철 정다운 이름이여,
공업화의 위력 누리에 펼쳐가는
우리의 위업의 힘이여, 노래여, 꽃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해발아래
행복의 무지개를 피우며
장엄한 승리와 미래를 담보하는
강철, 강철 불패의 재부여!

용해공들은 분석공을 사랑한다네

출선의 기쁨 남먼저 받아안고
바람처럼 용해장에 달려온
빨간 머리수건-분석공처녀,
이마에는 송글송글 반짝이는 땀이슬
눈빛도 곱구나, 미소하는 그 얼굴.

...이마에 돋은 땀 선풍기로 식히며
시원한 탄산수 들어나보았으면...
용해공들의 이런 마음 조용히 사양하고

처녀는 서두르네, 다만 한마디
믿음에 넘치여 다만 한마디
-어서 쇠물시료 떠주어요!

어느덧 주상의 모래우엔 크지 않은 형타가
꽃잎을 안을듯 곱게 찍히고
부어진 쇠물은 시편으로 굳는데
시편을 담아들고 용해장을 내리는
쇠물 분석공- 스무살처녀

빨리도 돌아선 그 걸음
 30 분도 못지나 용해장에 알려지는
 쇠물의 분석수치 반가운 소식
 -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사령대의 전화선에 누버지는
 처녀의 목소리 노래이런가, 구슬이런가
 하루에도 여러번 울려오건만
 들을수록 새로운 고운 목소리...

이 소리 받아서 쇠물꼭포 굽이치는
 평로선따라 화차들은 달리거니
 용해공들은 사랑한다네,
 시편속의 원소들을 분석기로 가르며

바다를 마주한 창문을 넘어
 새별이 하나 둘 돌아나는 밤,
 잠든 아들의 단꿈을 지켜
 용해장갑 누버가는 우리 어머니

무엇인가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간절한 그 마음을
 오리마다 누비시며
 조용히 미소짓는 우리 어머니
 -마음편히 잠도 깊이 들었으니
 용해장의 쇠물도 잘 끓으리

어머니는 보시여라, 느끼시여라
 아들의 모습에서 숨소리에서
 도랑에 넘치는 주홍빛 쇠물을...
 쇠물마당 감도는 바람소리를...

용해장이 언제나 깨끗하라고
 싸리비를 아름으로 안아가신 마음,
 불노을이 구내를 물들일 때면
 마당가에 나오시여 기쁨에 젖으신 마음...

렌즈속에 오색무지개를 피워올리며
 신속 정확하게 쇠물을 알아내는
 탐구와 열정의 그 눈빛을...

용해공들과 한마음 길동무되어
 쇠물치기 번호를 새겨나가는
 충성의 그 마음을 사랑한다네
 분초를 아껴 시간을 앞당기며
 쇠물길 열어주는 그 정성을 못잊는다네

아, 용해공들의 마음으로 익혀지고
 분석공의 눈빛속에 빛나오르는
 우리의 쇠물은 그래서 언제나 뜨겁다네
 꽃보라로 날리는 천만불꽃속에
 우리의 쇠물은 그래서 언제나 아름답다네

용해공의 어머니

밤은 깊어 깊어만 가도
 용해장에 마음의 실오리를 늘이시며
 한뜸... 한뜸...
 어머니는 누비시네, 용해장갑을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서
 용해공으로 자라난 아들,
 이제 무어라 부러움 따로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한뜸... 한뜸...

쇠물처럼 그 마음 변함없으라,
 쇠물처럼 그 마음 충성으로 뜨거우라
 바라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한뜸... 한뜸...

아, 불의 비단폭으로 조국을 빛내여가는
 아들의 보람으로 어머니는 행복하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랑스런 일터에서 한생을 빛내가는
 아들의 기쁨을 보며 끝없는 쇠물의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는 이 밤 조용히 웃으시네

철의 전선 앞으로!

대형용광로의 로정우에 나는 서있다,
나래돋친 마음으로 철의 령마루우에
나는 서있다,
대지는 휘넓어도 한눈에 감도누나.

구내차의 기적소리, 화차들의 불흐름...
볼수록 힘이 넘치고 피가 끓는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환히 트인
야금의 고향, 철의 전선이어!
주체의 불을 달아 내달리고 엇갈리며
어우러져 비껴가는 격렬한 빛발, 억세인 음향이어!

해탄로가 안아올리는 불기둥이 없다면
조국에 보내는 뜨거운 축원을 간직할수 있으랴,
열풍의 거센 바람 분초마다 덥혀지지 않는다면
속도전의 섬광을 생각할수 있으랴.

오, 쇠물노을이 퍼져오르지 않는다면
남해의 해돋이를 생각할수 없으리,
강피의 산악이 출하장에 쌓이지 않는다면
조국의 미래는 꿈으로만 남으리.

강관으로 이어지는 앞길을 본다,
강피로 높아지는 령마루를 본다,
강철은 대양의 선단이며 전야의 철마!
강철은 막장의 설비이며 은빛궤도!

내륙으로, 바다에도
지하에도, 건설장에도
잇닿은 길은 하많은도
철의 전선이 받드는 길은
번영의 화원!

부강의 상상봉!
자주통일의 광장!

말하라,
엇갈린 배관들의 끝없는 길이와
아슬한 철탑의 높이가
오늘의 우리 뭇만으로 이루어졌던가.

오늘의 행복만을 우리 바라다면
철골들은 구름을 휘감지도 않았으리,
로가슴을 넓히고 구내를 확장하며
련속, 련속으로 강관을 늘어가는
철의 전선, 야금의 활화산이어!

갑옷인양 철판을 감아두른 로체들은
영원히 꺾임없는 1211 고지!

우리는 련속, 련속의 불흐름속에서

원썩미체를 불태우고
주체의 락원을 건설하리
철의 전선 앞으로!
철의 전선 앞으로!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를 빛내이는 사람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시대 인간이 선행한 시기의 인간과 다른 특징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란 우리 나라의 인간들중에는 사회정치적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끝까지 빛내인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을 수없이 많이 알고있다. 바로 내가 이야기하려는 우리 공장 보이락작업반 세포비서로 일하던 리병국동무도 이런 인간들중의 한사람이다.

1976년 1월도 저문 어느날 밤이었다. 새로 도입한 보이락원격조종문제를 푸느라고 새벽 한시까지 작업을 하던 리병국동무는 반원들의 강요에 못이겨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에 2시간이상 학습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는 그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지만 이날도 책을 펴들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보고였다.

《여보, 이젠 밤도 펴 깊었는데 좀...》

안해가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책상을 대한 병국동무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안해는 요즘 수척해진 남편에 대하여 걱정이 컸던것이다. 병국동무는 새로 도입한 원격조종을 완성하느라고 며칠째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었다. 그런만큼 그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이 축간것은 사실이였다. 그렇지만 병국동무는 안해의 말에 《내 오늘 밥은 세끼 먹어도 정치적량식은 섭취 못했소. 비타민이 부족하면 육체적생명이 영양실조에 걸리는것처럼 정치적량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만

큼 정치적생명에 병이 걸린단말이요.》하고 웃으며 자리를 고쳐앉는것이였다.

《당신은 말이 적으면서도 그런 말은 곧잘 한다니까.》

안해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며 가늘게 웃었다. 그리고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했댔자 소용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남편의 학습에 지장을 줄수 있었기때문이다.

안해도 책을 펴들었다. 이리하여 병국동무네 집에서는 밤한시가 넘은 때에 두사람이 학습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하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있었다. 이때에 갑자기 창문이 환히 밝아지였다.

병국동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른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휘몰아치는 바람에 거세찬 불길의 바로 멀지 않은데 있는 집지붕을 활고있는것이 아닌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불이 일었던것이다.

《앗, 저 안에는...》

병국동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았다. 동시에 비장한 결심이 다져졌다.

그는 자기의 왼쪽 앞가슴에 정중히 간직했던 당원증을 안해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창문을 뛰어 내려 달려갔다. 주위는 대낮처럼 밝았다.

불길은 땅위의 모든것을 쓸어갈듯 세차게 뿔뿔아 치며 기승을 부리였다.

병국동무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잘 안다. 그렇지만 그는 창문을 차고 뛰어들어갔다. 방안은 연기로 가득차서 모든것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숨쉬기도 매우 바빴다. 천정에서 떨어지는 불씨들과 흙이 머리와 어깨, 목에 들썩워졌다. 그렇지만 언제 그런것을 따질 때가 못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구원해야 된다는

일념뿐이었다. 병국동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맨 앞쪽 1호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안전한곳에 모시였다. 다음 병국동무는 3호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누가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안고 달려나오지 않는가!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짧은 순간 동시에 감격의 눈동자를 빛내이며 뜨거운 마음이 오가는 웃음을 웃었다.

병국동무는 2호실로 들어갔다. 1호실보다 더욱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도 뜰수 없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숨은 킁킁 막히었다. 여기저기 벌려져 있는 불길들이 뱀의 혀바닥처럼 살을 뜯어내려는듯 날름거리었다.

병국동무는 벽을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기여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구원하기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된다.)

그는 있는 힘을 다 모아 일어섰다. 그렇지만 키가 모자랐다.

(어떻게 할것인가.)

병국동무는 좌우를 살폈다.

그런데 이때 《자, 빨리!》하면서 어깨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다. 3호실의 초상화를 가슴에 안고 나갔던 동무였다. 그의 옷에도 불이 붙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는것 같다. 아니 그런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국동무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같은 목적과 사상으로 잇닿아있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로 뜨겁게 엉키었다.

병국동무는 얼른 어깨우에 올라서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조심히 안았다. 청년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며 커다란 나무가 앞을 가로질렀다. 피물같은 나무에서는 불길이 마구 이글거리었다.

이때에도 그 동무는 번개같이 달려나가 불덩이나 무를 어깨로 치받아올리었다. 그것은 돌격로를 열어제끼는 불사조의 모습 그대로이었다.

병국동무는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았다. 그 역시 불사신마냥 아래로 급히 빠져나갔다. 그러

나 이때 또다시 복도의 지붕이 무너져내리며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병국동무는 더 걸을수 없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으로 막았다. 다음 의지의 힘으로 일어섰다.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치밀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달려와 자기를 어깨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다. 병국동무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어려운 역경에서 동지를 만나는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용기를 주는것이었다.

병국동무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걱정 되어 그의 어깨를 내리치었다. 그리고 초상화를 내밀었다.

청년도 더 생각할 사이없이 조심히 받아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은 옹호보위되었다.

병국동무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옹호보위했다는 안도감에서였다.

어깨를 들이대며 나무를 치받아올리던 그 동무도 병국동무의 옆에 와서 나란히 섰다. 그들은 이제 더 걸을수도, 기여나올 힘도 없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듯 마주보며 행복의 웃음을 웃었다.

후에 알고 보니 다른 한동무는 병원의 평범한 사무원이었고 청년은 화학공장의 노동자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초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의 사상과 신념이 흐르고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자주성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심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는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는 이들의 사상정신적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 여기에 자기의 영원한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는데 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불속으로 뛰어들것이다.

이처럼 우리 시대 인간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빚내이기 위하여 육체적생명을 바치며 그것을 생의
보람으로, 영광으로 여긴다.

이런 인간들이 걸어온 생활의 그 수많은 발자국은 다
충성으로 새겨져있는것이다.

그것은 병국동무의 생활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병국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을 다하자면 자기 초소를 조금의 드림도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남다른 모
범을 보이군하였다.

한번은 보이라에 들어온 탄이 질이 나빠 증기압
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작업반 동무들은
이것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방도는 찾지 못하고 다
만 탄을 다시 실어와야 한다느니, 선별해야 한다느
니 하면서 옥신각신하였다. 이것을 안 병국동무는
보이라로 달려갔다. 그는 동무들의 말을 묵묵히 듣
고있다가 웃으며 삽을 들고 일어섰다.

《아니요, 증기의 온도는 탄의 질에 의해서가 아
니라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충성의 열도에 의
하여 결정되는것이요, 충성의 열도가 낮으면 온도가
내려가고 충성의 열도가 높으면 그만큼 올라가
는것이요.》

병국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분쇄실에 들어가 탄을
분쇄하고 또 분쇄하였다. 정말 병국동무는 자기의
충성의 열도로 보이라의 증기압을 올리고 온도를
보장하였다.

보이라를 개조한지 얼마 안된 때의 일에서도 마
찬가지다.

잘 돌아가던 보이라의 불판랭각수관이 터져 물이
새었다. 이 새는 부분을 때지면 할수 없이 보이라를
세우고 화실이 식을 때까지 6시간이나 기다려야 했
다.

일부 동무들은 나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6시
간을 세우면 공장의 생산이 그만큼 늦는다. 한초가
천금맛잡이로 귀중한 이때 6시간을 세우다니...

병국동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창건
30돐기념일에도 이 공장을 잊지 않으시고 로동자들
을 념려하여주시였다는 그 뜨거운 사랑이 가슴
한가득 안겨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심려하실가.)

병국동무는 반원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은 심장에 병이 나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
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앉아 병이 나이지기만 기다
리겠소? 빨리 대책을 취해야지.》

그리고는 용접봉과 용접기를 들고 수도가에 가서
자기 몸을 적시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 방문으로
들어가듯이 태연히 화실로 들어갔다.

동무들이 막아서자 병국동무는 《이런 땀 의례히
내가 들어가야 하는거요.》

하고 웃으며 동무들을 뿌리치였다.

그는 용접을 시작하였다. 화실안의 뜨거운 열이
그의 옷을 단숨에 말리워버리고 불태웠다. 그러나
병국동무는 끝끝내 새는 부분을 때고야 나왔다.

《비서동무, 이걸 너무합니다. 이런 땀 정말 용접
을 잘하는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동무가 눈물을 흘리며 용접기를 빼앗았다.

한시간후에는 보이라의 세찬 증기가 심장에서 나
오는 피가 피줄을 따라 온몸에 퍼지듯이 공장구내
의 증기관을 따라흘렀다.

병국동무는 이런 사람이였다.

이런 인간이 어찌 병국동무 혼자뿐이겠는가? 항
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자기의 피와 살로
하고있는 이런 인간들은 지금 초소마다에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참된 주인공이 될 인간이 현
실에 참말로 많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의 벅찬 현실과 참다운 인간
들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고
상한 사상과 신념, 구밈없는 소박한 활동을 그대로
묘사하며 우리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야 할것
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산주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
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적무
기로서의 역할을 더 훌륭히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승수산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 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우리 말의 어휘도 더 늘어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작가들은 될수 있는대로 기발하게 착상하고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 써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우리 당은 언어표현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를 우리 문학의 형상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 개화발전시키는 근본방도의 하나로 제시하고 언어구사와 표현의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지도적지침을 주었다.

당중앙은 작품에서 주제가 명백히 선 다음에는 그것을 형상하고 어휘를 선택하는 작업은 매개 작가가 자기의 재간껏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문학작품의 개성화를 옹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어휘표현은 창작전과정에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왜냐 하면 작가의 언어구사가 새롭고 독창적인것일수록 탐구된 종자를 꽃피워나가는 형상작업이 다채롭게 전개될수 있으며 형상창조의 중심에 놓이는 인간성격도 다양하게 개성화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자를 가공하는데 표현되는 개성적인 어휘는 묘사대상의 특성에 맞게 생신하고 독창적인 표현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형상의 개성화가 더 잘 보장될수있다. 반면에 어휘표현과 문장구성에서 개성적인 탐구가 부족하면 창작된 작품에서는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줄수 없고 작품의 형상적수준도 높일수 없게 된다.

지난기간 우리 소설문학작품들은 작가의 개성적 탐구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있다.

최근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의 어휘표현들에서는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풍부히 살리기

위한 작가들의 창조적사색과 진지한 탐구심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있다.

발표된 작품들에서 어떤 작가는 현실적감정에 맞는 생신한 어휘표현을 기발하게 하였는가 하면 또 한 비유, 성구, 형용어, 과장법 등을 능숙하게 리용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문체의 간결성을 잘 보장하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작품에서는 매 단어와 문체에서 생활적인 정서와 생활의 다양한 음색까지 친숙하게 감득할 정도로 생활세부를 진지하게 그리고있다.

실례로 단편소설 《해방》에서 작가는 사회의 본질과 시대적특징을 밝혀내기 위한 어휘를 능숙하게 리용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저쪽은 한강, 그옆에 산처럼 솟은것은 독섬, 한강수면우에 가뭇가뭇하니 떠서 움직이는듯마는듯 연기만 튕겨대는것은 돛배들과 크고작은 매생이들 속에 섞인 푹팍선들이다.

몽당바지에 소매짜른 적삼을 입은 경일은 이마에 손채양을 댄채 까만 땀을 빠질빠질 흘리며 실눈을 지었다.》

여기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의 략탈로 모든것이 황폐화된 남조선사회현실과 자주성을 완전히 빼앗긴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한강수면우에 떠있는 매생이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소년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묘사하였다.

긴 설명이 없이 간결한 짧은 표현으로 사회의 본질과 인간생활의 세부를 들여다볼수 있게 한것은 그 특징을 정확히 밝히는데 적합한 어휘표현과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다.

꽃배, 매생이, 푹팍선, 몽당바지에 소매짜른 적삼 등 어휘들은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시대적환경과 장면 또는 그 시기 사물이나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수단으로서 시대적인 정확한 묘상을 주는데 효과있게 쓰고있다.

이러한 어휘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 정책으로 인하여 파거 낡은 사회의 락후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 남조선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생동하게 밝히고있다.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단편소설의 형상적특성을 잘 살리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생신한 어휘들을 적극 탐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단편소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정신적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할 때만이 그 전투적사명을 더잘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할 단편소설의 전투적사명을 더욱 높이게 하자면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으로 되는 어휘표현에서 현실적감정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꽃잎이 계속 날린다. 전기줄이 아츠럽게 비명을 지른다. 부채를 싣고 달리던<자주호>자동차가 헛바퀴질을 한다. 누가 우정 쥐어뿌린듯이 모래와 자갈이 차창을 깰듯이 때리고 날아갔다. 어디서 무엇이 와지곤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물탈을 가득 실은 따찌까를 몰고 널쪽우를 달리던 처녀의 머리에서 안전모와 빨간 머리수건이 핵 벗어나져 날려가다가 철관을 일으켜세우고있는 제대군인제관공의 얼굴에 가서 부딪쳤다. 와하-! 통쾌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날려 퍼졌다.》

단편소설 《세찬 바람》에서의 이와 같은 인상적인 정황묘사는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패기와 열정에 떨쳐 일하는 주체시대 새 인간들의 정신적아름다움을 여실하게 느끼게 해준다.

세찬 바람속에서 억센 힘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충성다하는 주인공들의 로력적위훈과 그 투쟁모습을 감득하게 한다. 시대적감정이 잘 반영된 생동한 어휘표현들은 이와 같이 들끓는 사회주의현실과 그 생활의 중심에 서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잘 그려낼수 있게 한다.

작가는 작품에 강조하는 성격의 구체적인 내적감정과 함께 그 외부적특징을 잘 그려낼수 있는 생신하고 개성화된 어휘표현을 정확히 골라쓰기 위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전변되는 거창한 사회주의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단편소설 《혁명전위》에서 작가는 등장인물의 성격적특징을 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 초상, 행동, 정황 묘사에 필요한 어휘표현을 기발하게 쓰고있다.

《담배연기가 그 웃음처럼 천천히 새나왔다.

<좌우지간 수고했수다. 수태 고생했갔수다...>

책상우에 꺾어세운 두팔로 좌우쪽 관자노리를 반친 그의 얼굴은 눈꼬리가 치켜올라가면서 눈가의 주름이 반반히 퍼졌는데 철색얼굴에 깊이 패웠던 주름자리들이 하얀 흙채기로 부채살처럼 줄을 긋고 드러났다.》

이 소설에서 다양한 표현들은 3대혁명의 힘찬 전진속에서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새로운것에 대한 지향을 방해하는 만수직장장의 완고한 보수주의적태도와 그 심리세계의 미묘한 색채까지 보여준다. 또한 작가는 등장인물의 외부적특징을 밝힐수 있는 표현들과 성격의 개성화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생동한 자연묘사를 기발하게 밀착시킴으로써 성격적특징을 더욱 진하게 보여준다.

단편소설에서 성격창조의 개성화를 잘하기 위하여 대화구사에 리용되는 어휘표현도 잘 다듬어 써야 한다.

당중앙은 대사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수 있게 써야 한다고 하였으며 어디까지나 뜻이 깊으면서도 통속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대사를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게, 뜻이 깊게 쓸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방침은 우리 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특히 소설에서 등장인물간의 이야기가 명대사로 되게 하는것은 작품의 종자를 훌륭히 꽃피우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등장인물의 언어로서의 대화는 사건을 심화시키고 내용을 표현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만 특히 인물의 개성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사람의 말속에는 그의 사회적위치, 취미, 성격, 교양정도, 출신지방 등 개성적특징이 여실하게 표현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표현되는 한마디의 대화는 백마디의 긴 설명보다 더 효과있게 등장

인물의 내면세계를 개성적으로 드러내줄수 있게 한다.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에서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세차게 흐르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담은 주인공들의 대화를 작가는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새세대인 주인공 순금이와 공장책임일군 지배인과의 대화는 개성적이면서도 또한 두 성격의 전형성을 드러낸 아주 훌륭한 언어이다.

25톤기중기를 옮기는 사업을 앞에 두고 지배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쳐 모대기면서 사업을 내밀지 못하고있을 때 순금은 지배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난관이 제기되었다고 우리가 어찌 주저하고 동요하고 물러설수 있습니까.

지배인동지! 건설을 착수하는 첫 켄기모임에서 지배인동지자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령님을 받들어가는 이 한길은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의 길이라고말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순금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의 무조건성의 정신,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의 정신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단편소설 《분대장과 전사》에서 구사된 등장인물의 대화들은 함축되고 간결한 어휘표현으로 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준다.

《<진해, 날 좀 일꿔주어>

<상등병동지!>

<어서, 전사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한가지 세계가 있을뿐이요.>》

이 작품에서 대화는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최대한의 표현성과 개성적이고 일반화된 특성을 가지고있다.

소설에서 분대장과 전사들간에 이야기된 함축된 대화는 긴 설명이 없이 분대장과 상등병 《의학박사》, 진해의 사상정신적지향성을 긴장된 정황속에서 보여준다. 특히 집약된 대화에서는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무조건성,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

직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명령집행에서는 한걸음도 물러설 권리가 없다는 전사의 굳은 맹세, 혁명동지에 대한 전사들간의 뜨거운 사랑 등을 생동하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주고있다.

소설에서 대화는 이처럼 생활적인 어휘표현으로 구사되고 주어진 정황과 등장인물의 성격의 개성화에 적응하게 선택되고 다듬어진 표현으로 되어야 한다.

성격창조의 개성화는 생활속에서 다듬어지고 체현된 비유, 과장, 수식어, 출품 등의 적중한 리용과 반복, 대구, 생략, 수사학적질문, 감탄 등 다양한 어휘표현수단들을 옮겨 리용할 때 더 잘 부각시킬수 있다.

그것은 소설문학에서 형상적비유법과 다양한 어휘수법들을 옮겨 리용할 때 선택된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생동하게 개성화할수 있고 긴 설명이 없이도 그 내용을 간결하게 묘사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상적비유법의 적중한 리용은 짧은 형식의 단편소설의 내용속에 작가가 목적인 종자를 충분한 형상으로 개성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표현을 새롭게 하며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어휘를 잘 리용하는것은 작가가 창작전과정에 이끌고나가야 할 근본요구이다.

자주적인간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과 다방면적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어휘축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가에 의하여 창조되는 모든 형상은 참신해지고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활짝 펼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언어문화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현실연구를 더욱 실속있게 하며 그속에서 생활적내용이 풍부히 담겨진 생동한 어휘들을 꾸준히 찾아내야 한다. 동시에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미학적감정에 맞는 생신한 표현들과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부단히 탐구하여야 할것이다.

배준구

증오의 노래

계훈

1

포연서린 싸움의 전호가에
나는 서본적이 없다
총창이 부딪치는 육박전에도
포탄이 작렬하는 쏘구역도
나는 언제 한번 달려본적이 없다.

전쟁이란-책과 영화와 이야기를 통해
동심의 까만 눈을 깜빡이며 들어왔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긴 복도를 걸으며
병사들의 피묻은 군복과 닳고 닳은 총가목,
깨어진 원쑤들의 철갑모를 보며
나는 전쟁을 어렵פות이 익혀왔다.

미제가 불지른 50년대 싸움의 그날에,
병사이던 나의 아버지가
락동강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날에
나는 태어났다!
원쑤를 복수하기 위하여
오로지 증오하기 위하여
내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다 알수 없었다.
포연탄우속에서도 내 작은 알몸뚱이를
김오르는 따뜻한 물속에 미역감겨주던
조국의 불같은 열망은 무엇이었던지...
어린시절 그 많은 노래중에서도
병사들이 부르던 《결전의 길로》를
나에게 배워주며 눈시울 적시곤하던
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던지...

오, 반질거리는 총탄각지를
주머니속에 절렁거리며
소꿉놀이에만 정신팔던 그 시절이여!
내 고향 강철지구에 쥐여뿌린
원쑤들의 폭탄수자를
내 작은 손가락으로 꼽아보며
산수로만 익혀가던 그 나날이여!

나는 몰랐다
모든것이 폐허로 된 전후의 그날-
가득쌓인 파편조각들을
말없이 로속에 처넣던
어제날의 병사-용해공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불
랐던지,
그 시련의 나날에도 어찌하여
쇠물은 쉬임없이 끓고 또 끓었던지...

그렇다, 준엄한 그 나날에
나는 너무도 어렸다!

2

강바람이 시원히 불어드는
용해장쇠란간에
내 때로 비스름히 기대여서서
아지랑이 피여오르는 조국의 봄들판을
흐뭇히 바라보는 때가 있다.

저녁노을 곱게 흘러드는
용해공들의 다층주택 높은 창가에서
내 때로 모든것을 잊고
단란한 가정의 웃음속에 파묻힐 때가 있다.

그러나 오, 이런 시각이면
스스로 아픈 채찍은 내려져
나는-
분렬된 조국을 안고 몸부림치곤하거니

나의 증오여! 너는
어느 한 시각에
그 어느 하루에
내 가슴에 실려진것이 아니다.

증오여, 너는
우리 오누이의 잠든 머리맡에서
남몰래 장농문을 열고 펼쳐보곤하던

어머니의 그 《비밀》 종이두루마리가
전사한 아버지가 남겨놓은
미완성설계도면이라는것을 깨닫던 그날에,

증오여, 너는
내 처음으로 그린 조선지도에
군사분계선을 그려넣는것을 보아주며
우리네 착한 녀선생님의 눈에
아픔의 이슬이 번쩍이던 그날에,
대양건너온 원썩 미제가
분계선을 저들의 전선방위선이라 떠벌인다는
그 천만부당한 강도의 논리를 들고
내 격분에 넘쳐 쇠장대로 정판을 내려치던 그날에

아,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경축의 대회장마다에서
언제 한번 남녘을 잊지 못하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넘친 영상을 우러르며
내 뜨거운 가슴을 부여안던 그날에...

하나씩, 둘씩
복수자의 탄창에 총알이 채워지듯
증오여, 너는
내 가슴속에 피로 장악되었다!

오, 내 나이 아직 서른이 못되었어도
두 세대의 분노를 겹쳐안은 나의 증오여
그래서 너는 이처럼 불타고
이처럼 흔들릴줄 모른다!
그래서 내 끓이는 쇠물속엔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래서 내 뿜은 강철은
그렇듯 번쩍인다. 녹출줄 모른다!

3

밤은 깊어만 간다
사뭇쳐 끓는 쇠물을 안고
강철지구의 밤은 깊어깊어만 간다.

후더운 열풍이
내 불을 뜨겁게 어루만져준다.
나의 전기로-
숫구치는 불길을 안고
이 밤, 나는 쇠물을 끓인다.
나처럼 전기로도 말이 없다.

이제 잠시후면 새날은 오리
이제 잠시후면 우리의 어린것들이 깨어나고
그 천진스런 작은 손길들은
생각없이 또 한장 달력을 번지리

오, 우리는 이렇게 새날을 맞고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어머니의 그 조심스런 부스럭소리를 들으며
내 또 한밤 입술을 깨물고 잠못들어야 하는가.
오늘도 어린것들에게 조선지도를 그려줄
그 착한 녀선생님의 눈에
또다시 아픈 이슬을 담아주어야 한단말인가!

내 철없던 시절-
달음박질치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길 바라며 슬피우는 나를
엄하게 타이르던 나의 어머니
《네절로 일어나거라.

그리고 네손으로 씻어라...》
아아, 그날에 어머니의 말을
나는 왜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있는것인가!

오라, 복수의 날이여
내 눈동자처럼
언제나 불타는 강철지구의 시뻘건 하늘이여
마르고 타는 내 가슴인듯
쇠물을 그리안고 소리치르는 나의 전기로여

나는 이 증오를
혁명의 붉은 칼처럼 추켜들리라
지금도 전쟁열에 미쳐날뛰는 미제의 가슴팍에
복수의 일격을 내리기전에는
나는 이 증오의 칼을 내리지 않으리라

아아, 가슴속에 불붙으며 덩굴며
목메여 소리치는 나의 증오여
너는 스물일곱해
한치한치 너무도 오래 타들어왔거니

기어이 튀고야 말리라
원썩들이 불을 지르는 그날엔
내 한몸에 꽉 들어찬 이 증오가
폭탄처럼
무서운 폭탄처럼
미제의 면전에서 튀고야 말리라!